서 문

나는 우리나라 시인 가운데 손곡 이달과 석주 권필을 가장 좋아한다. 이달의 시가 따스하게 무르녹았다면, 권필의 시는 서늘하게 날이 섰다. 이달은 정감의 시인이고, 권필은 기백의 시인이다.

나는 손곡집을 읽기 전에, 허균이 지은 『학산초담』과 「성수시화」부터 읽었다. 말하자면 허균의 해석에 따라 손곡의 시를 읽기 시작했고, 허균을 연구하다 그의 스승 손곡까지 만난 셈이다. 눈이 높았던 허균은 초라한 모습의 손곡을 처음 만났을 때에 눈여겨보지도 않았다. 그러다가 그의 시를 한번 듣는 순간, 시인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를 스승으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손곡에게 있어서 허균은 만만한 제자가 아니다. 허균은 마흔이 되어 일가를 이룬 뒤에도 일흔이 된 스승 손곡에게 시를 보내어 평을 부탁했는데, 스승의 평을 수긍하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내세워 반박하였다. 자신의 시를 스승이 몰라주고 성당(盛唐)의 풍격을 섭렵하지 못했다고 폄하하자, 독자들이 자신의 시를 읽으면서 "이 시가 당(唐)에 가깝다"고 칭찬해주기보다 "이건 허균의 시다[許子之詩]"라고 인식해주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그러면서도 허균은 자신의 문집에 실린 한시 곳곳에 손곡의 평을 덧붙였다.

이번에 『손곡집(蓀谷集)』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찾아낸 그의 제자는 3명인데, 유형은 그의 말년 생활을 후원하고 『서담집(西潭集)』을 편집 간행하였다. 허균은 「손곡산인전」을 짓고, 297편의 시를 모아 『손곡집』을 간행하였다. 이름난 문인이 세상을 떠나면 후손이나 제자들이 유고를 정리하여 문집을 편찬했는데, 흩어진 원고를 모으는 일도 힘들었지만 간행비를 마련하는 것도 수월치 않았다. 대를 이을 아들도 없었던 손곡은 제자 덕분에 두 차례나 문집이 간행되었는데, 지금은 『손곡집』만이 남아 그의 모습을 400년 넘게 전해주고 있다.

허균은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웠던 1618년 늦봄에 『손곡집』을 활자로

간행하였다. 가난했던 시인 손곡으로선 죽어서 호사를 다한 셈이지만, 허균도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스승의 문집을 간행했으니 제자의 도리를 다한 셈이다. 문집 간행이 몇 달만 늦었더라도, 허균이 역적으로 몰려 처형당하는 순간 손곡의 시도 흩어져 없어졌을 것이다.

조선시대에 아름다운 스승과 제자 사이가 많이 있었지만, 서얼 출신의 스승을 문학사에 남기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했던 허균같은 제자가 있었기에, 오늘 『손곡집』의 국역사업을 마무리하게 되었다. 『손곡집』은 여러 판본이 있지만,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된 활자본을 대본으로 삼아 번역했다.

문집에 실리지 않은 시 8편을 수집하면서, 그의 친필도 찾게 되어 더욱 다행스럽다. 집도 절도 없이 평생 떠돌아다녔던 시인 손곡에게 이 책이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 뜻깊은 작업을 후원해주신 원주시에 감사드린다.

2006년 1월

역자 허 경 진

【사진설명】

이 시비(詩碑)는 원주시 부론면 손곡(蓀谷) 1리에 있다. 시(詩) 내용은 『손곡집(蓀谷集)』 권6에 실린 「예맥요(刈麥謠)」이다. 손곡(蓀谷) 이달(李達)은 시골집에서 먹을 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모습을 마치 눈으로 보는 것처럼 그려내었다.

시골 밭집 젊은 아낙네 저녁거리 떨어져서
田家少婦無夜食
비 맞으며 보리 베어 숲 속으로 돌아오네
雨中刈麥林中歸
생나무에 습기 짙어 불길마저 꺼지도다
生薪帶濕煙不起
문에 들자 어린 아이들 옷자락 잡아당기며 울부짖네
入門兒子啼牽衣

【사진설명】

우복(愚伏) 정경세(鄭經世, 1563~1633)가 1609년(광해군 1) 3월 동지사에 임명되고 8월 7일 조정을 떠났는데, 평양을 지날 무렵에 이달(李達)이 송별회에 참석하여 시를 지어 주었다. 원본이 장서각(藏書閣)에 소장되어 있다. 마지막에 "세사기유중추하완(歲舍己酉中秋下浣) 서담(西潭) 이달(李達) 재배고상(再拜稿上)"이라는 구절이 덧붙어 있어, 1609년 8월 하순 평양에서 지었음을 알 수 있다. 이달이 지은 시 가운데 현존하는 유일한 친필로 추정된다.

동지 정사 정상국의 연행을 전송하면서
奉送冬至正使鄭相國之行

팔월 변방에 서리 내려 풀들 누러니
八月邊霜塞草黃
학야 널찍해 갈 길이 멀겠네
鶴野漫漫去路長
상공께서 수레 타고 상국으로 향하시니
公乘使車向上國
옥색 구름 속으로 봉황이 날아가네
玉色雲中翔鳳皇
순음(純陰)[1]은 변해 회복되고
純陰變爲復
자정부터 일양(一陽)을 낳으니[2]

1) 10월 기해일(己亥日)을 순음(純陰)이라고 하는데, 육효(六爻)가 모두 음(陰)이어서 양기(陽氣)가 다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양기가 다했기 때문에, 다시 하나씩 회복된다.

2) 홀수는 양(陽)이고, 짝수는 음(陰)이다. 음력 10월에 한 해의 음(陰)이 다하고, 11월 동지에 1양(陽)이 생긴다고 하였다. 한겨울에 봄기운이 시작

子半生一陽

옥형(玉衡)[3]은 칠정(七政)[4]과 가지런하고

玉衡齊七政

백성들 사업이 변함없어

正如民事常

천왕(天王)은 황극전(皇極殿)에서

天王皇極殿

넓은 우주에[5] 임해 손을 맞잡고만 있네.[6]

端拱臨洪荒

황색 곤룡포가 상서로운 연기 속에

黃袍龍袞瑞烟裏

부상(扶桑)에서 아침 해가 막 떠오르듯 빛나네

晃若扶桑初日光

멀고 가까이서 배 타고 산 넘어[7] 모두들 조공하며

梯航遠邇盡入貢

된다는 뜻이다. 이날이 바로 동짓날이다.

3) 천체의 운행과 그 위치를 측정하던 천문관측기인데, 고대 중국의 우주관인 혼천설(渾天說)에 기초를 두어 기원전 2세기에 처음 만들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장영실이 1433년에 처음 만들었다. 하늘은 공처럼 둥글다고 생각하고 그 표면에 해와 달, 별들의 운행을 설명할 수 있는 천구의(天球儀)를 가리키는 것이 기(璣)이며, 천구의를 통해 천체를 관측할 수 있는 관(管)이 형(衡)이다.

4) 해[日]와 달[月], 금(金)·목(木)·수(水)·화(火)·토(土)의 오성(五星)을 가리킨다.

5) 원문의 '홍황(洪荒)'은 『천자문』의 둘째 구절 '집 우(宇), 집 주(宙), 넓을 홍(洪), 거칠 황(荒)' 가운데 두 글자인데, '넓고 아득한 우주'를 뜻한다.

6) 옷만 늘어뜨리고 손을 맞잡고만 있어도 천하가 잘 다스려졌다[垂拱而天下治]. -『서경』「무성」. 천자가 하는 일이 없어도 천하가 잘 다스려진다는 뜻이다.

7) 진나라 소왕(昭王)이 공인(工人)을 보내, 사닥다리로 화산에 오르게 했다. -『한비자』「외저설(外儲說)」. 높은 산에 사다리를 타고 오르며, 먼 바다에 배를 타고 건너는 것은 멀고 높은 산에 간다는 뜻인데, 흔히 외국에 사신으로 다녀오는 것을 가리켰다.

흰 꿩을 월상국[8]에서 바치니
白雉來越裳
천자의 위엄 미치는 곳에 누가 감히 뒤지랴
天威所及孰敢後
이마에 문신 새기고[9] 머리 땋은 오랑캐들 사방에서 모여드네
雕題辮髮會四方
동쪽 번방은 대대로 신하의 직분을 받들어
東藩世世供臣職
덕업과 문장으로 사신을 가려 뽑았네
揀使德業攻文章
흠천문(欽天門) 밖에서 날 새기를 기다리고
欽天門外待曙漏
오문교(五門橋) 위에서 하늘 향기를 맡아
五門橋上聞天香
달관(達官)을 따라 승상과 같이 들어가면
同隨達官丞相入
일천 관원들의 패검 소리가 낭랑하게 울렸네
千官劍佩鳴琅鏘
궁궐 뜨락에서 두 번 절하고 만세를 부르니
彤庭再拜呼萬歲
구름비단을 하사하시어 천 장이 넉넉하네
勅賜雲錦足千張
오만관(烏蠻舘)[10]에서 맹수들 사납게 으르렁거리고

8) 원시(元始) 원년 정월에 월상씨(越裳氏)가 세 번이나 통역을 거치면서 흰 꿩 한 마리와 검은 꿩 두 마리를 바쳤다. -『한서(漢書)』「평제기(平帝紀)」월상국이 워낙 먼 나라라서 중국과 말이 통하지 않아 세 사람이나 통역을 거쳐야 말이 통했다. 원시(元始)는 한나라 평제(平帝)의 연호인데, 원시 원년은 서력 1년이다.

9) 원문의 '조제(雕題)'는 이마에 문신을 새기는 것인데, 남만(南蠻) 풍습이다.

烏烓蠻舘
강남에 매화 피자 고향을 생각하네
梅發江南思故鄕
고향생각은 천만리 아득한데
鄕心迨遞千萬里
해 넘겨 돌아올 테니 시름이 창자를 얽었네
經歲乃歸縈愁腸
노룡새(盧龍塞)[11] 주변에는 한식 철이고
盧龍塞上寒食節
계문(薊門)에는 북방 풀[12]들이 향기로우니
薊門燕草芳
한양 대궐에 돌아와 복명하실 때
歸來復命漢北闕
천조의 모든 일을 우리 왕께 고하소서
天朝事事達吾王

기유년(1609) 8월 하순에 서담 이달이 재배하며 지어 올리다
歲舍己酉中秋下浣 西潭李達 再拜稿上

10) 오만(烏蠻)은 중국 남서지방에 살던 소수민족이며, 그들의 사신이 묵던 객관이 오만관이다.
11) 연행(燕行) 노정(路程)에서 영평부에 속한 요새인데, 삼국시대 조조가 오환군(烏桓軍)을 치러갈 때에 길을 뚫었던 곳이다.
12) 원문의 '연초(燕草)'는 '연(燕) 지방의 풀'이라는 뜻이지만, 이백의 시 「춘사시(春思詩)」에서 북방에 나는 풀을 두루 가리키는 말로 쓰였다.

목 차

손곡집(蓀谷集) 서(序) 1

권1
고풍(古風)
얼룩진 대나무에 원한이 맺혀(斑竹怨) 5
채릉곡(采菱曲) 6
고죽의 산장을 찾아서(尋崔孤竹坡山莊) 6
밤 회포를 시로 읊다(夜懷詠韻) 7
강선루(降仙樓) 8
회양부에서 양봉래에게 편지를 부치다(淮陽府簡寄楊蓬萊) 8
밤에 비오는 소리를 들으며 좌망 사군과 헤어지다(夜來聞雨留坐忘使君別) 9
한석봉의 오송정을 읊다(詠韓石峯五松亭) 10
사또 이거용에게 써 보이다(錄示李使君巨容) 11
예전 만남을 그리워하며 정랑 신설에게 지어주다(憶昔行贈申正郎渫) 15

권2
가(歌)
만랑옹의 춤을 노래하다(漫浪舞歌) 19
총융사 유형의 자류마를 노래하다(柳摠戎紫騮馬歌) 22
새로 알게 된 즐거움을 시로 지어 신덕준 시보에게 주다(新知樂贈申施甫德濬) 25
백상루(百祥樓) 27
관산월(關山月) 28
삼오칠언(三五七言) 29

권3
오언율시(五言律詩)
구산역(丘山驛) 31
경호에서 한림 최대중의 시에 차운하다(鏡湖次崔內翰大中韻) 32
감상인에게(贈鑑上人) 32
황폐한 절을 지나며(經廢寺) 33
윤상인의 시축에 차운하다(次允上人軸) 34
서울로 가는 최시중을 송별하며(送崔時中之京) 34
동쪽 누각의 매화를 찾아서(東閣尋梅) 35
효리당에 쓰다(題孝里堂) 36
성행 상인께 지어 주다(贈性行上人) 36
단천에서 중양절을 맞으며(端川九日) 37
건등산(建登山) 37

영월 가는 길(寧越道中) 38
정선군 판상의 시에 차운하다(次旌善郡板上韻) 39
밤에 대탄에 배를 대고(夜泊大灘) 40
노상국의 시에 차운하여 벽사 스님의 시축에 쓰다(次盧相國韻題甓寺僧軸) 40
서울로 가는 이계헌을 송별하며(別李季獻之京) 41
사암 상공께 올리다(上思菴相公) 42
숙주 가는 길에서(肅州道中) 43
패강을 건너며 재송정에 쓰다(渡浿江 題裁松亭) 44
공주에서 송정옥을 만나(公山逢宋廷玉) 45
체찰사 상공께 올리다(上體察相公) 46
진남루(鎭南樓) 46
김새 집의 모란을 읊다(詠金璽家牧丹) 47
저녁이 되기도 전에(不夕) 48
양산 가는 길에(梁山道中) 48
청명일의 감회(淸明日感懷) 49
산속 스님이 보내준 솔잎을 감사하다(謝山僧惠松葉) 50
양양가는 길에서(襄陽道中) 50
밤에 앉아서 허균에게 지어주다(夜坐贈許端甫) 51
밤중에 앉아 생각하다(夜坐有懷) 51
황회지에게 부치다(寄黃晦之) 52
삼등 초당(三登草堂) 53
이유위의 벽에 쓰다(書李有爲壁) 54
정산 동헌(定山東軒) 54
수재 심대형과 헤어지며(別沈秀才大亨) 55
유씨 집의 외로운 기러기를 읊다(詠柳家孤雁) 56
임득신 자립과 헤어지며(別林子立得信) 58
북대에 올라서 바라보다(北臺登眺) 59
차운하여 민진사에게 부치다(次韻寄閔進士) 60
권진사의 시에 차운하다(次權進士韻) 60
나그네 되어 노닐다(旅遊) 61
차운(次韻) 62
묘향산으로 놀러 가는 북저 김학사를 보내며(送北渚金學士遊妙香之行) 62
단오절의 회포를 읊다(端陽述懷) 63
정학관과 헤어지며 지어 주다(贈別丁學官) 64
병마절도사 유형에게(呈柳摠戎) 65
차운하여 금사에게 주다(次韻呈金沙) 65
강계 조부사께 문안하며 부치다(寄問江界趙府使) 66
김통판에게 지어 주다(贈金通判) 67
가을 산의 저녁 회포(秋山夕懷) 67
한찰방에게 지어 주다(贈韓察訪) 68

남창에게 화답시를 올리다(奉酬南窓) 69
황주에서 한자선을 만나다(黃州逢韓子善) 69
강릉으로 부임하는 신영공을 송별하며(奉送申令公之任江陵) 70
요월당 시에 차운하다(次邀月堂韻) 71
부사 양사언에게 올리다(上楊明府) 72
호숫가 절에서 스님의 시축에 있는 최경창과 백광훈의 시를 보고 서글픈 마음에 시를 지어 주다(湖寺見僧軸有崔白詩 愴懷有贈) 73
벗과 함께 호숫가 절에서 하룻밤 자기로 기약하며(與友人期宿湖寺) 73
스님에게 지어 주다(贈僧) 74
무장현 가는 길에(茂長道中) 75
벗에게 지어 주다(贈友人) 76
삼청동에서 놀다(遊三淸洞) 76
성암과 헤어지면서 지어 주다(贈性菴別) 77
부여를 지나다가(過扶餘有懷) 78
홍농성 밖에서 좌랑 이자장과 헤어지며(弘農城外別李在郎子張) 78
남쪽 고을에서 고죽 사또에게 보이다(南州示孤竹使君) 79
병들어 천안군수 손사군을 그리워하며(病懷寧城倅孫使君) 79
취원정에서 영광과 무장 두 고을 사또에게 보이다(聚遠亭示靈茂二使君) 80
토정의 포구 누각에서 자며(宿土亭浦樓) 81
부여 가는 길에(扶餘道中) 82
사암의 시에 차운하다(次思菴韻) 82
도천사 명월료에서 잠 자며(宿道泉寺明月寮) 83
여러 달(數月) 84
보원스님이 서쪽으로 돌아간다기에 지어 주다(贈僧普元西歸) 84
청학동(靑鶴洞) 85
불일암에서 인운스님에게 지어 주다(佛日菴贈因雲釋) 86
쌍계사(雙溪寺) 87
도의상인께 지어 주다(贈道義上人) 88
남원에 이르러 부사에게 지어 보이다(到帶方府示府伯) 88
용성에서 시를 주고받다(龍城酬唱) 89
안주 땅에서 조정으로 돌아가는 구대간을 송별하며(安州地奉送具大諫還朝) 90
답청일에 좌망에게 지어 보이다(踏靑日示坐忘) 90
좌망에게 적어 보이다(錄示坐忘) 91

권4

칠언율시(七言律詩)

연스님의 시축에 지어주다(題衍上人軸) 93

행사에게 지어 주다(贈行思) 93
호남 나그네 길에서(湖南客中) 94
개성에서 옛날을 생각하며(松京懷古) 95
손명부의 죽음을 슬퍼하다(挽孫明府) 96
부산포에서 쓰다(題釜山浦) 96
선산 가는 길에(善山道中) 97
새벽에 판교촌을 가며(曉行板橋村) 97
영남 좌병영으로 뵈러가는 임자순을 전송하며(送林子順覲嶺南左兵營) 98
나그네 보내려고 서교로 나왔다가 양근 사또에게 편지를 부치다(送客出西郊簡寄楊根使君) 99
늦봄에 절을 찾다(暮春尋寺) 99
허전한에게 안부를 보내다(寄問許典翰) 100
청천강을 건너며(渡淸川江) 101
구성 임명부께 올리다(上龜城林明府) 101
회포를 쓰다(書懷) 102
사암 상공께 올리다(上思菴相公) 103
도중에 느낌이 있어(道中感懷) 104
구일에 중국으로 사신 가는 백종을 송별하며(九日送伯宗朝天) 104
청도 이씨 집 벽에 쓰다(題淸道李家壁) 105
이화정에서 낙봉의 시에 차운하다(梨花亭次駱峯韻) 106
눈을 읊어 허주에게 드리다(詠雪奉呈虛舟) 107
홀로 앉아 봄날의 느낌을 허주에게 지어 드리다(獨坐感春呈虛舟) 107
청원루에 오른 감회(登淸遠樓感懷) 108
홍군서와 작별하며(留別洪君瑞) 109
서장관으로 떠나는 권원외를 송별하며(奉別權員外書狀之行) 109
한호 경홍과 헤어지며 지어 주다(贈別韓景洪濩) 110
강동에서 김기록을 만나 옛일을 이야기하다(江東逢金基祿話舊) 111
강동에서 군수 홍자경에게 지어 주다(江東贈主倅洪子敬) 111
백화산에 오르다(登白華山) 112
정문부 영공의 시에 차운하다(次鄭文孚令公韻) 113
선위사로 가는 이아계를 송별하며(奉送李鵝溪宣慰之行) 114
장률의 시에 차운하다(次長律韻) 114
풀려난 뒤에 하곡에게 부치다(放赦後寄荷谷) 115
동지하례사로 가는 이백생을 송별하며(送李伯生賀至) 116
호숫가 절의 스님 시축에 쓰다(題湖寺僧卷) 117
월정 아상께(上月汀亞相) 117
중양절 황강에서(九日黃岡) 118
강선루의 밤 회포(降仙樓夜懷) 119

월정 대인께 부치다(奉寄月汀大人) 120
평양 감회(平壤感懷) 121
입춘에 오체로 짓다(立春吳體) 122
나그네 시름(客懷) 122
근상인께 고마워하다(謝勤上人) 123
평양 소윤 한중부에게 지어 주다(贈平壤少尹韓仲孚) 124
한식(寒食) 124
안주목사 김덕함에게 부치다(寄安州牧使金德諴) 125
새재를 넘다가 두견 울음을 듣고서(過鳥嶺聞杜鵑有感) 126
백마강에서 옛날을 생각하며(白馬江懷古) 126
무제(無題) 127
신계에서 섣달 그믐밤을 보내며 운을 나누어 짓다(守歲新溪夜分韻) 128
병들어 머물며 영성 못가 나무에 쓰다(病滯題寧城池樹) 129
밤에 여강을 가는 감회(夜行驪江感懷) 129
무진년 청명절에 나와 노닐며(戊辰晴明出遊) 130
황정욱 영공을 만나 헤어지며 지어 드리다(逢黃廷彧令公贈別) 131
우연히 읊다(偶吟) 131
쌍부 상공의 광한루 시에 차운하다(次雙阜相公廣寒樓韻) 132
용성에서 옥봉의 시에 차운하다(龍城次玉峯韻) 133
권진사의 시에 차운하다(次權進士韻) 135
성천에서 쓰다(成川題詠) 136
기성에서 박생에게 지어 주다(箕城贈朴生) 137

권5

오언절구(五言絶句)

이예장과 헤어지며(別李禮長) 139
객사 다락에 올라(登驛樓) 139
매화 그림에다(畵梅) 140
대나무 그림에다(畵竹) 140
그림에 읊다(詠畵 六首) 141
최국보의 체를 본받아(效崔國輔體四時四首) 143
방림역(芳林驛) 145
학 그림(畵鶴) 145
그대를 보내고서(送人) 145
율곡 시에 차운하여 스님의 시축에 쓰다(次栗谷韻題僧軸) 146
주인의 벽에 장난삼아 쓰다(戲題主人壁) 146
김취면의 산수화 병풍에 쓰다(題金醉眠山水障子面 四首) 147
헤어지는 마음(別意) 148
배 위에서 니환과 헤어지며 차운하다(舟上別泥丸次韻) 149
그림(畫) 149
가림에서 안생과 헤어지다(嘉林別安生) 150

금강에서 정자신과 헤어지다(錦江別鄭子愼) 150
유서경에게 바치다(上柳西坰) 151
그림에 쓰다(題畵二首) 151
안주 시골집에서 자다(宿安州村舍) 152
김이옥과 만났다 헤어지며(逢金爾玉別) 152
그림에 쓰다(題畵四首) 153
차운하다(次韻) 154
그대와 헤어지며(贈人) 155
김열경의 사진첩에 쓰다(題金悅卿寫眞帖) 156
화첩에 쓰다(題畵帖) 156
윤서중의 시에 차운하다(次尹恕中韻) 156
김양송의 화첩에 쓰다(題金養松畵帖) 157
불일암에서 인운 스님에게 지어 주다(佛日庵 贈因雲釋) 157
풍악의 맑은 구름(楓岳晴雲) 158
평탄한 모래밭의 새벽 달(平沙曉月) 158
선연의 시골 등불(鐥淵村燈) 159
주막집 가을 다듬이 소리(新店秋砧) 159
연못에 내리는 밤비(蓮塘夜雨) 160
무학산의 저녁 기운(舞鶴暮嵐) 160
남산의 동백(南山冬柏) 161
쌍정의 납량(雙亭納涼) 161
날 저문 포구에 돌아오는 돛단배(暮浦歸帆) 161

육언절구(六言絶句)
무제(無題二首) 162
유총융에게 지어 바치다(奉呈柳摠戎) 163
한서장관과 헤어지다(別韓書狀) 163
기생에게 부치다(寄妓生) 164
황주에서 신자방에게 부치다(黃州寄申子方) 164
무제(無題二首) 165

권6
칠언절구(七言絶句)
장신궁 사계절 노래(長信宮四時詞) 167
평조 사계절 노래(平調四時詞) 168
유총융을 송별하다(送別柳摠戎) 170
무덤에 제사지내고(祭塚謠) 171
초승달에 절하다(拜新月) 172
양양곡(襄陽曲) 172
요새를 나가면서(出塞曲) 173
비단 치마띠 노래를 고죽 사또께 바치다(錦帶曲贈孤竹使君) 174
비단옷 노래(錦衣曲) 175
강남 노래(江南曲) 175
채련곡(采蓮曲次大同樓船韻) 175
보리 베는 노래(刈麥謠) 176
떠돌이 집안의 원망(移家怨) 177
횡당곡(橫塘曲) 177
월아의 시첩에다 선계곡을 쓰다(仙

桂曲題月娥帖) 178
청간정 시에 차운하여 강선곡을 쓰다(降仙曲次靑澗亭韻) 179
이삭을 줍는 노래(拾穗謠) 179
대추 따는 노래(撲棗謠) 180
보허사(步虛詞) 180
강릉 이야기(江陵書事) 184
궁사(宮詞) 184
허리대에서 읊다(許李臺口呼) 186
강릉 동헌(江陵東軒) 186
성불암(成佛庵) 187
관외 산행(山行關外作) 187
용나루(龍津) 187
서강 만흥(西江漫興) 188
그림에 쓰다(題畫) 188
죽두암(竹頭菴) 190
경포대에 놀면서 송덕구에게 지어 주다(遊鏡湖贈宋德求) 190
도인에게 지어 주다(贈道人) 191
스님에게 지어 주다(贈僧) 191
삼일포(三日浦) 192
영곡에서 봄을 찾다(靈谷尋春) 193
님에게 지어 주다(贈人) 193
개성에서 옛날을 생각하며(松京懷古) 193
사모하는 도백에게 부치다(寄謝慕伯) 194
종성 가는 길에(鍾城道中) 194
마천령에서 원집 벽에 쓰다(磨天嶺題院壁) 195
신륵사에 쓰다(題甓寺) 196
동궁에서 자다(宿洞宮) 196
가야산을 찾아서(尋伽倻山) 197
청도에서 중양절을 맞다(淸道九日) 198
새벽에 고산촌을 떠나며(曉發孤山村) 198
김자패의 산집을 찾다(尋金子佩山屋) 199
수헌의 벽에 쓰다(題睡軒壁) 199
격암 남사고의 죽음을 슬퍼하다(挽南格菴師古) 199
병중에 꽃을 꺾고 술을 마주하며 읊다(病中折花對酒吟) 200
아계 상공께 문안드리며 부치다(寄問鵝溪相公) 201
양봉래의 죽음에 곡하다(哭楊蓬萊) 201
호숫가 절의 스님 시권에 쓰다(題湖寺僧卷) 202
악사 허억봉에게 지어 주다(贈樂師許億鳳) 202
평양(西京) 203
가산 가는 길에(嘉山道中) 203
남당에 쓰다(題南塘) 204
군대에 가는 사람을 보내며(送人從軍) 204
허공언을 중국에 사신으로 보내며(送許功彦朝天) 205
의주로 가는 이관송을 보내며(送李觀松之龍灣) 206
말을 점고하러 서울로 가는 정사휘

를 보내며(送鄭士徽點馬之京) 207
신부 단장을 재촉하며 장난삼아 교산에게 지어 주다(催粧戱贈蛟山) 207
헤어지는 마음(別意) 208
호남에서 서중에게 부치다(湖南簡恕仲) 209
스님의 시축에 쓰다(題僧軸) 209
한양에서 느낀 바 있어(洛中有感) 210
동쪽 교외로 허미숙을 찾아가다(東郊 訪許美叔) 211
고죽의 시골집을 바라보다(望孤竹村莊) 211
무산 가는 길에서 비를 만난 감회(巫山道中逢雨感懷) 212
공강정(控江亭) 213
성천에서 서울 기생 환어사에게 지어 주다(成川 贈京妓喚御史) 213
스님의 시축에 차운하다(次僧軸韻) 215
이회원에게 지어 주다(贈李會源) 215
상사일(上巳) 216
강가를 따라 가다(江行) 216
신판관에게 지어 주다(贈申判官) 217
아내의 죽음을 슬퍼하다(悼亡) 217
그 자리에서(卽事) 218
님에게 지어 주다(贈人) 218
그림(畫) 219
한익지와 헤어지며 지어 주다(贈別韓益之) 219
채경일이 그윽하게 사는 곳에 쓰다(題蔡景一幽居) 220
이인서의 집에서 신부 화장을 재촉하며(李仁瑞家催粧詩) 220
찰방 권중명에게 지어 주다(贈權察訪仲明) 221
서울로 올라가는 좌랑 윤휘를 송별하며(送尹佐郎暉之上京) 222
그림에 쓰다(題畵) 223
서울로 가는 사람을 보내며(送人入京) 224
운을 부르다(呼韻) 225
절강 사람 계옥에게 지어 주다(贈浙江人桂玉) 225
가을밤 정우당에서 율곡과 함께 이야기하다가 운을 부르다(秋夜淨友堂同李栗谷話因呼韻) 226
그림에 쓰다(題畫) 226
고죽에게 부치다(寄孤竹) 227
삼청동에 놀다(遊三淸洞) 227
불을 얻다(乞火) 228
서울에 가는 친구를 보내면서(送友人之京) 228
병으로 영성 연각에 머물면서 주인에게 지어 보이다(滯病寧城蓮閣示主人) 229
장사 태수의 능양 유거 사시에 쓰다(題長沙倅綾陽幽居四時) 229
두산현에서 비바람 부는 밤의 감회

(杜山縣夜風雨感懷) 232
만청포에서 토정의 옛집을 바라보면서 서글피 짓다(蔓菁浦望土亭舊業悵然作) 233
비 온 뒤의 배꽃(雨後梨花) 233
피려다가 미처 피지 못한 매화를 읊다(詠梅欲開未開者) 234
양백휴에게 부치다(寄梁伯休) 234
쌍부 상공이 순창 동헌에 지은 시에 차운하다(次雙阜相公淳昌東軒韻) 235
길을 가다 손곡의 옛집을 생각하며 지어서 고죽에게 보이다(路中憶蓀谷莊示孤竹) 235
꽃을 바라보며 늙음을 탄식하다(對花嘆老) 236
새하곡을 지어 병마절도사 유형에게 주다(塞下曲贈柳摠戎) 236

부록1
문집에 없는 시
기생들 공동묘지를 찾아서 239
기생 옥하선에게 240
지는 꽃(落花) 240
용성창수집(龍城唱酬集) 241
태헌의 시에 차운하다(謹次苔軒韻) 243
옥대체(玉臺體) 245
새하곡(塞下曲) 245
동지 정사 정상국의 연행을 전송하면서(奉送冬至正使鄭相國之行) 246

부록2
손곡산인전(蓀谷山人傳) 251

부록3
손곡집(蓀谷集) 영인
- (국립중앙도서관 일산古3644-54) 1~162
- (서울대학교 규장각古3447-23) 163~293

손곡집(蓀谷集) 서(序)

우리나라가 문운(文運)이 크게 빛나, 시로써 이름난 학사 대부가 거의 수백 명이다. 모두 스스로 이르기를 "사람마다 영사(靈蛇)의 보물을 잡았다"고 하였으니, 참으로 숲같이 무성하다.

간단히 헤아려보면 세 가지 길이 있다. 화평 담아하고 원적(圓適) 균칭(均稱)하여 혼연히 일가(一家)의 말을 이룬 사람은 용재(容齋) 이행(李荇, 1478~1534)을 들 수 있고, 낙봉(駱峰) 신광한(申光漢, 1484~1555)과 영가부자(永嘉父子)[1]가 그 화려함을 떨쳤다. 그 다음은 창대(昌大) 망망(莽莽)하고 넓은 재주를 넉넉히 쌓아 한 시대의 대방가(大方家)가 된 사람으로 사가(四佳) 서거정(徐居正, 1420~1488)·점필(佔畢) 김종직(金宗直, 1431~1492)·허백(虛白) 성현(成俔, 1439~1504)과 같은 무리가 웅대하였다.

그 다음은 높고 가파르며 생각이 치밀하여 아름답고도 험하기를 귀하게 여긴 사람으로 눌재(訥齋) 박상(朴祥, 1474~1530)·호음(湖陰) 정사룡(鄭士龍, 1491~1570)·소재(穌齋) 노수신(盧守愼, 1515~1590)·지천(芝川) 황정욱(黃廷彧, 1532~1607) 같은 여러 거장들이 건장함을 자랑하여 아름다움이 갖춰졌다.

그러나 부드럽고도 두터워 소리는 바르고 격은 높아서 (당나라) 개원(開元)[2]과 대력(大曆)[3] 시대의 시에 궤도를 정한 시인은 세상에 적

1) 영가(永嘉)는 안동의 옛이름인데, 흔히 권씨를 가리킨다. 권씨 가운데 부자가 이름난 시인으로는 부자가 모두 대제학을 지낸 양촌(陽村) 권근(權近, 1352~1409)과 지재(止齋) 권제(權踶, 1387~1445)를 들 수 있으며, 권제가 『영가연괴집(永嘉連魁集)』을 엮었다.

2) 당나라 현종(玄宗)의 연호(713~741)인데, 이백과 두보가 활동한 성당(盛唐) 시대이다.

3) 당나라 대종(代宗)의 연호(766~779)인데, 두보가 활동하던 시대이다.

었으니, 시를 아는 사람들이 한스럽다고 말하였다. 홍・정(弘正)[4] 연간에 망헌(忘軒) 이주(李胄, ?~1504)가 비로소 당시(唐詩)를 배워 침착하고도 고왔으며, 충암(冲菴) 김정(金淨, 1486~1520)이 이어서 일어나 (당나라 시인) 위응물(韋應物)과 전기(錢起)의 소리를 냈으니, 이 두 분은 같은 반열로 칭찬할 만하다. 그러나 아깝게도 오래 살지 못한 것을 한탄해야 하겠다.

융・만(隆萬)[5] 연간에 이르러는 사암(思菴) 박순(朴淳, 1523~1589) 상공이 성당(盛唐)의 이백(李白)을 받들 줄 알아 읊은 시들이 자못 맑고도 높았으니, 본보기로는 비록 부족하지만 고무되기에는 넉넉하였다. 늦게 최경창(崔慶昌, 1539~1583)과 백광훈(白光勳, 1536~1582)을 얻어 드디어 청초한 시를 크게 펼쳤으니, 이른바 과섭(夥涉)이 유방(劉邦)과 항우(項羽)에게 길을 열어준 것과[6] 같지 않은가.

같은 시대에 손곡옹(蓀谷翁)이라는 사람이 있어 처음에 호음(湖陰)에게 두보(杜甫)와 소동파(蘇東坡)를 배웠는데, 그가 읊은 시가 이미 홍진(鴻縝)하고 순숙(純熟)하였다. 그러나 최경창, 백광훈과 사귀면서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진땀이 흘러, 그 배운 것을 모두 버리고 다시 배웠다. 그의 시는 본래 공봉(供奉) 이백(李白)에 근원을 두고 우승(右丞) 왕유(王維)와 수주(隨州) 유장경(劉長卿)에 드나들어 기운은 따뜻

---

4) 홍치(弘治)는 명나라 효종(孝宗)의 연호(1488~1505)이고, 정덕(正德)은 무종(武宗)의 연호(1506~1521)이다.

5) 융경(隆慶)은 명나라 목종(穆宗)의 연호(1567~1572)이고, 만력(萬曆)은 신종(神宗)의 연호(1573~1620)이다.

6) 과섭(夥涉)은 진(秦)나라 이세(二世) 때에 초나라 장수 진승(陳勝)을 가리키는데, 자가 섭(涉)이다. 어릴 적 시골에서 같이 밭 갈던 친구가 나중에 진승이 초왕(楚王)이 되었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가 대단해진 모습을 보고 '많고도 대단하다'는 뜻의 '과이(夥頤)'라는 말을 쓴 뒤에 '과섭(夥涉)'이라고 불렸다. 진승은 오광(吳廣)과 함께 군사를 일으키고 대택(大澤)을 공격하여 나중에 초왕이 되었는데, 대택의 공격 덕분에 초나라 항우(項羽)가 패왕(覇王)이 되었으며, 진나라 멸망이 앞당겨져 유방(劉邦)이 함양을 공격하고 항우를 격파하여 한(漢)나라 황제에 즉위하는 계기가 되었다.

하고 지취(志趣)는 빼어났으며, 빛은 곱고 말은 맑았다. 곱기는 남위(南威)[7]와 서자(西子)[8]가 고운 옷을 입고 밝게 단장한 것 같고, 부드럽기는 봄볕이 온갖 풀에 내려 비치는 것 같았다.

서리처럼 찬 물줄기가 큰 골짜기를 씻어 내리는 것같이 맑았으며, 높은 하늘에서 학을 타고 피리 부는 신선이 오색구름 밖을 떠도는 것 같이 밝게 울렸다. 당기면 노을빛 비단이 바람에 일렁이듯, 펼치면 옥빛 자리에 옥구슬이 구르듯, 쨍그랑하고 소리나게 몰아치면 비파가 슬피 울고 구슬이 울리듯, 눌러서 잡으면 천리마(千里馬)가 멈춰 서고 용(龍)이 웅크리듯, 일없는 때에 천천히 걸음은 평탄한 물결이 넘실넘실 천리 바다로 흘러가듯, 태산의 구름이 바위에 부딛쳐 흰 옷도 되고 푸른 개도 되었다.[9] 개원(開元)·대력(大曆) 사이에 두더라도 왕유(王維)와 잠삼(岑參)의 반열에서 조금도 기울지 않고, 우리나라의 여러 이름난 시인들과 비교하더라도 그들 또한 눈이 휘둥그레져 90리는[10] 물러설 것이다.

옹은 신분이 미천해 많은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지 않았으므로, 지은 시 천여 편이 모두 흩어지고 남은 게 없었다. 내가[11] 소년 시절부터 작은형님의 명으로 옹에게 시를 배워 마침내 향할 길을 알게 되었다. 그가 죽게 되자 그가 남겨 놓은 글이 없어져 전하지 않을 것을 안타깝게 여겨 평소에 개인적으로 기록한 것을 모으니 시가 200여 수 되

---

7) 진(晉)나라 문공이 남위를 얻고는 사흘 동안 정사를 보지 않더니, 그 뒤에 그를 멀리 밀쳐내면서 "후세에 반드시 여색 때문에 나라를 망케 할 자가 있을 것이다"고 하였다. -『전국책』「위책(魏策)」.

8) 춘추시대 월나라 미녀 서시(西施)인데, 월나라 왕 구천이 오나라에게 패한 뒤에 그를 오나라 왕 부차에게 바치며 미인계를 썼다. 부차가 서시의 미색에 빠져 정치가 어지러워지자, 월나라가 오나라를 쳐서 복수하였다.

9) 하늘의 뜬구름이 흰 옷 같더니 잠시 사이에 푸른 개같이 변했네. 天上浮雲如白衣, 斯須改變如蒼狗. - 두보「가탄시(可歎詩)」.

10) 원문의 '삼사(三舍)'는 군대가 사흘 동안 행군하는 거리인데, 1사(舍)가 30리이다.

11) 원문의 '불녕(不佞)'은 재주가 없다는 뜻인데, 허균이 자신을 낮추는 말로 많이 썼다.

어 판각하려고 하였다. 그러다가 상사(上舍)[12] 홍유형(洪有炯)의 집에서 130수를 더 얻어 이재영(李再榮) 군에게 합하여 종류별로 편집하게 했더니 6권이 되었다.

옹의 시는 우리나라 여러 이름난 시인들을 뛰어넘으니, 어찌 나의 하찮은 글이 있어야만 오래 전하겠는가? 비록 그렇지만 남겨진 시를 주워모아 천년 뒤에 전하기를 바라는 것이 나의 마음이니, 부처님 머리를 더럽힌다는[13] 꾸지람인들 어찌 피하겠는가. 위아래 수백년에 걸쳐 여러 노대가를 평정(評定)하여 옹에게까지 이른 것은 분수에 넘쳐 이 시대 사람들을 놀라게 하리라는 것을 잘 알지만, 오래되면 논의는 정해질 것이다. 어찌 한 사람의 지언(知言)이 없으랴. 마침내 이 글을 써서 머리말로 삼는다. 옹의 성은 이(李)요, 이름은 달(達)이며, 자는 익지(益之)이다. 쌍매당(雙梅堂) 이첨(李詹)의 서예손(序裔孫)이니, 손곡(蓀谷)은 그의 자호이다.

만력 무오년(1618) 3월에 양천(陽川) 허단보씨(許端甫氏)[14]는 서(序)한다.

---

12) 명나라나 청나라 때에 국자감(國子監) 학생을 상사(上舍)라고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진사를 상사(上舍)라고도 하였다. 홍유형이 1612년에 진사시에 합격했으므로 이렇게 썼다면 손곡의 졸년이 1612년으로 확정되며, 이 시가 마지막 작품이 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학문하는 사람에 대한 존칭으로도 썼기 때문에, 단정지을 수는 없다.

13) 구양공(歐陽公)이 『오대사(五代史)』를 지으면서 그 앞에 서(序)나 기(記)를 쓰자, 왕형공(王荊公)이 보고 "부처님 머리에 어찌 똥칠할 수 있느냐?"하고 말했다. - 유훈(劉壎) 『은거통의(隱居通議)』 「문장(文章)」 6. "부처님 머리에 똥칠하기[佛頭着糞]"이라는 속담이 있다. 원래는 『경덕전등록(景德傳燈錄)』에 나오는 말인데, 훌륭한 글 앞에 서문이나 발문을 쓰는 사람이 자신의 글을 낮추는 표현으로도 썼다.

14) 단보(端甫)는 이 책을 편집 간행한 허균의 자이다.

손곡시집(蓀谷詩集) 권일(卷一)

고풍(古風)

얼룩진 대나무에 원한이 맺혀[1)]

그 옛날 두 왕비가 순임금을 뒤쫓아
남쪽으로 상수까지 달려갔었지.
피눈물 흘려 상수의 대나무에 젖었으니
상수의 대나무는 아직까지도 피얼룩졌네.
구의묘는 구름 속에 덮였고
창오산에는 해가 지는데,
두 왕비의 남은 한이 강물에 있어
넘실넘실 흘러선 돌아오지 않네.

1. 斑竹怨
   二妃昔追帝 南奔湘水間
   有淚寄湘竹 至今湘竹斑
   雲深九疑廟 日落蒼梧山
   餘恨在江水 滔滔去不還

1) 순임금이 순행하다가 창오산에서 죽자, 아황과 여영 두 왕비가 뒤쫓아와서 피눈물을 흘리다가 상수에 몸을 던져 죽었다고 한다. 구의묘는 아황과 여영 두 왕비의 혼을 모신 사당이다.

채릉곡

남호에서 연밥 따는 여인이
날이면 날마다 호수로 오네.
얕은 물가에는 마름 열매 가득하고
깊은 연못에는 연잎이 드무네.
노 젓는 솜씨 익숙치 않아
물방울이 비단옷에 튀네.
무심결에 배를 돌리니
연잎 속 원앙새가 놀라서 날아가네.

2. 采菱曲
南湖采蓮女 日日湖中歸
淺渚菱子滿 深潭蓮葉稀
蕩舟不慣手 水濺越羅衣
無心却回棹 葉底鴛鴦飛

고죽의 산장을 찾아서

여러 달 만나지 못했기에
오늘 기쁘게 찾아왔네.
농가는 나무 아래에 있고
오이 덩굴이 가을 숲에 걸려 있네.
주인은 참으로 탈없이 지낸다며
가난을 마음에 꺼리지 않네.
즐거운 낯빛으로 뜨락 풀 위에 앉아
나를 위해 거문고를 뜯어주네.

거문고 다하면 다시 헤어져야 하니
슬픔만 서러움만 가슴에 가득해라.

3. 尋崔孤竹坡山莊
累月抱暌曠 及此喜相尋
田廬樹木下 瓜蔓懸秋林
主人固無恙 貧窶不嬰心
怡然坐庭草 爲我奏鳴琴
琴盡卽還別 悢悢恨彌襟

밤 회포를 시로 읊다

가을 밤 그대와 헤어지는데
하늘에는 때마침 달도 없구나.
팔을 아홉 번 꺾어봐야 명의가 된다는데[2)]
얼굴 부끄러움을 어찌 씻어보랴.
세상 살기엔 너무 고결한 것도 꺼려지니
회포가 까닭없이 생겨나는구나.

4. 夜懷詠韻
秋夜與君別 秋天適無月
成醫臂九折 面恥何曾雪
處世忌太潔 所懷無由發

2) 팔을 아홉 번 꺾어봐야 의원이 될 수 있다던데 내 지금에야 그 말이 맞는 걸 알겠구나. “九折臂而成醫兮 吾至今而知其信然” - 굴원『초사』「구장(九章)」석송(惜誦).

강선루[3] - 니환(泥丸)의 시에 차운하다.

달 밝아 이슬 하얗게 빛나고
밤 고요해서 가을 강은 깊구나.
신선 누각에서 한 잔 술에다
거문고 소리까지 맑아,
시절을 느낀 게 아니건만
내 마음 저절로 아파라.

5. 降仙樓 次泥丸韻
月明露華白 夜靜秋江深
仙閣一杯酒 泠泠三尺琴
不是感時節 自然傷我心

회양부에서 양봉래[4]에게 편지를 부치다

시월에 한양을 떠나
지금 강원도에 있네.
강원도엔 눈 비가 많아
내일 출발이 늦어질까 걱정이라네.

---

3) 강선루는 평안도 성천부 객관 서쪽 모퉁이에 있다. 비류강을 굽어보고 섰으며, 서쪽 언덕에는 기이한 봉우리가 병풍처럼 깎아 서 있다. '신선이 내려온 누각'이란 뜻이다.

4) 봉래는 양사언(楊士彦, 1517~1584)의 호이고, 자는 응빙(應聘)이다. 1546년 문과에 장원급제하면서 벼슬을 시작했으며, 형 사준(士俊)과 아우 사기(士奇)와 함께 문장에 뛰어나 소동파 3부자의 미산삼소(眉山三蘇)에 견주어졌다. 1568년 회양부사로 있는 동안 금강산에 자주 놀러갔으며, 만폭동 바위에 '봉래풍악(蓬萊楓岳) 원화동천(元化洞天)'이라는 글자를 크게 써서 새겼다.

서로 그립지만 몇 겹이나 막혔기에
하룻밤 사이에 사람만 늙게 하네.

6. 淮陽府 簡寄楊蓬萊
十月發漢陽 今在交州道
交州雨雪多 明發恐不早
相思隔重關 一夜令人老

밤에 비오는 소리를 들으며 좌망 사군과 헤어지다

어둑한 밤 구름이 모여들더니
쓸쓸한 가을 기운으로 서글퍼지네.
가을장마에 평평한 땅 어두워지고
나무 끝에는 바람이 다시 부네.
귀뚜라미 뜨락에서 우니
길마다 헤어져 마음 아프네.
이제부터 (글자 한 자가 없음) 시작해
말하려 하자 두 줄기 눈물 흐르네.
다닐 때는 오두막에 투숙했다가
오래잖아 다시 이곳에 왔네.
가던지 머물던지 모두 나그네인데
바쁘게 무엇을 하려 하는가.

7. 夜來聞雨 留坐忘使君別
翳翳夜雲合 凄凄秋氣悲
秋霖晦平陸 樹梢風更吹
蟋蟀感庭宇 道途傷別離

乖自○此始 欲語雙淚滋
行當投弊廬 未久復來玆
去住盡逆旅 遑遑何所爲

한석봉[5]의 오송정을 읊다

우봉[6] 옛 고을 동쪽에
석봉이 지은 정자가 있네.
손수 심은 소나무 다섯 그루가
절로 도끼질에도 남아 있네.
서늘한 그늘은 수석에 흩어지고
가지와 줄기는 무성하구나.
주인은 두건 젖혀 쓰고 앉아서
휘파람을 길게 부네.
때로는 예(藝)에 노닐며
붓 잡고 도서(道書)를 베끼네.
산음의 도사 없으니
거위 바꿀[7] 생각을 어찌 하랴.

---

5) 석봉은 한호(韓濩, 1543~1605)의 호이고, 자는 경홍(景洪)이다. 조선시대 대표적인 명필이라서, 한미한 집안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흡곡현령과 가평군수를 지냈다.

6) 황해도 금천 지역의 옛 지명인데, 고구려의 우잠군을 신라 때부터 우봉으로 불렀다. 고려 문종 때부터 개성부에 속했다가, 조선 초에 우봉현으로 승격했으며, 효종 때에 금천군 우봉면이 되었다. 석봉이 개성 사람이다.

7) 산음에 한 도사가 있었는데, 잘 생긴 거위를 길렀다. (왕)희지가 가서 보고 너무 좋아서, 꼭 사고 싶어했다. 그러자 도사가 "『도덕경(道德經)』을 써주면 거위 떼를 모두 주겠다"고 하였다. 희지가 기꺼이 써 주고 거위를 농에 넣어 가져왔다. - 『진서(晉書)』「왕희지전(王羲之傳)」. 그뒤부터 『황정경』이나 『도덕경』을 환아경(換鵝經), 명필 왕희지의

차가운 소리가 벼루 상에서 일어나고
비취빛이 옷자락에 배어드네.
오연히 돌아갈 것도 잊고서
날 저물도록 고기잡이 나무꾼들과 친히 지내네.
길이 맺은 세한(歲寒)의 맹서
이 마음을 처음부터 저버리지 않으리.

8. 詠韓石峯五松亭

牛峯古縣東 中有石峰居
手植五株松 自然斧斤餘
淸陰散水石 枝幹相扶疏
主人岸巾坐 發嘯長而舒
有時或遊藝 把筆寫道書
山陰無羽客 換鵝知何如
寒聲起硯几 翠色襲衣裾
傲然澹忘歸 日夕狎樵漁
永結歲寒盟 此心不負初

사또 이거용[8]에게 써 보이다

1.
걱정스레 헤어질 근심을 안고
잠도 못 자고 돌아갈 길을 생각하오.
관아에 여러 날 머물렀으니

서법을 환아수(換鵝手), 왕희지의 서첩을 환아첩(換鵝帖)이라고 하였다.

8) 거용은 이충(李沖, 1568~1619)의 자이고, 호는 칠택(七澤)이다. 1600년 별시문과에 급제하고, 1601년 무장현감으로 나갔으며, 1606년 성천부사로 부임하였다. 전라도관찰사와 형조판서를 역임하였다.

그대가 공무를 보지 못할까 두렵구려.
화려한 누각에서 맑은 연못 굽어보니
새로 핀 연잎이 지시에 가득하네.
잔치를 베풀어 손님들을 앉게 하고
술잔 들어서 자주 권하였네.
고아한 문장을 취한 끝에 지은데다
시의 흥취가 구절마다 이르렀네.
이때는 사월 초순이라
언덕과 들판에는 단비가 개어,
깊은 숲에선 꾀꼬리 울고
물가 밭에는 백로가 나네.
좋은 때가 어찌 붙어 있으랴
모이고 흩어지는 것도 운수가 있다오.
날이 밝으면 나그넷길 떠나야 하니
속마음 누구를 향해 호소하리오.

9. 錄示李使君巨容 1

悄悄抱離憂 耿耿懷歸路
官齋數日留 恐予廢公務
華閣俯淸池 新荷滿地市
開筵列衆賓 觴酌頻擧屢
高文發醉餘 詩興到章句
是時四月初 原野霽時雨
深林囀黃鸝 渚田飛白鷺
玆焉屬良時 聚散知有數
明發首前途 衷情向誰訴

2.

젊은 시절에 한번 헤어진 뒤로
조그만 소식조차 여지껏 막혔네.
중간에 난리를 만났기에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 없었네.
몸을 피해 관우(關右)로 오니
그 누구와 평생을 이야기하랴.
바위에 기대어 겨우 초가집 짓고
산을 파서 때 맞춰 기장 심었네.
내 비록 산골짝에 산다 하지만
먼 길 나그네와 어찌 다르랴.
굶주리고 목 마른 걸 늘 걱정하니
살림 군색하기가 이와 같다오,
집안에는 친척 하나 없고
피붙이래야 막내딸 하나.
해읍(海邑)[9]을 다스리는 그대 만나니
맑은 여름 시작되는 철이구려.
연못에는 연잎이 물 밖으로 나오고
단청한 처마에는 제비가 지저귀네.
슬프고 기쁜 이야기들을 웃음 섞어 하다보니
한번 술자리에 여러 잔을 들었네.
늙고 보니 절로 기쁨이 없고
가난과 시름은 가닥도 많아,
지금까지 답답하던 나의 회포를
높으신 그대 앞에 다 풀어 놓으리다.

9) 여수폐현(麗水廢縣)은 (순천도호)부의 동쪽 60리에 있으니, 본래 백제 원촌현이던 것을 신라 때에 해읍현(海邑縣)으로 고치고 내속시켰다. 고려에서 지금 이름(순천도호부)으로 고치고 충정왕 10년에 현령을 두었으며, 본조(本朝) 태조 5년에 도로 내속시켰다. -『신증동국여지승람』 제40권「순천도호부」.

떠 돌아 다니다가 돌아와 의지하니
이 몸 맡길 곳 있음을 알게 되었네.
사귄 정이 처음과 끝 한결 같아서
나를 위해 호젓한 곳에 농막 두었네.
돌아가고픈 마음에 바로 옮기니
하직 인사하기에도 너무 바쁘고 급해,
다시 와서 또 말씀드리려고
필마로 이곳을 떠나간다오.

9. 錄示李使君巨容 2

少年一爲別 微音猶間阻
中間遭亂離 死生不知處
竄身來關右 與誰平生敍
依巖僅結茅 鑿山時種黍
雖居峽谷間 何異遠行旅
所憂在飢渴 生理遽如許
室中無所親 骨肉唯季女
逢君宰海邑 時侯啓淸暑
華池荷出水 畫簷燕新語
悲歡雜談謔 一酌觴屢擧
老夫自無悰 窮愁固多緖
從前鬱鬱懷 盡向尊前紓
流離得歸依 託身知有所
交情克終始 爲我置幽墅
歸心正遷次 別語太悤遽
重來更有言 匹馬從此去

예전 만남을 그리워하며 정랑 신설[10]에게 지어주다

난리가 처음 나던 날을 생각하니
이 내 몸은 홍양성에 있었지.
성 둘레 수백호 인가에
닭과 개들도 또한 편치 못했지.
그대는 바로 젊은 시절이라
가을 하늘 정기처럼 기운 상쾌했었지.
청동에서 군호 소리 들리고
의병을 모집하자 병사들이 모였네.
병사들의 식량 마련하기 쉽지가 않아
비분강개하며 눈물이 갓끈을 적셨네.
힘은 작아도 뜻은 굳었건만
시절이 위태로워 일을 이루지 못했지.
시국이 급박하게 돌아
조야에 곡소리가 들렸지.
종묘 사직이 불타 버렸으니
뒷골목 백성들이야 물어 무엇 하랴.
도적의 숫자를 알 수가 없어
불에 탄 두 서울만 남았으니,
들과 언덕에는 피가 흐르고
길에는 시체가 종횡으로 덮였네.
만 백성들이 새처럼 흩어져
도망쳐 숨고서 구차하게 살아가네.
역병이 갑자기 나돌더니
전쟁 때보다 더 많이 죽었네.

---

10) 신설(1561~?)의 호는 하은(霞隱)인데, 신숙주의 현손이다. 임진왜란에 의병장으로 활약했으며, 승지・대사간・관찰사를 지냈다.

아! 천자께서 거룩하시어
장수들에게 동쪽을 정벌 하라셨으니,
깃발이 나부껴 넓은 하늘을 뒤덮고
대포의 불길이 우레같이 소리 쳤네.
기자 임금의 도읍에서 처음 싸워서
파죽지세로 칼 놀려 맞이하였네.
한양으로 적이 오자 먼저 피하여
거둥을 공경들이 따라 모셨네.
초창기에는 조정에 위의가 있어
왕도가 맑아지기를 바랐으니,
한 부대[11]로 하업(夏業)을 회복하고서
간책(簡策)으로 제경(諸經)을 전해 주었지.
거보의 마음 둠을[12] 잊지 않고서
날마다 성명(聖明)을 바라보았지.
조정에서 모두 협력하여
신자(臣子)의 충성을 다해야 하리.
그 누가 많은 일을 새롭게 하여
이로부터 태평시대 이룩하려나.

10. 憶昔行 贈申正郎渫

憶昔亂離初 身在洪陽城
城邊數百家 鷄犬亦不寧
夫君正年少 氣爽金天精
淸東作軍號 募義來聚兵

11) 려(旅)는 주나라 제도인데, 병사 500명의 부대이다.
12) 자하(子夏)가 거보(莒父)의 수령이 되어 정치에 대해 묻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일을 빨리 처리하려 하지 말고, 작은 이익을 돌아보지 말아라. 일을 빨리 처리하려다가 오히려 목적에 도달하지 못하고, 작은 이익을 돌아보다가 큰 일을 이루지 못하는 법이다.”

兵糧未易辦 慷慨淚沾纓
力微志猶堅 時危事不成
于時屬遑遑 朝野聞哭聲
焚燒及宗社 況問閭里氓
寇賊不知數 灰燼餘兩京
郊原血漂流 道路屍縱橫
萬姓如鳥散 竄伏各偸生
癘疫忽潛遘 死亡逾戰爭
嗟嗟天子聖 命將出東征
旌旗蔽長空 炮火雷電聲
首事箕王都 破竹遊刃迎
漢京賊先遁 大駕隨公卿
草創朝儀在 庶見王都淸
一旅復夏業 簡策傳諸經
無忘在莒心 日日望聖明
朝廷共協力 臣子盡忠誠
誰能更多事 從此致昇平

손곡시집(蓀谷詩集) 권이(卷二)

가(歌)

만랑옹의 춤을 노래하다

기이하여라. 만랑옹이여.
바닷가 산속
노을 속에 살며 달을 희롱하고
신비스런 생각은 구름 위를 나는 기러기 같구나.
흰 원숭이에게 검술을 배우고[1]
선동에게 춤을 배웠지.
봉래산에서 서왕모를 뵙고[2]
천풍을 타고 내려온 듯해라.
아름다운 자리 화려한 휘장, 그림으로 꾸민 집에
수 놓은 옷, 금장식 띠, 비단옷까지 향그러워라.
봉이 피리를 불고 난새가 생황을 불어
만랑옹 춤추려 하자 신바람이 나네.
첫 박자에 손이 처음 올라갔다가
붕새 두 날개 들어 바다 물결을 내리치듯,

---

1) 흰 원숭이에게 검술을 배우고, 드디어 풍운의 뜻을 품었다. - 유신 「우문성지명(宇文盛志銘)」.
2) 원문에는 금모(金母)인데, 금(金)은 서방(西方)이다. 『습유기(拾遺記)』에 보면 한나라 때에 "푸른 치마를 입고 천문(天門)에 들어가, 금모(서왕모)를 뵙고 목공(木公)에게 절하네"라는 동요가 있었다.

멀리 부요[3] 나뭇가지를 끌어당기려는 기세일세.
두 번째 박자에 소매를 휘두르니
갑작스런 우뢰와 번개가 푸른 하늘에 나르네.
세 번째 박자 네 번째 박자, 변전을 헤아릴 수 없구나.
용이 뛰어오르고 호랑이가 후려치며 서로 싸우네.
시위를 떠난 화살처럼 빠르고
틈새를 지나는 망아지같이 빨라라.
앞으로 기울고 뒤로 거꾸러져 버티지 못할 듯이
좌로 돌았다가 우로 움추려 서 있지 못할 듯이,
신처럼 나타났다가 귀신처럼 사라져
언제 나타나고 사라지는지 때가 없어라.
벽력처럼 휘두르는 도끼, 비바람 소리까지 성났구나.
동해 바닷가 금강산 일만 이천 봉
멧부리 뛰어오르고 바위 골짜기 가파른데,
가장 높은 비로봉 공중에 꽂혔고
벼랑이 거꾸로 걸려 구룡을 감추었네.
만 척이나 매달려 흘러 바위벽을 씻어내리고
바위 틈 삼백 구비마다 뿜어나오네.
만랑옹이 이 모습 얻어 터럭까지도 가슴속에 옮겼으니
조화의 오묘한 솜씨 홀로 빼앗았구나.
마음 내키는 대로 긴 소매 너울거리며
자리 앞으로 향해 올 때면 천만 가지 모습일세.
마치 금강산과 함께 호장함을 다투는 듯하네.
기이하구나. 만랑옹이여.
혼탈무[4]는 언제나 다할까.

---

3) 운장(雲將)이 동쪽으로 유람하던 중, 부요 나뭇가지 아래를 지나다가 우연히 홍몽을 만났다. -『장자』「재유」편. 부요는 동해에 있는 신목(神木)이다.

공손대랑[5]과 같은 시대에 태어나
칼춤으로 자웅을 겨루지 못한 게 한스러워라.
세상에 장전[6] 같은 시인 없으니
그 누가 기이한 글자를 배울 수 있으랴.
비록 공손대랑이 같은 시대에 태어났더라도
공손대랑 이라고 반드시 더 낫지는 못하리라.

11. 漫浪舞歌

奇乎哉漫浪翁 海山中
棲霞弄月 神想雲鴻
說劍白猿 學舞靑童
蓬山謁金母 却下乘天風
瓊筵寶幄敞畵堂 繡衫鈿帶羅衣香
鳳吹簫兮鸞鼓簧 翁欲舞神飄揚
一拍手始擧 鵬褰兩翼擊海浪
遠控扶搖勢 再拍衫袖旋
驚雷急電飛靑天 三拍四拍變轉不可測
龍騰虎攫相奪搏 倏若箭離弦
疾如駒過隙 前傾後倒若不支

---

4) 검은 양털로 만든 모자가 혼탈인데, 장손무기가 혼탈 모자를 만들어 쓰자 많은 사람들이 본따서 만들어 썼다. 당나라 중종 때에 혼탈무가 유행했다.

5) 당나라 개원(開元, 현종 때의 연호, 713~741) 때의 교방 기생. 특히 칼춤을 잘 추었다. 장욱이 초서를 잘 썼는데, 그의 칼춤을 보고 그 글씨가 더 나아졌다고 한다.

6) 당나라 현종 때의 시인이자 서예가. 강소성 소주 오현 사람. 본명은 장욱(張旭)이고, 자는 백고(伯高)다. 초서를 잘 써서 서성(書聖)이라는 칭호를 받았으며, 시성 두보가 읊었던 음중팔선(飮中八仙)의 한 사람이다. 머리털에 먹물을 적셔 글을 썼기에, 세상 사람들이 그를 장전(張顚)이라고 불렀다.

左盤右蹙如不持 神之出兮鬼之沒
出沒無時 霹靂揮斧
風雨聲怒 東海上金剛一萬二千多少峰
丘巒騰躑 巖壑巃嵸
最高毘盧峰揷空 層厓倒掛藏九龍
懸流萬尺洗玉辟 噴石三百曲
此翁得之毫髮盡移胸中 獨奪造化妙 長袖蹁躚性所好
向來筵前千萬狀 會與此山爭豪壯
奇乎哉漫浪翁 渾脫何時窮
恨不如公孫大娘生同時 舞劍器決雌雄
世上無張顚 誰能學奇字
縱使公孫大娘生同時 公孫大娘未必能勝此

총융사 유형[7]의 자류마[8]를 노래하다

자류마는 참으로 용종(龍種)이니
방성[9]의 정기 내려 땅에서 말이 되었네.
처음 월저굴에서 올 때엔
양 가슴 단단하고 용의 골격이었지.
머리는 갈오[10]에 가슴은 쌍오리
눈은 장경성[11]에 땀샘[12]은 구슬 모습.

7) 유형(柳珩, 1566~1615)의 자는 사온(士溫)이고, 호는 석담(石潭)이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창의사 김천일을 따라 강화에서 활동하다가, 의주행재소에 가서 선전관에 임명되었다. 통제사 이순신의 막료가 되어 수군을 재건했으며, 총융청의 종2품 총융사에 올랐다.
8) 자류마는 검은 갈기의 붉은색 말이다.
9) 28수(宿) 가운데 하나로, 창룡(蒼龍) 7수의 넷째 별이다. 네 별로 구성되었는데, 거마(車馬)를 맡아본다고 한다.
10) 갈오는 굽은 대통을 이용하여 공기 힘으로 물을 끌어올리는 기구이다.

기이하고도 굳세어 변화에 알맞으니
열두 마굿간[13]에 소문이 자자했네.
함흥 순찰사 장공자가
멀리 관서 절도사에게 보내니,
관서 절도사 이 말을 얻고 놀라며 기뻐해
신명을 이제부터 네게 맡긴다 했네.
마판 위에 먹이가 떨어진 적 없었으니
뒷날 전장에서 쓰기 위함일세.
대추포를 씹게 하고
옥산의 풍화를 먹여,
원문[14]의 마부들은 감히 탈 수 없었네.
비단 안장 내어오면 교만스레 울고
채찍 그림자만 보아도 얼마나 잘 달렸던지.
붉은 실 신 꼬리를 갑자기 드리우면
자줏빛 털에 안개 어리고 살은 기름졌지.
장공의 나라 걱정은 류공과 같아
의리로써 주었으니 큰 공을 이루시게.
변방은 근래 들며 몹시 일이 많아
아무렇게나 벗에게 준 게 아니라네.
금하에 얼음 얼면 말발굽으로 부수고
종횡으로 달려 만리장성[15]을 뒤흔들리라.

---

11) 장경성은 저녁 때쯤 서쪽 하늘에 보이는 큰 별로, 태백성이라고도 한다.
12) 상마법(相馬法)에 "미골(尾骨)은 높이 드리우고, 꼬리는 본래 크고 높아야 하며, 꼬리 아래는 털이 없어야 한다. 한구(汗溝)는 깊어야 한다"고 했는데, 한구가 땀샘이다.
13) 천자의 마굿간은 열둘이라고 한다.
14) 원문은 제왕이 지방을 순수할 때에 임시로 설치했던 문인데, 뒤에는 군영이나 감영의 문을 가리켰다. 원(轅)은 전차(戰車)의 채인데, 예전에 이것을 좌우에 세워서 군영의 문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15) 만리장성 일대의 흙빛이 자색이므로, 자새(紫塞)라고도 했다.

채찍 들고 내달리면 삭풍이 일어
향하는 곳 앞이 없이 모두 굴복하리라.
아로새긴 창 앞에 변새 햇빛 누렇고
호가(胡笳) 소리 북 소리에 변방 구름 길구나.
장군이 안장에 앉아 돌아보는 사이
눈에는 오래 전부터 음산이 없네.
음산 오랑캐들 멀리 달아나 숨으니
회중에 깊이 들어와도 있는 곳 알 수가 없네.
자류마야! 너는 신이하고도 걸출하니
네 주인 장군과 한 몸이구나.
충성스럽고도 의로운 영웅이라
주인은 말 사랑하고 말 또한 주인을 사랑해,
장군이 너와 생사를 함께 하리라.
주나라 천자의 팔준마[16] 가운데
비홍의 뛰어난 모습인들 어찌 견주랴.

12. 柳摠戎紫騮馬歌

紫騮馬眞龍種 房星降精爲地用

16) (목천자는) 궁중에서 기르던 팔준마(八駿馬)가 끄는 수레를 타고 가서, 강물이 나눠진 곳의 작은 섬 중간인 적석산 남쪽 물가에서 술을 마셨다. 천자의 훌륭한 말은 적기(赤驥)·도려(盜驪)·백의(白義)·유륜(踰輪)·산자(山子)·거황(渠黃)·화류(華騮)·녹이(綠耳)이다. 『목천자전(穆天子傳)』에 나오는 주나라 천자 목왕(穆王)은 소왕(昭王)의 아들인데, 성은 희(姬)이고, 이름은 만(滿)이다. 55년 동안 임금 자리에 있었다. 서쪽으로 견융(犬戎)을 치고, 동쪽으로는 서이(徐夷)를 정벌하여, 주나라를 굳건하게 하였다. 조보(造父)를 마부로 삼아 팔준마(八駿馬)를 타고 서쪽으로 신선을 찾아 다니다가, 요지에서 서왕모(西王母)를 만났다고 한다. 서진(西晉) 무제 때인 태강 2년(B.C.281)에 부준이라는 사람이 위나라 금왕, 또는 양왕의 무덤이라고 전해지는 옛무덤을 도굴하다가 그를 주인공으로 한 소설 『목천자전(穆天子傳)』을 발견하면서, 목왕과 서왕모의 이야기가 세상에 널리 전해졌다.

初從月氐窟 兩脅碨礧 龍翼骨首
渴烏臆雙鳧目 夾長庚汗溝珠
權奇矯矯合變化 十二閑中聲籍籍
咸興巡察張公子 遠致關西節度使
關西節度得之驚且喜 身命從今托之爾
櫪上惠養無不止 他日期爲戰場利
啖之以棗脯 喂以玉山之豐禾 轅門廝卒不敢騎
錦韉鞴出驕鳴 顧影駾躍何矜誇
紅絲窣地長尾垂 紫毛和煙膩凝脂
張公憂國柳公同 以義與人成大功
邊陲近來最多事 不是尋常朋友賜
金河氷合碧蹄碎 馳騁橫行動紫塞
揚鞭蹴踏朔風起 所向無前盡披靡
畫戟雕戈塞日黃 鳴笳疊鼓邊雲長
將軍據鞍顧眄間 目中久已無陰山
陰山胡虜遠遁去 深入回中不知處
紫騮馬爾神駿 爾主將軍一身
忠義之英俊 人亦戀馬馬亦戀主 將軍與之同生死
周家天子八駿中 飛鴻絶景何足比

새로 알게 된 즐거움을 시로 지어 신덕준 시보에게 주다

새로 알게 된 즐거움이
예전에 알았던 미움을 도리어 이기니,
흰 머리가 방금 내린 서리 같은데
길에서 만나 옛 친구같이 알게 된 것 기쁘구려.
양산 나그네 길에서 늦게야 그대를 만나

천금이 아니라도 가벼이 사귐을 허락하였네.
그대 재주는 하늘 높아 당할 수 없으니
갑 속의 추련이 빛을 토하네.
산호와 옥수 가지가 어우러져 비추고
비취가 서로 이어져 금속에 섞였네.
윤택하기는 넓은 바다에 나는 진주 같고
움직임은 가을 연꽃이 수리를 다스리는 듯하네.
선계에 높이 오르려고 어찌 힘을 들이랴
굽혀서 맑은 벼슬 얻으면 발 붙일 곳 많으리라.
조정의 기강과 나라의 힘이 나날이 쇠퇴해지니
한강과 남산에 기운이 쓸쓸하네.
중의 무리 교활하게 금장을 문드러지게 하고
여항에선 악소배들의 관작이 높아지니,
관작이야 귀할 게 없다지만
왕의 문장을 어떻게 지어야 하나.
큰 병이 고황에 들었는데[17]
아무리 생각해봐도 대약이 없네.
시절이 위태하니 어느 날에야 태평한 세상을 보랴
병화로 여러 해 멀리 떠돌아다녔네.
생애는 완연히 언 풀이 마른 듯했고
신세는 가을 잎이 지는 듯했지.
절룩이는 노새 가는 곳마다 괴로움 가득하고

17) 진후(晉侯)가 병에 걸려 진(秦)나라에 의원을 구하자, 진백(秦伯)이 의원 완(緩)을 보냈다. 완이 아직 이르기 전에 진후가 꿈을 꾸었는데, 두 동자가 나타나 말했다. "그는 훌륭한 의원이니, 우리를 다칠까 두렵다. 어디로 달아날까?" 그중 하나가 말했다. "명치 위[膏]와 명치 밑[肓]에 (숨어) 있으면 (아무리 훌륭한 의원인들) 우리를 어찌하랴?" 의원이 이르러 (진맥해 보고) 말했다. "이 병은 고칠 수가 없습니다. (병이) 명치 위에도 있고, 명치 밑에도 있어, 뜸뜰 수도 없고, 침 놓을 수도 없으며, 약도 듣지 않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춘추좌씨전』「성공(成公)상」.

깊은 골짜기 집에 오니 텅 비어 적막하네.
지금 백성 옛 성곽이 같고 다르고 간에
천년의 요동학 되어 떠나가려네.[18]

13. 新知樂 贈申施甫德濬

新知樂 反勝舊知惡
白頭如新霜 傾蓋若舊欣相識
楊山客裏晩得君 未必千金輕一諾
君才凌厲不可當 匣裏秋蓮光吐鍔
珊瑚交影玉樹枝 翡翠相連金粟錯
潤如滄海生蚌珠 動似秋蓮整鵾鶚
高攀仙桂豈容力 俯拾淸班多著脚
朝綱國勢日陵遲 漢水終南氣蕭索
緇徒梨黠爛金章 閭巷惡少高官爵
官爵不足貴 王章何以作
大病入膏肓 思之無大藥
時危何日見昇平 兵火多年遠漂泊
生涯宛似凍草枯 身世還同秋葉落
蹇驢到處足酸辛 深峽歸家空寂寞
人民城郭是非間 千載去作遼東鶴

백상루

18) 정령위(丁令威)는 한나라 요동 사람인데, 도술을 배워 학으로 변했다. 성문의 화표주(華表柱)에 날아와 앉았는데, 누군가 활로 쏘려 하자 한편의 시를 읊고 떠났다. 정령위가 새가 되었는데 집 떠난 지 천년 만에 비로소 돌아왔네. 성곽은 예 그대로건만 사람은 같지 않으니 어찌 선(仙)을 배우지 않아서 무덤만 총총한가.

백상루가 강물에 임했는데
강물은 유유히 흘러 쉬지를 않네.
밀물이 들어오면 강가가 잠기고
썰물이 빠지면 나무들이 드러나네.
밀물 들고 썰물 빠질 때 다락에 기대 서니
멀리 물가가 아득한데 강에 해가 저무네.

14. 百祥樓

百祥樓臨江水 江水悠悠來不已
潮來沒江渚 潮落露江樹
潮生潮落倚樓時 遠渚蒼蒼江日暮

관산월[19]

관산의 달.
관산에 달이 솟아 서울[20]을 비춰주네.
낭군께선 멀리 서울 길을 떠났으니
어느 곳 다락에 올라 밝은 달을 보시는지.
낭군께선 마음이 있고 내게는 정이 있네.
나 홀로 낭군 따라 천리 길 떠나려니
그리운 생각에 눈물만 흐르네.

15. 關山月

關山月 月出關山照秦京
郎君遠向秦京道 何處登樓見月明

19) 악곡의 제목인데, 이별을 슬퍼하는 내용이다.
20) 진경(秦京)은 진나라 도읍인데, 여기서 진(秦)은 중국의 통칭이다.

郎有心妾有情 獨自隨君千里行 長相思淚縱橫

삼오칠언

우물가엔 오동나무
술병은 비었는데,
먼 하늘엔 밝은 달 나타나고
높은 다락엔 밤 바람이 일어나네.
낭군께서 혼자 장안으로 가신 뒤엔
방초가 해마다 피어도 내 한은 끝없어라.

16. 三五七言

金井桐 玉壺空
遠天出明月 高樓生夜風
郎君獨向長安道 芳草年年恨不窮

손곡시집(蓀谷詩集) 권삼(卷三)

오언율시(五言律詩)

구산역[1]

홀로 이별의 근심 안고
옛 역루에 다시 오르니,
칼주머니에는 외로운 분(憤)이 남아 있고
단록(丹籙)에는 조각 구름이 머무네.
해문에는 저녁이라 새 건너가고
변방 나무엔 가을이라 매미가 우네.
그대 그리워도 볼 수 없으니
필마 타고 서쪽 고을로 떠나가려네.

17. 丘山驛

獨自抱離憂 還登古驛樓
劍囊孤憤在 丹籙片雲留
鳥渡海門夕 蟬鳴關樹秋
懷君不可見 匹馬向西州

1) (강릉도호)부 서쪽 20리에 있다. 정자가 있는데, 사람을 서쪽으로 전송하는 곳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 제44권「강릉대도호부」.

경호에서 한림 최대중의 시에 차운하다

가을 풀 우거져 경포대는 예스럽고
내 낀 호수에 물 기운이 푸르구나.
이 몸은 먼 곳 나그네 되었는데
내일이면 바로 중양절일세.
저녁 햇살이 모래 포구에 차갑고
가을바람이 바다 마을에 이는데,
손 잡고 놀던 그 시절 그리워
두어 가지 국화를 꺾어 머리에 꽂았네.

18. 鏡湖 次崔內翰大中韻
秋草仙臺古 煙湖水氣蒼
此身爲遠客 明日是重陽
夕照寒沙浦 西風起海鄕
相携惜佳節 折插數枝黃

감상인[2]에게

예전 중대에서 머물던 밤 생각하니
상원사 종소리를 함께 들었지.
서로 떨어졌던 스무 해 동안
구름 낀 나무는 몇천 겹이었던가.
가을 시냇가에서 바리를 씻고
등넝쿨 휘어잡고 저녁 봉우리에 올랐었지.

2) 상인(上人)은 지덕(智德)을 갖춘 불제자를 가리키는 말인데, 스님을 높여 부르는 말로 쓰였다.

이제 만나 나이를 물어보고는
옛 얼굴과 다르다 서로 놀라네.

19. 贈鑑上人
憶昔中臺夜 同聞上院鐘
暌離二十載 雲樹幾千重
洗鉢臨秋澗 攀藤度夕峯
相逢問年歲 各怪舊時容

황폐한 절을 지나며

이 절은 어느 옛날에 황폐했는지
문 앞 소나무 오솔길이 깊숙하구나.
습기에 비석 글자는 문드러지고
비가 새어 불상의 금박도 벗겨졌네.
옛 우물은 낙엽으로 메꾸어 졌고
그늘진 뜨락엔 저녁 새만 내려오네.
그렇다고 슬퍼할 건 못 되지.
인간세상 몇 번이나 스러졌던가.

20. 經廢寺
此寺何年廢 門前松逕深
嵐蒸碑毁字 雨漏佛渝金
古井塡秋葉 陰庭下夕禽
不須興慨感 人世氣消沈

윤상인의 시축에 차운하다

여관에서 서로 만나니
맑은 서리에 계수 가지 시드네.
조각배로 광릉에서 헤어지며
낙양에서 만나자고 몇 해 전에 기약했었지.
가을 시냇가에서 구리병에 물 긷고
새벽에 재 올리려고 석발을 지녔지.
그대와 함께 바닷가 절을 찾아
종소리 듣던 시절이 생각나는구려.

21. 次允上人軸
逆旅相逢處 淸霜凋桂枝
扁舟廣陵別 數歲洛陽期
秋澗銅甁汲 晨齋石鉢持
同尋海上寺 却憶聽鍾時

서울로 가는 최시중을 송별하며

길 떠나는 어려움이 이와 같은데
그대 다시 먼 길을 떠나려는가.
큰 재주로 그 옛날 꿈을 지녔건만
낮은 벼슬로 한 평생 저버렸네.
바닷가 언덕에는 한 떨기 매화 피고
산속 다리에 낯 선 새가 우는데,
헤어지는 심정 너무 쓸쓸해
그림자 어루만지며 홀로 마음 상하네.

22. 送崔時中之京

行路難如此 夫君更遠征
大才懷夙昔 薄宦負平生
海岸叢梅發 山橋怪鳥鳴
離懷正蕭索 撫景獨傷情

동쪽 누각[3]의 매화를 찾아서

동쪽 누각의 매화를 찾아가는 길
싸늘한 향기 이는 곳 외로워라.
두어 가지 성긴 그림자 쓸쓸하고
늙은 나무는 반쯤 말라 비틀어졌네.
아름다운 이에게 주고 싶지만
이 맑은 밤에 사라져 버릴 것 같아,
깊이 읊조리며 우두커니 서 있노라니
조각달은 성 모퉁이로 숨네.

23. 東閣尋梅

東閣尋梅逕 寒香生處孤
數枝踈影苦 老樹半身枯
欲爲美人贈 其如淸夜徂
沈吟佇立久 片月隱城隅

3) 동각(東閣)은 원래 땅이름인데, 중국 사천성 간양현 동쪽에 있다. 두보가 지은 시 가운데 “동각 궁중의 매화가 시흥을 일으키네[東閣宮梅動詩興]”라는 구절이 있다. 이후 ‘동각심매(東閣尋梅)’는 시와 그림의 주제로 많이 쓰였다.

효리당에 쓰다

술 있으면 늘 손님을 맞아들여
마루 열고 바쁘게 자리를 쓸었지.
옛 뜨락에는 학의 발자국 남아 있고
그늘진 섬돌에는 둥근 이끼가 덮였네.
머리 희어져 인간 세상 슬프건만
단사를 빚을래도 동천이 막혔으니,
어찌해야 바다로 들어가서
아이 데리고 신령한 책을 배워 보려나.

24. 題孝里堂
有酒常邀客 開軒急掃筵
古庭留鶴跡 陰砌上苔錢
白髮悲人世 丹砂隔洞天
何當入海去 携子學靈篇

성행 상인께 지어 주다

먼 곳 나그네가 향그런 꽃을 좋아하여
잠시 운수의 사립을 지나네.
내 낀 숲 속에서 풍경 소리 한번 나고
모래 포구에선 두어 스님이 돌아오네.
옛 절에 매화는 지고
봄 깊어져 제비들 날아다니는데,
고향은 정녕 아득히 멀어
아직도 겨울 옷을 입고 있다오.

25. 贈性行上人

遠客惜芳菲 暫過雲水扉
煙林一磬出 沙浦數僧歸
古寺梅花落 深春燕子飛
鄉關正迢遞 猶自着寒衣

단천에서 중양절을 맞으며

삭풍 불어 모랫가에 느릅나무 다 떨어지고
강가 관문에는 길이 비탈졌네.
나그네 길에 중양절 맞아
말 위에서 노란 국화를 꺾어보네.
낯선 곳 떠도느라 일정한 거처 없어
좋은 날 맞으면 고향집 더욱 생각나네.
외로운 변성을 아득히 바라보니
구슬픈 호드기 소리에 성의 나무들 감추어지네.

26. 端川九日

朔吹沙楡落 河關驛路斜
客中逢九日 上馬折黃花
飄梗無常處 良辰倍憶家
遙遙望孤戍 城樹憶悲茄

건등산[4]

4) 건등산(260m)은 원주시 문막읍 건등리에 있다. 구라우(마을)과 너그내(마을) 북쪽에 있는데, 고려 태조 왕건이 올랐다고 해서 건등산(建登山)

고려 태조가 군사를 이끌던 날
만 마리 말의 발굽이 올랐었지.
여러 영웅이 왕권을 다투었는데
참 주인이 마침내 신라를 차지했네.
지난 일은 연기와 노을 속에 옛날 되었고
남긴 자취는 풀과 나무 속에 아득하네.
삼한이 일통으로 돌아갔으니
공이 이 산과 더불어 가즈런하구나.

27. 建登山

麗祖提兵日 登臨萬馬蹄
群雄爭逐鹿 眞主竟操鷄
往事煙霞古 遺蹤草樹迷
三韓歸一統 功與此山齊

영월 가는 길

시름 품고서 나그네 멀리 다니다보니
천 봉우리에 길이 험난하구나.
봄바람에 들려오는 두견 울음 괴롭고
서녘 해에 노릉[5]은 차갑구나.

이라고 한다. 후삼국시대 건등산에서는 왕건이 성을 쌓고 진을 쳤으며, 견훤은 궁촌리에 견훤산성을 쌓고 진을 쳤다고 한다.

5) 단종(端宗, 1441~1457)은 1455년에 숙부 수양대군에게 왕위를 넘겨주고 상왕이 되었다가, 사육신의 복위계획이 실패하자 1457년 6월에 노산군(魯山君)으로 강등된 뒤에 영월로 유배되었다. 9월에 숙부 금성대군의 복위계획이 발각되자 서인으로 강등되었다가, 10월에 죽었다. 영월호장 엄흥도가 관을 마련해 몰래 장사지냈는데, 선조시대에 김성일·정철 등의 장계에 따라 능 형태를 갖추고 비석을 세웠으며, 흔히 노릉(魯陵)

고을은 산성과 이어지고
나루 정자는 물가를 눌러 섰는데,
타향에도 또한 봄빛이라
어느 곳에서 만단 시름을 다스려 볼거나.

28. 寧越道中
懷緖客行遠 千峰道路難
東風蜀魄苦 西日魯陵寒
郡邑連山郭 津亭壓水闌
他鄕亦春色 何處整憂端

정선군 판상의 시에 차운하다

고목에는 달이 아직도 걸렸는데
차가운 방에는 등불 오히려 푸르구나.
나그네 시름은 고요한 밤까지 이어지고
돌아갈 꿈 꾸려니 먼 길이 겁나네.
골짜기를 건너자 물소리 멀어지고
대발을 쳐도 꽃기운 향기로운데,
알지 못한 사이에 산 비가 지나갔는지
베개 위에서 술 방금 깼네.

29. 次旌善郡板上韻
古木月猶在 寒房燈尙靑

이라고 했다. 숙종 때인 1698년에야 추복하여 묘호를 단종이라 하고, 능호를 장릉(莊陵)이라고 했다. 영월군 영월면 영흥4리에 있는데, 사적 제196호이다.

客愁連靜夜 歸夢怯長程
度壑水聲遠 隔簾花氣馨
不知山雨過 枕上酒初醒

밤에 대탄에 배를 대고

밤에 닻줄 내려 여울 아래 배를 대니
물가 마을에 서리 기운 엉겼구나.
마른 등걸을 모래밭에서 줍고
고기잡이 등을 빌려 불을 지폈네.
병든 나그네 외로운 배에 꿈을 실었는데
차가운 강은 시월이라 얼음 얼었네.
집 떠난 지 이제 며칠이던가
누런 모자[6] 쓴 이를 친구 삼았네.

30. 夜泊大灘
夜纜泊灘下 水村霜氣凝
枯查拾沙渚 爨火乞漁燈
病客孤舟夢 寒江十月氷
辭家今幾日 黃帽是親朋

노상국[7]의 시에 차운하여 벽사[8] 스님의 시축에 쓰다

---

6) 농부의 옷차림을 가리킨다.
7) 영의정을 지낸 소재(蘇齋) 노수신(盧守愼, 1515~1590)을 가리킨다.
8) 벽돌탑이 있었던 여주 신륵사를 가리킨다.

나그네 길이 산을 따라 돌다가
스님의 방에서 물소리 베고 누웠네.
마을 연기는 둥그런 들판에 곧게 오르고
강 물결은 허공에 일고 있구나.
남 대접하길 심간(心肝)으로 하더니
세월이 흘러 머리털 성겨졌네.
여강[9]은 한수와 이어졌으니
쌍잉어[10]에 이 글을 전할 수 있겠네.

31. 次盧相國韻 題甓寺僧軸
客路隨山轉 僧房枕水居
村煙團野直 江沫汰沙虛
接物心肝在 流年鬢髮疎
驪江連漢水 雙鯉可轉書

서울로 가는 이계헌[11]을 송별하며

헤어지는 마음을 자제할 수 없으니
헤어지는 정이란 참으로 슬프구나.

---

9) 한강(漢江)을 지역에 따라 달리 부르는데, 여주 일대의 남한강을 여강이라고 했다. 여주의 옛 이름이기도 하다.

10) 먼 곳에서 온 나그네가 내게 잉어 한 쌍을 주었네. 아이를 불러 잉어를 삶으라 했더니 그 속에서 비단에 쓴 편지가 나왔네. "客從遠方來, 遺我雙鯉魚. 呼童烹鯉魚, 中有尺素書." - 고악부(古樂府)에서 옛부터 잉어는 편지를 뜻하는 말로 쓰였으며, 배를 가른다는 말은 편지봉투를 뜯는다는 뜻이다.

11) 계헌은 율곡 이이의 아우인 이우(李瑀, 1542~1609)의 자이다. 시(詩)·서(書)·화(畵)·금(琴)에 모두 뛰어나 사절(四絶)이라고 불렸는데, 호는 옥산(玉山)이다.

바닷가 귀퉁이에 나그네 된 지 오래다 보니
관외로 보낸 사람도 많다네.
들판 언덕 나무에선 꽃이 흩날리고
봄 맞은 다리에는 물결이 이는데,
두견새 함께 울어서
뿌린 눈물이 나뭇가지를 적시네.

32. 別李季獻之京

別意不自制 別情良可嗟
海隅爲客久 關外送人多
野岸飛花樹 春橋水上波
猶同子規鳥 洒淚濕林柯

사암 상공께 올리다

회음 시장에선 칼을 찼었고
동락 언덕에선 슬픈 노래 불렀지요.
성 밑에는 빨래하던 할미 없으나[12]
바지 아래엔 왕손이 있었습니다.

12) 한신(韓信)이 미천했던 시절에 남창(南昌)의 정장(亭長)에게 밥을 얻어 먹었다. 정장의 부인이 싫어하자 성 밑에서 낚시질을 했는데, 몹시 배가 고팠다. 빨래하던 부인이 이를 가엾게 여겨 밥을 주었다. 한신이 고맙게 여겨, "내가 반드시 이 은혜를 소중하게 갚겠다"고 하였다. 그러자 그 부인이 성내며 "내가 왕손(王孫)을 가엾게 여겨 밥을 준 것이지, 어찌 보답을 바라겠소?"하였다. 한신은 그 뒤에 패공(沛公) 유방(劉邦)에게 가서 대장군이 되어 많은 전공을 세웠다. 초나라를 멸망시키는 큰 역할을 했으므로, 초왕(楚王)에 봉해졌다. 한신은 고향인 회음에 가서 빨래하던 부인에겐 천금을 주어 보답하고, 남창 정장에게는 꾸짖은 다음 백금을 주었다.

외기러기 아득히 하늘 밖을 날고
가을 벌레는 대나무 밑둥에서 슬피 우는데,
가난 속에 살아갈 길 아득키만 하니
어느 곳에서 도원을 찾으랍니까?

33. 上思菴相公
帶劍淮陰市 悲歌東洛原
城邊無漂母 袴下有王孫
斷雁遙空外 秋虫苦竹根
艱難昧生計 何處覓桃源

숙주 가는 길에서

말에 채찍질하며 차가운 강물 건너
걷고 또 걸어 높은 언덕에 올랐네.
가을 풍광이 벼 심은 들판에 가득하고
건너편 산마을엔 다듬이 소리.
바람 탄 까치가 숲의 잎을 떨구고
이슬에 젖은 반디는 풀 속에서도 밝은데,
오늘 밤에도 역로에 달 비치니
어느 곳에서 홀로 혼을 녹이랴.

34. 肅州道中
策馬渡寒水 行行登古源
秋光遍野稼 砧響隔山村
風鵲墜村葉 露螢明草根
今宵驛路月 何處獨銷魂

패강을 건너며 재송정[13]에 쓰다

1.
뒤돌아보니 외로운 성은 먼데
뱃전 두드려 노래하며 나그네 배는 건너가네.
역정에는 아침 해 늦게 뜨고
강가 나무엔 가을 매미 일찍 우네.
오래 머물면 늘 돌아갈 생각뿐인데
떠날 마당에는 또 이별을 시름하네.
내 몸에 지닌 물건 남은 게 없어
휘파람 길게 불며 허리의 칼을 돌아보네.

35. 渡浿江 題裁松亭
背指孤城遠 鳴榔渡客舟
驛亭朝日晩 江樹早蟬秋
久滯常歸計 臨行又別愁
隨身無長物 長嘯看吳鉤

2.
객사에는 아침 내내 비가 내리고
호숫가 밭에는 밀이 익어가네.
까닭 없이 나그네 된 처지라
저절로 먼 데 사람 시름이 이네.
뜨락에 짙은 그늘이 지고

13) 재송원은 (평양도호)부 남쪽 11리에 있다. 원(院) 곁에 소나무 몇십 그루가 있는데, 손님을 전송하는 곳이다. 재송정이라고도 한다. -『신증동국여지승람』 권51「평양도호부」. 패강은 대동강의 옛이름이다. 평양에서 대동강을 건너 남쪽으로 가는 길에 재송정이 있으니, 이곳이 바로 역정(驛亭)이다.

시장 바닥에 떠드는 소리 듣다보니,
어느 날에나 고향으로 돌아갈런지
내 집은 바다 서쪽 마을에 있다오.

又
旅舍終朝雨 湖田小麥秋
無端爲客處 自起遠人愁
庭院重陰合 闤廛市語收
何時返鄉曲 家在海西州

공주에서 송정옥을 만나

왜놈들의 난리가 몇 해나 되었건만
싸움이 아직도 한양에 가득하다니,
가까운 사람들을 모두 잃어서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물을 수가 없구려.
해질녘에 임 가신 곳 바라보다가
봄바람에 고향으로 마음 보낸다오.
난리통에 그대 술을 받아 마시니
눈물이 흘러 옷깃을 적실 것만 같구려.

36. 公山 逢宋廷玉
寇盜經年歲 兵戈滿漢陽
所親皆喪亂 不敢問存亡
西日瞻行殿 東風入故鄉
時危對君酌 涕淚欲沾裳

체찰사[14] 상공께 올리다

종묘 사직이 쇠망한 뒤라
신하와 백성들이 통곡하는 시절,
관군은 붉은 해에 맹세하고
유혈은 황지에 가득합니다.
청사검을 아직 써보지 않았으니
그 누가 백작기[15]를 펼치겠습니까.
이제야 상공께서 나오셨으니
시종의 안위가 달렸습니다.

37. 上體察相公
宗社淪亡後 臣民痛哭時
官軍誓赤日 流血滿黃池
未試靑蛇劍 誰張白鵲旗
今逢亞相出 終始繫安危

진남루

들으니 강화도 수자리에선
외로운 군대가 바다 귀퉁이에서 위태롭다네.
한강 주변[16] 병졸들은 어쩔 줄 모르고

14) 지방에 임시로 파견되는 관원인데, 비상시에 군대를 지휘하거나 기타 군사업무를 맡았다.
15) 이백의 시에 "오랑캐 목을 베어 백작기에 걸었다[梟首常懸白鵲旗]"라는 구절이 있다.
16) 원문의 하상(河上)은 '황하 주변'이라는 뜻이다. 이 시에서는 한강 주변, 즉 강화도 건너편의 한강 하류와 서울 일대를 가리킨다.

군막 속의 계책도 엎어지고 자빠지네.
성곽은 피비린내 먼지로 어둡고
시내와 언덕에는 살기만 떠돌아,
인생에 이 같은 일이 있으니
후회하며 진남루에 오르네.

38. 鎭南樓

聞道江華戍 孤軍困海陬
翱翔河上卒 顚倒幕中籌
城闕腥塵暗 川原殺氣浮
人生有如此 悔上鎭南樓

김새[17] 집의 모란을 읊다

그대의 집 낡은 담장 아래
한 떨기 붉은 모란.
아침에는 솟아오르는 햇빛을 받고
밤에는 떨어진 이슬이 방울져 맺혔지.
꽃다운 향기 부질없이 절로 지키지만
뛰어난 아름다움을 그 누가 다시 보랴.
다만 밑둥을 남아있게 한다면
어둠에 빠져도 세한(歲寒)에 보전되리.

39. 詠金璽家牧丹

君家古墻下 一叢紅牧丹
朝受旭日照 夜承零露團

17) 김새(金璽, 1610~?)는 광주 김씨인데, 1639년 진사시에 합격하였다.

芳香空自守 絶艷更誰看
但使本根在 沈冥保歲寒

저녁이 되기도 전에

호랑이 표범 막느라 걱정 많아서
저녁이 되기도 전에 사립을 닫는다네.
창 열고 밤 사이 내린 눈 보고
들창으로 아침 햇살을 받아들이네.
어린 딸은 찬 샘물을 길어오고
가난한 아내는 콩죽을 맛보네.
떠돌아다닌 지 오랬다고 탄식 말게나
머무는 곳이 바로 고향인 것을.

40. 不夕

不夕柴荊掩 多虞虎豹防
拓窓看夜雪 自牖納朝陽
稚女寒泉汲 貧妻豆粥嘗
莫嗟流落久 寓地卽爲鄕

양산 가는 길에

필마로 양산 길을 나서니
외로운 성 안에 고을이 열려 있네.
나그네로 남도 길 끝까지 왔는데
어디쯤이 바로 동래일까.

시장 가득 푸른 내 일고
밀물 탄 흰 새가 날아오는데,
아득히 나그네로 떠돌다보니
일 없이 귀밑털만 시들었구나.

41. 梁山道中
匹馬梁山路 孤城郡邑開
行人盡南路 何處是東萊
滿市蒼煙起 乘潮白鳥來
悠悠作羈旅 無事鬢毛摧

청명일의 감회

그 옛날 장안에 있었던 날
봄놀이 즐기던 소년시절 생각나네.
금릉 시장 바닥에서 탄환을 차고
위수 다리 가에서 말을 달렸지.
오십년 세월이 잠시 사이에 지나가며
슬픔과 기쁨이 차례로 이어졌지.
또 다시 삼짓날을 만나니
술잔 잡고서 멍해졌네.

42. 淸明日感懷
伊昔長安日 春遊憶少年
挾彈金市下 走馬渭橋邊
五十須臾過 悲歡次第連
還逢上巳節 把酒意茫然

산속 스님이 보내준 솔잎을 감사하다

채색 옷은 신선의 신비한 조짐이고
신령한 정신은 도방의 징험일세.
홀로 첩첩 푸른 산봉우리 찾아서
늙은 가지 부여잡으며 왔네.
운모 방아 소리도 마침 고요한데
하낭(霞囊)을 주시니 곳마다 향기롭네.
오늘 아침 시험 삼아 한 모금 마셔보니
오장에서 금빛이 피어나는구려.

43. 謝山僧惠松葉
采服徵仙秘 靈神驗道方
獨尋層嶂碧 攀折老枝蒼
雲碓春時靜 霞囊贈處香
今朝試一吸 五內發金光

양양 가는 길에서

양양 가는 길에 해가 저물고
한수 물가에는 안개 잠기네.
말 타고 홀로 가는 나그네
농주인(弄珠人)[18] 하나 보이지 않네.
저 아래 물가에는 푸른 풀 많아
가운데 모래톱에서 흰 마름을 따는데,
큰 방죽 위를 서성거리며

18) '구슬을 희롱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양반이나 벼슬아치를 가리킨다.

옛일을 돌이켜보니 마음 상하네.

44. 襄陽道中

日暮襄陽道 煙沈漢水濱
獨行騎馬客 不見弄珠人
下渚多靑草 中洲采白蘋
俳佪大堤上 覽古一傷神

밤에 앉아서 허균에게 지어주다

나그네 시름은 가을을 맞아 더하고
고향 그리는 마음은 밤 되면서 더 깊어지네.
어둠 속의 귀뚜라미는 벽 가까이서 울고
차가운 이슬방울은 성긴 숲속으로 떨어지네.
서울길에 나그네 된 지도 벌써 오래인데
산과 바다에 노닐자던 마음만은 아직도 잊을 수 없네.
향을 사르며 앉아 잠도 이루지 못하노라니
궁궐의 물시계 소리 따라 밤만 더욱 깊어간다네.

45. 夜坐 贈許端甫

旅病逢秋甚 鄕愁到夜深
暗蛩啼近壁 凉露墮疎林
久作洛陽客 未忘江海心
焚香坐不寐 宮漏更沈沈

밤중에 앉아 생각하다

평안도로 떠돌아다닌 지 오래 되었건만
올봄에도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네.
나그네 잠자리엔 걱정 근심만 밀려와서
꿈 속에도 고향산에 가보지를 못했네.
세상이 전쟁 속에 어지러워
나의 생애를 길바닥에서 보내고 있노라니,
한 줄기 달빛이 창문으로 들어와
밤마다 지친 내 얼굴을 비춰줄 뿐이네.

46. 夜坐有懷

流落關西久 今春且未還
有愁來客枕 無夢到鄕山
時事干戈裏 生涯道路間
殷勤一窓月 夜夜照衰顔

황회지[19]에게 부치다

하루 저녁에 가을바람이 일어
숲마다 가지에서 잎을 떨치네.
이때 한 많은 나그네께선
어떻게 세월을 보내시는지.
자갈 많은 곳이라 편지도 적으니
꿈속에서도 하늘가를 자주 바라본다오.
산과 물이 막히고 끊어졌으니

19) 황혁(黃赫, 1551~1612)의 자가 회지(晦之)이고, 호는 독석(獨石)이다. 시인 황정욱의 아들로, 문과에 장원급제하였다. 이이첨을 풍자하는 시를 지었다가, 진릉군을 추대한다는 무고를 받고 심문당하다 옥사하였다.

요즘 소식은 어떠하신지.

47. 寄黃晦之

一夕秋風起 千林葉振柯
此時遷客恨 何以度年莘
磧裏音書少 天邊夢寐多
山河正阻絶 消息近如何

삼등[20] 초당

강가 고을에 태수가 되었으니
동헌이 겨우 두어 칸일세.
술동이 열면 도연명의 술이고
창문은 사공의 산을 마주했네.
송사하는 문서가 언제나 없어
관청 뜨락이 하루 종일 한가하니,
그대에게서 이은(吏隱)의 정취를 보았기에
하룻밤 자고도 돌아갈 줄 모르네.

48. 三登草堂

太守緣江縣 簷楹但數間
尊開陶令酒 窓對謝公山
訟牒常時絶 官庭盡日閑
看君吏隱趣 一宿不知還

20) 평안도 강동지역의 옛 이름이다. 1908년에 강동군 삼등면이 되었다. 황학루라는 누각이 유명하다.

이유위[21]의 벽에 쓰다

나그네 오래다보니 병이 떠나지 않는데
봄 깊어져 꽃이 활짝 피었네.
집 떠난 지 이제 며칠 되었나
가는 곳마다 이별의 술잔 들었네.
마을 굽이에 소낭(簫娘)의 집이 있어
탁문군(卓文君) 같은 재주로 거문고를 뜯네.
돌아갈 길은 밝은 달이 비출 테니
아무쪼록 술잔을 재촉하지 마오.

49. 書李有爲壁
客久病不去 春深花正開
辭家今幾日 到處接離盃
曲巷蕭娘宅 瑤琴卓氏才
歸程有明月 行爵不須催

정산 동헌

들판의 물을 담장 구멍으로 들게 하니
주인의 깊은 뜻이 남아 있네.
저절로 물이 흘러 가득 차 오면
다시금 고요 속의 시끄러움을 사랑하네.
고즈넉한 옛 마루 아래
맑은 소리가 가을 대나무 뿌리에 내리니,

21) 1603년 생원·진사시에 합격한 이정시(李挺時, 1556~?)의 자가 유위(有爲)이다.

맑은 밤 물소리 듣느라 잠 못 이루어
어두운 번뇌 씻어냄을 다시 깨닫네.[22]

50. 定山東軒

野水入墻竇 主人深意存
自能流處滿 還愛靜中喧
寂寂古軒下 冷冷秋竹根
淸宵聽不寐 更覺滌昏煩

수재 심대형과 헤어지며

땅을 피해 서해까지 왔다가
가족을 데리고 또다시 북으로 가네.
험하고 어렵기는 옛날 같은데
떠돌아 다니다가 올해에 이르렀네.
나그네 되어 끼니 잇지 못함을 슬퍼하고
아침마다 안위를 알 수 없네.
사람들 향해 많이 몸 굽히곤

22) 고을의 관아가 좁으므로 공이 정원을 넓히고, 담 밑을 뚫어 시냇물을 끌어들였다. 조그만 못을 만들고, 그 위에다 정자를 세워 만향정(晩香亭)이라는 편액을 걸었다. 그리고는 그 사이에서 시를 읊으며 노닐었다. 정사는 청렴하고도 간결하여, 아전이나 백성들이 다 편하게 여겼다. 관찰사 이해수(李海壽)가 현에 왔다가 시를 지었다. 태수의 정자가 물처럼 평온하니 후세까지도 맑은 이름 저버리지 않으리라. "太守政平還如水 他年應不負淸名" - 송남수『송담집(松潭集)』「연보」. 송남수(宋枏壽, 1537~1627)가 1587년에 충청도 정산현감으로 부임하여, 관아 담장을 뚫고 들판의 물을 끌어들였다. 오봉(五峰) 이호민(李好閔)이 만향정 8경을 시로 지었다. 송남수가 조성한 연못은 청양군 정산면사무소 앞에 그대로 있으며, 최근에 그 자리에 만향정을 복원하였다.

말 타고도 다시 머뭇거리네.
가는 길에 꽃잎은 나무에 흩날리고
헤어지는 정자의 버들은 안개에 흔들려,
그대 보내는 시름 끊어질 듯 아프니
그대도 나같이 한이 끊이지 않네.
우연히 난리통에 쫓겨 다니며
산수 주변에 몸을 내맡겼건만,
골짜기 샘은 멀어서 물 긷기 힘들었고
산길도 따라 올라오기 힘들었네.
다북쑥 엮은 집은 손질하지 못했고
차조 심은 밭도 묵어만 가네.
때마침 강 너머 일 맡았다니
소식이나 전해주면 다행이겠소.

51. 別沈秀才大亨

避地來西海 携家又北遷
艱難如舊日 漂泊到今年
旅食嗟無繼 安危旦未然
向人多踼蹏 乘馬更迍邅
去路花飛樹 離亭柳拂煙
送君愁絶劇 同我恨纏綿
偶逐干戈際 投栖水石邊
峽泉勞遠汲 山逕苦循緣
未補編蓬屋 全荒種秫田
時因過江使 消息幸相傳

유씨 집의 외로운 기러기를 읊다

자새(紫塞)[23]에 북방 서리 무섭게 쳐도
남천(南天)에는 따뜻한 기운이 통했지.
물과 구름 밖을 외롭게 날다가
잘못하여 그만 그물에 걸렸네.
남의 뜻에 따라 마시고 쪼며
갈 길 막혔음을 한탄하며 사네.
포구 모래밭 달빛 아래 잠들고
내 낀 물가에서 갈숲에 놀았겠지.
떼 지어 날아 먼 바다를 건너고
줄 이어 먼 바람에 울었겠지.
사냥군 화살을 길게 시름하다
겨우 막요의 활만 피했구나.
성품도 다스리면 이와 같으니
태어날 때부터 본디 공평한 것 아니라네.
무리를 생각하는 게 너 홀로 인색했으니
근심이 없다 한들 네 어찌 풍족하랴.
미물에 있어서도 비록 모습 다르지만
고향 그리워하는 마음은 나와 같겠지.
어느 날에야 여섯 나래를 길러
구름 하늘 향하여 잘 날아가려나.

52. 詠柳家孤雁

紫塞胡霜重 南天暖氣通
孤飛水雲外 誤墮罻羅中
飮啄隨人意 棲遲恨路窮
浦沙眠夜月 煙渚戲蘆叢

23) 만리장성을 가리킨다. 주변의 흙이 자줏빛이기 때문이다. 기러기들이 여기서 여름을 난다.

接翅翻遙海 聯行叫遠風
長愁弋者矢 徒避莫徭弓
繕性能如此 生身本不公
念群渠獨嗇 無患爾何豐
在物雖形異 懷鄉與我同
何當養六翮 好去向雲空

임득신 자립과 헤어지며

모였다 헤어짐은 고르지 않아 괴롭고
뜬 구름도 정해진 까닭이 없네.
하늘가에서 함께 흘러 떠돌다보니
세상 일은 간난 속에 부쳐 있네.
나그네 되어 어둠에 빠져 고달프다가
그대 만나 웃으며 즐겁게 이야기했지.
잎새 피어 녹음이 울창하다 놀랐는데
꽃이 지니 남은 꽃 안타깝구려.
못가 집에 이르면 술잔 잡았고
들판 언덕에 오르면 노래 들었지.
같이 놀던 이들 쉬 흩어져 사라지니
떠난다고 말할 적에 두 사람 마음 아프네.
멀찍한 개펄엔 밀물 가득한데
긴 수염 날리며 필마에 채찍하네.
바다와 산을 둘러봐도 보이지 않고
강과 골짜기엔 구름만 덮여,
나무 가린 곳엔 상문이 닫혔고
숲을 뚫고 돌길이 둘렸네.

서로 그리워도 볼 수 없으니
다만 바라기는 밥이나 잘 드시오.

53. 別林子立得信

聚散苦不準 浮雲無定端
天涯共流落 世事屬艱難
作客沈冥困 逢君笑語歡
葉成驚翠密 花謝惜紅殘
把酒臨池館 聽歌陟野壇
同遊易消散 告去兩辛酸
極浦乘潮滿 長鬚策馬單
海山回望失 江峽上雲干
翳樹桑門掩 穿林磴路盤
相思不可見 只願且加飧

북대에 올라서 바라보다

북극성이 여러 봉우리를 비추고
비낀 오솔길에는 구름이 걸려 있네.
바다와 냇물 멀리 바라보이고
소나무 전나무 가지 어지럽게 얽혔네.
시냇물은 푸른 등나무 잎새로 덮여 있고
산에는 흰 칡꽃이 많아,
그윽하게 떨어진 곳을 헤아려 보니
도인의 집이 있을 것 같네.

54. 北臺登眺

北極臨群峭 懸雲一逕斜
海川迷遠望 松栝亂交柯
澗覆靑藤葉 山多白葛花
只擬幽絶處 唯有羽人家

차운하여 민진사에게 부치다

강가 나무에다 집을 얽어 세워
발을 걷으면 포구 모래밭이 보이네.
먼 산엔 맑은 구름이 일어나고
가까운 강물은 저녁 되며 차가워라.
하늘이 넓어 나는 새를 보고
사람은 한가로워 지는 꽃잎을 세네.
주막집 푸른 깃발이 고기잡이 집에 내걸렸으니
막걸리도 외상으로 마실 수 있겠지.

55. 次韻寄閔進士
結構連江樹 開簾對浦沙
遠山晴靄起 近水暮寒多
天闊看飛鳥 人閑數落花
靑市出漁戶 村酒可能賒

권진사의 시에 차운하다

관외에서 오래 떠돌아다니며
여러 해를 갈림길에서 헤매었지.

나그네 괴로움을 절로 알고서
삶이 어렵다는 걸 비로소 느꼈네.
이 이별은 집 없는 이별이니
천산에 다시 만산이 막혔구려.
그대를 보내고 돌아간 뒤에
나도 다시 사립문을 닫아 두리라.

56. 次權進士韻

關外久流落 頻年岐路間
自知爲客苦 始覺在生難
此別無家別 千山更萬山
送君歸去後 還復掩柴關

나그네 되어 노닐다

떠나도 시름은 다하기 어렵고
머물러도 계획은 이미 어긋났네.
삼경에도 나그네는 잠이 없는데
개 한 마리가 사립에서 짖네.
지는 달은 빈 행랑채를 넘겨다보고
찬 바람은 해진 휘장을 흔들어대네.
내일 아침 강 길을 내려갈 적에
주인에게 돌아간다고 깊이 감사해야지.

57. 旅遊

行役愁難盡 淹留計已違
三更無客夢 一犬吠柴扉

落月窺虛廡 寒風動弊幃
明朝下江路 深謝主人歸

차운

긴 여름에 매우(梅雨)[24]를 맞으며
세류[25] 군영에서 잔치를 여네.
세 줄 궁중 모양으로 쪽을 지었는데
열 폭 치마는 석류빛일세.
취해서 추는 춤에 은빛 촛불 흔들리고
가느다란 허리는 꽃구름 같네.
장군께서 무(武)를 좋아하지 않으시니
막하의 객들이 모두 글을 잘 짓네.

58. 次韻

長夏迎梅雨 開筵細柳軍
三行宮樣髻 十幅石榴裙
醉舞翻銀燭 纖腰化綵雲
元戎不好武 幕客摠能文

묘향산으로 놀러 가는 북저 김학사를 보내며

지리는 현무(玄武)[26]로 이어져 있고

---

24) 매실이 익을 무렵인 음력 4, 5월 양자강 유역에 내리는 비.
25) 한나라 주아부(周亞夫)가 섬서성 함양현 서남쪽에 둔영(屯營)을 친 곳. 이때부터 막부를 유영(柳營)이라고 했다.

향로봉은 옥경에 가까운데,
선랑(仙郞)께서 스스로 인연 있어서
선가의 책을 가지고 떠나네.
하늘 밖에서 향기가 나고
숲 사이에선 범종 소리 들리니,
만약 검은머리 늙은이를 만나면
두 번 절하고 장생술을 물어 보시게.

59. 送北渚金學士遊妙香之行
地理連玄武 爐峰近玉京
仙郞自有分 道帙帶經行
空外聞香氣 林間聽梵聲
如逢綠髮叟 再拜問長生

단오절의 회포를 읊다

오늘은 단오절이라
사람으로 하여금 고향생각 나게 하네.
송추(松楸)[27]에는 조상들 무덤이 있어
이웃 마을에서 의관 차리고 모여드네.
각서(角黍)[28]를 빚은 건 다른 지방 일이지만

26) 천상의 별자리 28수(宿) 가운데 북방칠수(北方七宿)인 두(斗)·우(牛)·여(女)·허(虛)·위(危)·실(室)·벽(壁)을 가리키는데, 북방의 신(神)이라는 뜻으로 쓰인다. 사신(四神)의 하나인데, 거북과 뱀 모양을 했다.
27) 소나무와 가래나무를 묘지에 심었으므로, '묘지'라는 뜻으로 썼다.
28) 중국 사람들이 갈대잎에다 쌀이나 기장을 싸서 삶아 먹던 계절 음식인데, 모양이 딱딱해지므로 각서(角黍)라고 불렀다. 초나라 충신 굴원이 멱라수에 빠져 죽은 5월 5일이 되면 그 지방 사람들이 각서를 물에 던져 굴원의 넋을 위로하였다.

창포와 막걸리는 옛 풍속 그대로일세.
여관 창가에서 새벽에 거울 보니
살쩍과 머리털이 온통 물결이구나.

60. 端陽述懷

今日端陽節 令人憶故鄕
松楸留塚墓 隣里聚衣裳
角黍殊方事 菖醪舊俗觴
旅窓臨曉鏡 鬢髮更滄浪

정학관과 헤어지며 지어 주다

그대와 함께 난리를 만나
둘 다 뜻 잃은 사람이 되었네.
때에 이름을 문자로써 그르치나
사귀는 도리로는 웃고 이야기함이 참되었지.
언제나 집 옮기는 괴로움 싫어하고
오래 나그네 되어 가난을 걱정했는데,
이번에 떠나면 먼 이별 되리니
어찌 눈물로 손수건 적시지 않으랴

61. 贈別丁學官

與子遭離亂 俱爲失意人
時名文字誤 交道笑談眞
每厭移家苦 長愁旅食貧
此行成遠別 安得不霑巾

병마절도사 유형[29]에게

만나볼 날 언젠가 있겠지마는
얼마나 오래 두고 그리워해야겠소?
숲속에 남은 더위 물리고 나니
뜨락 구석에서 가을벌레만 슬피 운다오.
오랜 병 끝에 가난만 언제나 남아
집도 없는 살림살이 여러 해가 바뀌었소.
그대처럼 날 아끼는 분이 아니라면
그 누구에게 넋두리를 감히 하겠소.

62. 呈柳摠戎

相見自有日 相思知幾時
樹間殘暑退 庭際候虫悲
久病貧常在 無家歲屢移
非君愛我意 誰敢語支離

차운하여 금사에게 주다

서울에서 헤어진 지 몇 해 되었나
지금은 천리 밖에서 노닐고 있네.

---

29) 유형(柳珩, 1566~1615)의 자는 사온(士溫)이고, 호는 석담(石潭)이다. 임진왜란 때 의병장 김천일의 휘하에서 활동하다가 1594년에 무과에 급제하였다. 1597년 정유재란 때 통제사 이순신의 막료로 노량해전에서 싸웠으며, 1601년에 삼도수군통제사가 되었다. 고죽 최경창의 외오촌조카라서 손곡과 가깝게 지냈으며, 시를 배웠다. 특히 손곡의 말년에 황해도 병마절도사로 있으면서 많은 교유가 있었으며, 손곡이 죽은 뒤에 『서담집(西潭集)』이라는 이름으로 손곡의 시집을 간행하여 주었다.

하늘가에서 오래 나그네 되어
관외에서 또 가을을 맞네.
떨어진 나뭇잎들이 앞 포구에 날고
비낀 해는 저녁 어스름 포구에 내리는데,
떠돌아 다니면서 가난하고 병 들어
홀로 서서 만 가지 걱정하네.

63. 次韻呈金沙

京洛幾年別 今來千里遊
天涯長作客 關外又逢秋
落葉飛前浦 斜陽下晩洲
流離且貧病 獨立萬端憂

강계 조부사께 문안하며 부치다

한번 헤어진 뒤 봄 여름 지났는데
구름 낀 산 먼 길을 가고 있지요.
소리와 모습을 뵐 수 없으니
꿈속에서도 그리운 마음 부칩니다.
큰 사막에는 바람이 울고
날 저물녘 호가(胡笳) 소리 들려오는데,
허리에 찬 용천검을 어루만지며
휘파람 길게 불며 성가퀴에 기대 서시겠지요.

64. 寄問江界趙府使

一別經春夏 雲山遠間之
音容不得見 夢寐寄相思

大漠風鳴處 胡笳日暮時
腰間撫龍劍 長嘯倚城埤

김통판에게 지어 주다

관아를 새로 옮겨 지으니
뜨거운 날씨에도 땅의 위치 서늘하네.
시냇물 소리는 베개와 책상에 이어지고
산빛은 처마와 기둥에 가득하네.
탁상에는 장부와 문서 끊어지고
재판하던 뜨락에는 가을 풀만 우거져,
이따금 도장이나 찍은 뒤에는
손님 맞아 술잔이나 기울이시네.

65. 贈金通判
政室新移構 炎天地位淸
澗聲連枕几 山色滿簷楹
公案簿書息 訟庭秋草生
時時鎖印後 邀客看尊傾

가을 산의 저녁 회포

저녁볕이 마을 골목을 비추고
골짜기에는 가을 모습이 나네.
가까운 시냇물에 안개 잠기고
먼 산봉우리에 구름이 이네.

이 모습 마주하고 실컷 보노라니
가슴속을 후련히 씻을 수 있네.
영중(營中)에는 때마침 일이 없어서
날 저물 때까지[30] 술잔 들고 앉았네.

66. 秋山夕懷
返照入閭巷 洞壑生秋容
煙沈近溪水 雲起遠山峰
對此騁遊目 可以盪心胸
營中適無事 觴爵坐高春

한찰방에게 지어 주다

세밑이라 나그네 마음 급해지는데
하늘은 차갑고 관새는 깊구나.
북풍은 옛 마을에 불어오고
서산의 해는 교목 숲에 떨어지네.
나는 돌아갈 길이 염려되어
그대를 마주하니 이별 생각만 나네.
시름 일어 단구를 지어 보건만
너무 슬퍼서 음절을 이룰 수 없네.

67. 贈韓察訪
歲暮客意促 天寒關塞深
北風吹古巷 西日下喬林
以我念歸路 對君生別心

30) 원문의 '고용(高春)'은 저녁밥을 지으려고 방아를 찧을 무렵이다.

愁來作短句 凄斷不成音

남창[31]에게 화답시를 올리다

서로 그리워한 지 며칠이던가
벌써 봄도 저물어 가네.
헤어진 지 몇 년 지나서야
다시 시 한 수를 보게 되다니.
동풍에 풀빛 곱고
새 버들은 푸른 연기 같은데,
경물(景物) 보며 시름과 한이 있어
길이 「백저사」[32]를 불러보네.

68. 奉酬南窓

相思今幾日 已及暮春時
況是經年別 還看一首詩
東風芳草色 新柳綠煙絲
景物兼愁恨 長歌白苧詞

황주에서 한자선[33]을 만나다

31) 남창은 김현성(金玄成, 1542~1621)의 호이다. 시(詩)와 서(書)에 뛰어나, 명나라 사신을 접대하거나 사절단으로 외국에 갈 때에 여러 차례 부름받았다.
32) 가곡 이름이다. 이백의 시에도 "술 취한 손님들이 배에 가득 타고 「백저가」를 부르느라고 서리 이슬이 가을옷에 스며드는 것도 알지 못하네[醉客滿船歌白苧 不如霜露入秋衣]"라는 구절이 있다.
33) 1613년에 생원·진사시에 합격한 한경생(韓慶生, 1577~?)의 자가 자선(子善)이다.

남쪽 나라에선 전쟁이 한창인데
서관(西關) 가는 글은 멀기만 하네.
헤어진 지 일년 만에 만나고 보니
저마다 마음과 뜻이 상해 있구려.
바다 가까이엔 모래 연기 어둑하고
구름 검은데다 변새 햇빛은 누런데,
어렵고 위태함에 헤어지는 한까지 있어
눈물이 옷 적시는 줄 알지 못했네.

69. 黃州逢韓子善

南國干戈滿 西關道路長
相逢一年別 各意兩心傷
海近沙煙黑 雲昏塞日黃
艱危有離恨 不覺涕霑裳

강릉으로 부임하는 신영공을 송별하며

대관령 너머 강릉 고을은
구름과 모래, 바다 가까운 성읍이니,
푸른 바다에 해돋이를 바라보고
관아에서 파도 소리를 들으시겠네.
어버이 늙으셨다고 고을자리 청하여
벼슬한 것을 사람들이 영광스럽게 여기니,
한송정과 경포대 달을 보시면
예전에 놀던 정이 일어나시리다.

70. 奉送申令公之任江陵

嶺外江陵府 雲沙近海城
滄溟看日出 廨宇聽濤聲
乞郡親猶老 爲官衆所榮
寒松鏡浦月 因起舊遊情

요월당 시에 차운하다

은하수를 몇 번이나 바라봤던가
항아를 오늘 밤에야 맞아들이네.
흐르는 달빛이 가슴과 소매로 스며들고
남은 그림자 술잔에 움직이네.
하늘 길 오를 수 없는 게 한이 되어
시름겹게 「작계요」[34]를 읊었지.
밤 깊도록 빈 난간에 기대어 서니
바람 불고 이슬 내려 더욱 쓸쓸하네.

71. 次邀月堂韻
河漢幾時望 嫦娥今夜邀
流光入懷袖 餘影動尊瓢
恨未攀天路 愁吟斫桂謠
更深倚虛檻 風露更蕭蕭

34) 오강(吳剛)은 한나라 서하(西河) 사람이다. 신선을 배우다가 죄를 지어 달나라로 귀양가서 계수나무를 찍는 벌을 받았다. 그러나 잠도 잘 수 없는데다, 아무리 도끼질을 해도 계수나무가 곧 아물어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한다. 단성식(段成式)이 지은 『유양잡조(酉陽雜俎)』에 그 전설이 실려 있다. “달나라 계수나무는 높이가 오백 길인데, 그 아래에서 한 사람이 언제나 나무를 깎고 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오강인데, 서하 사람이다. (신선이 되는) 도를 배운 것이 지나쳐, (계수나무로) 귀양보내 나무를 깎게 하였다.”

부사 양사언에게 올리다

나그네가 길 떠나고 머무는 것은
집 주인의 얼굴빛에 달려 있다오,
오늘 아침에 보니 환한 빛이 없어졌길래
오래지 않아 푸른 산을 생각해냈지.
노나라에서는 거위를 대접했고
남쪽에서 돌아오던 날 마원은 율무를 가져왔었네.
가을 바람이 부니 떠돌이 소진은
또 나서노라, 목릉의 관문을.[35]

72. 上楊明府[36]

行子去留際 主人眉睫間

---

35) 소진(蘇秦)이 진(秦)나라 혜왕(惠王)에게 유세하다가 등용해주지 않자 거지꼴이 되어 목릉관(穆陵關)을 나서 고향으로 돌아갔다. 이 시에서는 자신을 떠돌이 지식인 소진에게 견준 것이다.

36) 명부(明府)는 부(府)를 밝게(明) 다스린다는 뜻으로, 사또를 뜻한다. 이 시에서는 강릉부사 양사언을 가리킨다. 양사언(楊士彦)의 호는 봉래(蓬萊)이고, 자는 응빙(應聘)이다. 손곡은 젊어서부터 기방(妓房)의 여자들에게 너무 빠져 지냈다. 그의 재주를 시기하는 사람들이 "부모를 잘 모시지 않고, 아내에게도 예를 지키지 않는다"고 그를 놀려댔지만, 손곡은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봉래 양사언이 명주(溟州)를 다스리고 있을 때에 손곡을 스승의 예우로서 모셨는데, 그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돌아가신 나의 아버님께 나쁘게 말을 옮겨 드렸다. 아버님이 봉래에게 편지를 보내어 그를 다른 곳으로 보내 버리라고 권고하였으므로, 봉래가 답장을 보내왔다. "오동나무 꽃잎은 밤비에 떨어지고 바닷가 나무는 봄 구름에 사라졌네. 桐花夜雨落, 海樹春雲空."이라는 시구를 지은 이달에게 만약 소홀한 대접을 한다면, 진왕(陳王)이 응소(應邵)와 유정(劉楨)을 처음 잃어버린 경우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 뒤에도 또한 여러번이나 제대로 대접하지 않았으므로, 손곡이 시를 지어 주면서 헤어지려고 했다. (위의 시) 그러자 봉래가 깜짝 놀라면서 후회하고는, 곧 예전과 같이 그를 모셨다. - 허균『학산초담』.

今朝失黃氣 未久憶靑山
魯國爰鵾鷖 征南薏苡還
秋風蘇季子 又出穆陵關

호숫가 절에서 스님의 시축에 있는 최경창과 백광훈의 시를 보고 서글픈 마음에 시를 지어 주다

성을 나오고 강물을 건너
젊을 적엔 자주 오갔지.
언제나 최·백 그대들과 함께
절간에서 시 짓는 재주를 시험했지.
옛 친구들은 모두 죽고
흐르는 세월은 차례를 제촉하는데,
기둥에 오래 기대어 생각하노라니
서산의 해가 생대를 내려가누나.

73. 湖寺 見僧軸有崔白詩 愴懷有贈
出郭渡江少 水年多往來
每携崔白輩 僧院課詩才
舊友凋零盡 流年次第催
沈吟倚柱久 西日下生臺

벗과 함께 호숫가 절에서 하룻밤 자기로 기약하며

홀로 청기문을 나서
조금 가자 강길이 나누어지네.

큰 소나무는 흰 눈에 가리고
골짝마다 층층 구름이 이네.
내 스스로 야성을 좋아하지만
사람 무리를 떠나려 한 건 아닐세.
하룻밤 묵을 걸 서로 기약하니
호숫가 절에 종소리 은은히 들려오네.

74. 與友人期宿湖寺

獨出靑綺門 漸向江路分
長松隱白雪 亂壑生層雲
自然愜野性 不是去人群
相期一夜宿 潭寺微鍾聞

스님에게 지어 주다

절간[37] 경내에서 하룻밤 자며
여래의 범석(梵席)을 같이 하였네.
봄 산은 꽃그림자 속에 들앉았고
옛 절은 물소리 가운데 있네.
법(法)을 물으니 마음은 허깨비 같고
선(禪)을 알아보니 성품은 곧 빈 것이라네.
전쟁은 아직도 평정되지 않아
동과 서로 각기 떠돌고 있네.

75. 贈僧

37) 『당회요(唐會要)』에 관(官)에서 편액 내린 절을 사(寺)라 하고, 개인적으로 세운 절을 초제(招提), 또는 난야(蘭若)라고 하였다.

一宿招提境 如來梵席同
春山花影裏 古寺水聲中
問法心如幻 探禪性卽空
干戈時未定 漂泊各西東

무장현 가는 길에

유월이라 장사의 길로
찌는 더위 속을 가네.
외로운 마을에서 저녁 비 만나
혼자 앉았노라니 꾀꼬리 소리 들리네.
세상에 살며 오래 나그네 되어
지나온 햇수가 이미 반생일세.
언제쯤이나 대숲 아래
사립문 닫고 머물러 살려나.

76. 茂長道中[38]

六月長沙路 歸人觸暑行
孤村逢暮雨 獨坐聽流鶯
在世長爲客 行年已半生
何時竹林下 棲息掩柴荊

38) 최경창이 장사로 떠나는 손곡을 송별하면서 지어준 시가 『고죽유고』에 실려 있다. 지난봄에는 무령에 살았는데 올 봄엔 또 남쪽으로 간다니, 해마다 나그네라 타향 먼데다 해마다 꽃 보느라 백발만 느네. “去歲春風住武靈 今年春至又南征 年年爲客他鄕遠 歲歲看花白髮生”「進李益之往長沙」.

벗에게 지어 주다

강 나무에 나뭇잎 소리 작고
강 다락에 가을 기운 깊은데,
흐르는 세월을 붙잡을 수 없어
멀리 헤어지려니 홀로 마음 상하네.
오래 머물러도 시름 다하기 어렵고
바람과 서리에 병들기 쉬운데,
애오라지 돌아가지 못하는 마음에
그대와 더불어 길이 읊노라.

77. 贈友人

江樹葉聲薄 江樓秋氣深
流年不可駐 遠別獨傷心
留滯愁難盡 風霜病易侵
聊將未歸意 與子共長吟

삼청동에서 놀다

북쪽 저자는 거리로 이어지고
가을 숲은 성곽과 산에 가깝네.
삼청동에는 보전(寶殿)[39]이 있어
닫힌 운관 속에서 경쇠 소리 나네.

---

39) 임진왜란 전까지는 삼청전(三淸殿)에서 삼청성신(三淸星辰)에게 제사를 지냈는데, 옥황상제·태상노군(太上老君)·보화천존(普化天尊) 등 열댓 신을 모셨다. 삼청동 석벽 위에 감사 이상겸(李尙謙)의 글씨로 '삼청동문(三淸洞門)' 네 글자가 새겨졌는데, '산이 맑고 물이 맑고 사람이 맑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차가운 바위 아래로 물 떨어지고
이슬 맺힌 풀 사이로 반디 나는데,
아득히 세상 근심 잊어버리고
밤 늦도록 돌아갈 줄 모르네.

78. 遊三淸洞

北市連街路 秋林近郭山
三淸留寶殿 一磬閉雲關
水落寒巖下 螢飛露草間
悠然忘世慮 夜久不知還

성암과 헤어지면서 지어 주다

백제가 흥했다 망한 곳에
천년 옛 집이 있네.
산하에는 패기(覇氣)가 남아 있고
종소리 범패소리가 선문을 편안케 하네.
부처님 비추는 향등은 싸늘한데
사람이 있어 흙구들은 따뜻하네.
강남에서 봄날 경물을 보며
떠나는 혼에게 방초를 부치네.

79. 贈性菴別

百濟興亡地 千年棟宇存
山河餘覇氣 鍾梵鎭禪門
照佛香燈冷 留人土突溫
江南見春物 芳草寄離魂

부여를 지나다가

성과 연못이 변해 큰 숲이 되고
궁궐 담장자리엔 고을이 들어섰네.
산과 강이 온갖 전쟁 다 겪은 뒤에
울과 담만 몇 마을에 남아 있구나.
옛 언덕의 비석은 글자가 다 망가졌고
묵은 밭의 흙줄기는 맥이 풀렸네.
성충의 무덤은 어디 있는지
말 세워 놓고 나 혼자 흐느끼네.

80. 過扶餘有懷
喬木城池變 官墻縣邑居
山河百戰後 籬落幾村餘
古岸碑文毁 荒田土脈疏
成忠墓何在 駐馬獨欷歔

홍농성[40] 밖에서 좌랑 이자장과 헤어지며

뜻 잃고 남쪽 나라로 향했다가
해 지나 서울로 올라가네.
봄바람은 헤어지는 한을 불어주고
거친 풀은 헤어지는 정을 매어주네.
옛 역에는 잔설이 이어지고
비낀 해가 날 저문 성에 내리는데,
내 갈 길이 또한 천리라

40) 전라남도 영광군 홍농면에 홍농현이 있었다.

적막하여 나그네 혼을 놀라게 하네.

81. 弘農城外 別李在郎子張
失意向南國 經年之上京
春風吹別恨 荒草繫離情
古驛連殘雪 斜陽下晩城
吾行亦千里 寂寞旅魂驚

남쪽 고을에서 고죽 사또에게 보이다

마을은 큰 길로 이어지고
창 열고 들판 보니 아득하구나.
돌아갈 마음 커도 의지할 곳 없어
방초만 날마다 우거지네.
바다가 가까워 모래 독기에 잠겼고
밀물이 들어오면 물가 길은 진흙일세.
이따금 벽 위의 시구를 보니
반나마 병중에 지은 것일세.

82. 南州 示孤竹使君
曲巷連官道 開窓野望迷
歸心浩無托 芳草日萋萋
海近沈沙瘴 潮生長渚泥
時看壁上句 太半病中題

병들어 천안군수 손사군[41]을 그리워하며

근력이 튼튼치 못한 게 슬퍼
아득히 병든 뒤에 시름하네.
남을 사서 겨우 지팡이에 의지하니
나그네로 다락에 오르기 싫어졌네.
먼 산은 저녁이라 아지랑이 짙고
고목은 가을이라 서늘한 기운 생기네.
길이 다하니 지기(知己)를 믿어
여관에 억지로 머물러 있소.

83. 病懷寧城倅孫使君
筋力嗟無健 悠悠病後愁
倩人纔倚杖 爲客倦登樓
嵐重遙山夕 涼生古木秋
途窮賴知己 賓館强淹留

취원정에서 영광과 무장 두 고을 사또에게 보이다

고을이 호숫가에 있고
높은 정자에 대나무 오솔길이 비꼈네.
바라보니 평야가 다 들어오고
비 갠 뒤라 먼 산들이 많아졌네.
고향 소식은 끊어졌는데
찌는 더위가 폐병을 더하네.
구름도 천리를 돌아가는데

41) 사군은 사또인데, 손곡이 1567년에 서울로 올라오다가 병이 들어 당시 천안군수였던 손여성(孫汝誠)에게 신세를 졌다. 손여성이 이듬해 남원부사로 승진하자, 따라갔다.

어느 곳이 바로 서울이던가.

84. 聚遠亭 示靈茂二使君
縣邑臨湖岸 高亭竹逕斜
望中平野盡 晴後遠山多
消息鄕關阻 炎蒸肺病加
歸雲一千里 何處是京華

토정[42]의 포구 누각에서 자며

모래 언덕에 노를 멈춘 뒤
다락에 오르니 나그네 시흥 일어나네.
헤어지는 포구에 밀물 가득하고
해는 져서 모든 산이 가라앉네.
비바람으로 서재는 무너지고
동산 언덕에는 덩굴 풀만 우거졌으니,
경영하시던 그 많던 일들
그 누가 구원(九原)의 마음을 알랴.

85. 宿土亭浦樓
沙岸停橈後 登樓動客吟
潮生別浦滿 日落衆山沈
風雨書齋破 園皐蔓草深

42) 토정은 이지함(李之菡, 1517~1578)의 호이다. 마포 포구에 흙으로 움집을 짓고 살아, 토정(土亭)이라는 호를 얻었다. 기이한 행적이 많이 전하며, 해마다 연초에 신수를 보는 『토정비결(土亭秘訣)』도 그의 책이라고 전한다. 그가 살았던 동네가 바로 마포구 토정동이다.

經營許多事 誰識九原心

부여 가는 길에

거친 산등성이 아래에서 말을 쉬니
어지러운 돌 사이로 시냇물 흐르네.
아침 매미가 역마을 숲에서 우니
외로운 나그네 고향 생각 나네.
밝은 거울 속 흰머리를 슬퍼하고
단사(丹砂)는 대환(大還)[43]을 저버렸으니,
가을바람에 해진 옷 입고
다시 목릉관을 나가네.

86. 扶餘道中

歇馬荒岡下 溪行亂石間
早蟬鳴驛樹 孤客憶鄕山
白髮悲明鏡 丹砂負大還
西風弊裘在 更出穆陵關

사암의 시에 차운하다

타향에 나그네 된 지 열흘이니
헤어질 걱정이 다시 만 갈래.
돛단 조각배는 장사꾼 따라

43) 대환은 대환단(大還丹)이라고도 하는데, 단사로 만든다는 불로장생의 약이다. 도가에서 사제간에 구결(口訣)이 전해졌다.

내일 강여울을 내려갑니다.
물은 얕은데 통발은 헐어지고
모래 무너진 풀 언덕은 차갑기만 하니,
가을바람에 다 떨어진 갖옷 있다지만
어찌 촌심을 너그럽게 하리오.

87. 次思菴韻

旅食連旬朔 離憂更萬端
片帆隨估客 明日下江灘
水淺魚梁毁 沙崩草岸寒
西風弊裘在 安得寸心寬

도천사 명월료에서 잠 자며

범종이 울자 스님은 절간으로 돌아오고
나그네는 찻상에 자리를 잡네.
비인 산엔 밝은 달이 가득 비추고
깊은 밤이라 소쩍새까지 우네.
은은하게 들려오는 방울 소리
서늘한 물소리는 석계를 흘러가는데,
옷깃을 헤치고 거친 섬돌을 걸으니
풀잎의 이슬이 차갑게 젖어드네.

88. 宿道泉寺明月寮

鍾梵僧歸院 茶床客定棲
空山明月滿 深夜子規啼
隱隱來金鐸 冷冷送石溪

披衣步荒砌 草露濕凄凄

여러 달

여러 달 동안 남쪽 나라에 노닐다보니
새로 친 서리가 살쩍 끝에 가득하네.
온 집이 서울에 붙어 있으니
밥이 없어 어려움을 탄식할 테지.
긴 칼을 퉁긴들[44] 무엇이 보태지랴
『음부경』[45] 옆에 두고 보지를 않네.
오직 썰렁한 마음만 남아 있어
길게 휘파람 불며 난간에 기대었네.

89. 數月

數月遊南國 新霜滿鬢端
全家寄京洛 無食嘆艱難
長鋏彈何益 陰符置不看
唯餘寥落意 長嘯倚闌干

보원스님이 서쪽으로 돌아간다기에 지어 주다

44) 제나라 맹상군에게 삼천 식객이 있었는데, 모두 한 가지 재주가 있었다. 풍환(馮驩)이라는 식객이 저녁에 칼을 두드리며 "밥상에 고기가 없구나" 하고 노래하였다. 그러자 맹상군이 고기 반찬을 차려주게 하였다. 그뒤에 "문밖을 나가는데 수레가 없구나"하고 노래하였다. 그러자 맹상군이 수레를 주었다. 그 뒤에 맹상군이 승상 벼슬에서 면직되자, 풍환이 힘써 복직시켜 주었다.

45) 병법서인데, 천기(天機)가 시기(時機)와 암합(暗合)한다는 의미이다.

환기[46]가 밤잠을 설치게 해
높은 다락에서 새벽 종소리를 듣네.
스님 만나 내 몸이 스스로 편했는데
세속을 향하면 귀찮은 일 많을 테지.
지는 나뭇잎 가는 길에 아득하고
외로운 배 떠난 자취 보이지 않아,
서쪽으로 돌아가 법을 묻는 날
어느 봉우리 정하여 사시려는지.

90. 贈僧普元西歸

患氣妨宵臥 高樓聽暑鍾
逢僧身自適 向俗事多慵
落葉迷行逕 孤舟杳去蹤
西歸問法日 棲息定何峯

청학동

끊어진 골짜기에 산 기운 그늘 짙고
깊은 산에 고목들 평평하구나.
왕자진[47]을 불러오게 하려고

46) 두보의 시에, 호흡기 질환을 환기(患氣)라고 하였다. 주석에는 폐병이라고 하였다.

47) 왕자교(王子喬)는 주나라 영왕의 태자 진(晉)이다. 생황을 잘 불어 봉황의 울음소리를 내었다. 이수(伊水)와 낙수(洛水) 사이에서 노닐었는데, 도사 부구공이 그를 데리고 숭고산으로 올라갔다. 30여년 뒤에 (사람들이) 산 위에서 그를 찾았는데, (왕자교가) 백량 앞에 나타나 말하길, "7월 7일에 구씨산 정상에서 나를 기다리라고 내 집에 알려 주게"라고 했다. 그날이 되자 (왕자교가) 과연 흰 학을 타고 산마루에 내려앉았다. (사람들은) 멀리서 그를 바라보았으며, 가까이 다가갈 수는 없었다.

마침 동쌍성[48]을 부르는구나.
청학이 나래 쳐 솔 이슬 지고
바위 노을은 적성에 감도네.
만약 검은 머리 노인 만나면
두 번 절하고 장생술을 물어야지.

91. 靑鶴洞

絶壑嵐陰重 深山古木平
欲招王子晉 時喚董雙成
松露翻靑鶴 巖霞繞赤城
如逢綠髮叟 再拜問長生

불일암에서 인운스님에게 지어 주다

학이 날아가는 길은 진계(眞界)로 통해
현도(玄都)의 자단(紫壇)을 찾아왔네.
푸른 바위에는 폭포 걸려 쏟아지고
단청한 전각에는 낮 종소리 스러져가네.
골에는 삼주수가 감춰져 있고
주머니엔 구전(九轉)한 단약이 있네.
지개가 지나가는 소리 들리면
하늘 너머 옥피리 소리 차갑게 들리겠지.

(왕자교는) 손을 들어 사람들과 이별하고 며칠 후에 떠났다. 나중에 구씨산 아래와 숭고산 정상에 (그를 위한) 사당을 세웠다. - 유향『열선전(列仙傳)』.

48) 서왕모의 시녀인데, 허비경(許飛瓊)·가릉화(賈陵華)·단안향(段安香)과 함께 신선이 되었다고 한다.

92. 佛日菴 贈因雲釋

鶴逕通眞界 玄都訪紫壇
蒼巖懸瀑瀉 碧殿午鍾殘
洞秘三珠樹 囊留九轉丹
始聞芝蓋過 空外玉簫寒

쌍계사

골 안에 쌍계사가 있어
쌍계가 석문과 마주하였네.
산은 혁거세 때에 열리고
물은 무릉도원(武陵桃源)으로 이어졌네.[49]
청학 둥지는 아직도 예스럽고
단사 빚던 우물은 혼탁해지지 않았는데,
고운이 쓴 비[50]가 아직 남아서
한번 읽고나니 혼이 녹았네.

93. 雙溪寺

洞裏雙溪寺 雙溪對石門

---

49) 진(晉)나라 때에 무릉(武陵)에 사는 한 어부가 시냇물에 복사꽃이 흘러오는 것을 보고 상류로 거슬러 올라가다가 바깥 세계와 떨어져 사는 마을을 발견하였다. 복사꽃이 만발한 이 마을 사람들은 진시황의 폭정을 피해서 숨어 들어왔다는데, 그 뒤로 세월이 얼마나 흐르고 왕조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무도 몰랐다. 평화로운 마을에서 대접을 받고 돌아온 어부가 군수에게 보고한 뒤에 다시 그 마을을 찾아가려 했지만, 길을 알수가 없었다고 한다. 이 이야기를 도연명이 듣고 「도화원기(桃花源記)」를 지은 이래, 많은 문인들의 작품 소재가 되었다.

50) 신라 시인 최치원(崔致遠)의 호가 고운(孤雲), 또는 해운(海雲)이다. 쌍계사에 그가 지은 진감선사비문이 지금도 남아 있다.

山開赫居世 水接武陵源
靑鶴巢猶古 丹砂井未渾
孤雲碑尙在 讀罷一銷魂

도의상인께 지어 주다

동령(東嶺)에서 인연 따라 머물고
남종(南宗)의 도기(道機)를 익혔네.
불경 번역하느라 방문 닫은 지 오래니
누더기옷 걸치고 산 내려간 적 드무네.
숲속 언덕길에 새들은 방금 잠들고
동문에는 봄날이 저물어 가는데,
시냇가에서 서로 보내노라니
꽃 이슬이 선의(禪衣)를 적시네.

94. 贈道義上人
東嶺隨緣住 南宗熟道機
翻經閉室久 掛衲下山稀
林磴鳥初宿 洞門春欲歸
溪頭好相送 花露濕禪衣

남원에 이르러 부사에게 지어 보이다

동쪽 땅에 있던 가난한 살림 그만두고
남쪽 고을까지 멀리 노닐러 왔소.
봄 그늘이 들녘 숲에 드리우고

저녁 날빛은 성루로 올라가는데,
세상에 나서려 해도 어려운 일만 생기고
먹고 살기나 하려 해도 좋은 생각이 없다오.
그 누가 내게 한 말 술을 보내와
고향 떠난 이 시름을 풀게 할 수 있을는지.

95. 到帶方[51]府 示府伯

東土辭貧業 南鄕作遠遊
春陰垂野樹 暮色上城樓
行世有難策 在生無善謀
誰能一斗酒 送我寫離愁

용성에서 시를 주고받다

서울에서 만날 수 없어
봄이 지나간 뒤에 만나자 기약했네.
남쪽에 와 오래 나그네 되니
눈을 들어봐도 친지가 없네.
내 이는 물가 다리는 어둑하고
이슬이 무거워 꽃가지 늘어졌네.
모이고 흩어지는 걸 헤아릴 수 없으니
아득한 이별이 길기만 하구나.

96. 龍城酬唱[52]

51) 대방은 전라도 남원의 옛 이름이다. 강원도 원주 손곡에 묻혀 살던 이달이 남원으로 놀러 가서 지은 시이다.
52) 임제의 「용성수창(龍城酬唱)」에 두 번째로 실린 시이다. 손곡의 시가 원

洛下不得見 相逢春後期
南來作客久 擧目無親知
煙起水橋暝 露重花枝卑
聚散莫可數 悠悠長別離

안주 땅에서 조정으로 돌아가는 구대간을 송별하며

관외에서 오래 나그네 되어
쓸쓸히 오두막 문을 닫아 걸었네.
간의 어른께는 많이 부끄럽건만
도리어 늙은이 사는 걸 물으시네.
먼 포구에 밀물 들어오자
높은 봉우리에 아침해가 돋아오르네.
서울로 돌아가는 사신이 있어
때맞춰 두어 줄 글을 부치네.

97. 安州地 奉送具大諫還朝
久客淹關外 蕭然閉草廬
多慚諫議長 却問老人居
極浦潮生後 高峯日上初
秦中有歸使 時寄數行書

답청일에 좌망에게 지어 보이다

오랜 병중에 아름다운 철을 만나

운(原韻)이어서, 임제가 「차손곡운(次蓀谷韻)」이란 제목으로 지었다.

높은 다락에서 개인 저녁 하늘을 마주했네.
한가로운 구름은 산 그림자를 건너고
아름다운 새는 먼 숲에서 우는데,
외진 곳이지만 오히려 환히 드넓고
급히 흐르던 강물도 다시 잔잔해지네.
서울을 바라다봐도 보이지 않아
때때로 두보의 「여인행(麗人行)」[53]을 읊조리네.

98. 踏靑日[54] 示坐忘

久病逢佳節 高樓對晩晴
閑雲度峯影 好鳥隔林聲
地勢偏猶敞 江流遠復平
長安不可望 時詠麗人行

좌망에게 적어 보이다

1.
나그네로 지내다보니 몸은 다 늙고
시름 속에 귀밑털 이미 희어졌네.
어둠침침해 봄날 기분 적어지고
암담한 가운데 저녁 추위가 심하구나.
고향은 산천이 막혔고
흐르는 세월 따라 계절도 지나가는데,
쇠한 몸에 병까지 심해져
돌아갈 계획조차 어긋나네.

53) 양귀비의 호화로운 생활을 노래한 시이다.
54) 춘분에서 15일째 되는 청명일에 교외로 나가 풀을 밟으며 놀았다.

99. 錄示坐忘

客裏身全老 愁中鬢已華
冥冥春意少 慘慘暮寒多
鄉國山川阻 流年節序過
更添衰病甚 歸計正蹉跎

2.
나그네 병을 그 누가 위문하랴
아침 내내 홀로 문을 닫았네.
끊어진 구름은 자갈길 나무에 아득하고
이어진 기러기 떼는 강마을을 지나네.
다행히 여기에 지기가 있어
한 마디 글을 지어주려 하니,
그대 빈관에 이르던 날은
마치 고향 동산에 이른 것 같았지.

又

旅病誰相問 終朝獨掩門
斷雲迷磧樹 連雁過江村
幸此存知己 因之欲贈言
到君賓館日 猶似到鄉園

손곡시집(蓀谷詩集) 권사(卷四)

칠언사운(七言四韻)

연스님의 시축에 지어주다

동호에 노를 멈추고 잠시 흐르노라니
물언덕 비탈 위로 버들 늘어져 있네.
병든 나그네의 외로운 배는 밝은 달빛 속에 있고
늙은 스님의 그윽한 절간엔 떨어지는 꽃잎이 많구나.
돌아가고 싶은 마음 아득히 향그런 풀밭에 이어지지만
고향길은 멀고도 멀어 물결 저 너머에 있네.
홀로 앉아 구름 바다 저 멀리 갈 길을 생각하노라니,
해질 무렵 갈까마귀 울음소리를 차마 듣기 어려워라.

100. 題衍上人軸

東湖停棹暫經過 楊柳悠悠水岸斜
病客孤舟明月在 老僧深院落花多
歸心黯黯連芳草 鄕路迢迢隔遠波
獨坐計程雲海外 不堪西日聽啼鴉

행사에게 지어 주다

이전 다리가에서 버들가지 꺾었던 때가
봄바람 꽃다운 풀에 다시금 생각나네.
서울에서 대지팡이 짚고 다시 만나니
보따리 속 천 수 시는 예 그대로일세.
깊은 절엔 봄비 뒤에 꽃 떨어지고
숲에 가득 우짖는 새들 나그네 시름겹네.
외로운 배를 서담(西潭) 달 아래 매어 두고
나를 맞아 단구(丹丘)[1]에서 자기로 했네.

101. 贈行思

曾折河橋疏柳枝 東風芳草更相思
重逢京洛一笻竹 依舊行裝千首詩
深院落花春雨後 滿林啼鳥客愁時
孤舟爲繫西潭月 邀我丹丘有宿期

호남 나그네 길에서

강남 삼월에 돌아가는 기러기 소리 듣고
밤에 앉아 허공에 대고 '돌돌'[2] 두 글자를 자주 썼네.
천리 나그네 마음은 등불 그림자 속에 있고
일년 꽃들은 빗소리 속에 피고 지네.
단로(丹爐) 버린 지 오래라 술수 없는 줄 알겠건만

1) 신선이 사는 곳인데, 이 시에서는 서담에서 가까운 원주 단구(역)이기도 하다.
2) 돌돌(咄咄)은 뜻밖의 일을 당하고 깜짝 놀라서 탄식하는 소리이다. 진(晉)나라 은호(殷浩)가 조정에서 쫓겨난 뒤에 충격을 받고, 하루 종일 공중에다 손가락으로 "돌돌괴사(咄咄怪事)"라는 네 글자를 썼다고 한다. 자신의 파직이 너무나 뜻밖이었기 때문이다.

흰머리 두루 나니 공평치 못하구나.
가는 길 어렵건만 다만 이같이 가며
문 닫고 높이 누우니 바로 영웅일세.

102. 湖南客中

江南三月聽歸鴻 夜坐頻書咄咄空
千里客情燈影裏 一年花事雨聲中
丹爐久廢知無術 白髮偏生亦不公
行路難行只如此 掩門高臥是英雄

개성에서 옛날을 생각하며

닭 잡고 오리 묶어 이 땅을 통일했건만
오백년의 고려 왕기 이제는 거두어졌네.
천명이 돌아가니 운수 면하기 어려웠지.
인심이 모여드니 어찌 계획이 없겠는가.
수창궁 앞 행차길엔 가을풀만 우거지고
만월대 밑 공 치던 뜨락엔 저녁 소가 놓였구나.
궁안 도랑 남쪽 물만 옛날처럼 남아 있어
지금도 목이 메어 찬 물결을 흘려 보내네.

103. 松京懷古

操鷄搏鴨盡靑丘 五百年來王氣收
天命有歸難免數 人心思會豈無謀
宮前輦路生秋草 亭下毬庭放夕牛
唯有御溝南畔水 至今嗚咽送寒流

손명부의 죽음을 슬퍼하다

그대 명부[3]가 되시고 나는 나그네였을 때
오작교에 삼월 놀과 꽃이 피었었지.
남긴 글 점검하던 일이 어제 같은데
오늘 아침 처량하게 슬피 만가를 부르네.
인간 세상에 부자의 정이 어찌 끝나랴만
해내의 친한 벗들 간담이 녹으려 하네.
서울 길은 가을빛 속에 문이 닫히고
뜨락 가득 누른 잎이 쓸쓸히 지네.

104. 挽孫明府

君爲明府我爲客 三月煙花烏鵲橋
點檢遺篇如昨日 凄涼哀挽卽今朝
人間父子情何極 海內朋親膽欲銷
京口閉門秋色裏 滿庭黃葉雨蕭蕭

부산포에서 쓰다

띠풀 누런 포구에는 장연(瘴煙)이 깊었는데
성밖 해자 곳곳에 탱자 울을 둘렀구나.
열흘 잇단 장마에 왜관(倭館)이 무너지고
괴이한 구름 해를 가려 수루가 잠겨 있네.
긴 다리 위에 물 지고 소금가마로 돌아오고
긴 대나무 산을 둘러 바다 새가 보이네.
멀리 바라보는 고향은 천리

3) 명부는 태수나 현령을 이르는 말인데, 남원부사 손여성을 가리킨다.

남 만나면 공연히 유람한다고 말하네.

105. 題釜山浦

黃茅浦口瘴煙深 處處城壕枳殼林
積雨連旬蠻館毁 怪雲埋日戍樓沈
長杠擔水歸鹽竈 脩竹環山見海禽
遙望鄉關一千里 逢人空說遠遊心

선산 가는 길에

서풍이 불어오니 잎새마다 마른 소리
먼 길이 아득해 말안장도 지겹네.
두어 식구 서울에 있어 먹을 게 군색한데
이 한 몸 병이 많아 나그네 노릇 어렵네.
강가 다리 건너는 기러기 찬 서리에 가까운데
동산 풀에 반디 날고 흰 이슬 차갑네.
홀로 시낭(詩囊)에 기대어 긴 밤 다 보내고
갈 길을 헤아리려 아이 불러 물었네.

106. 善山道中

西風吹葉葉聲乾 長路悠悠厭馬鞍
數口在京家食窘 一身多病旅遊難
河橋雁度淸霜近 園草螢飛白露寒
獨倚詩囊遙夜盡 計程呼說小童頑

새벽에 판교촌을 가며

물길 막힌 서쪽 길에 닭 우는 소리 들리고
고개 마루에 달이 져 새벽 안개 풀어지네.
사람 소리 이따금 초가 주막에서 들리고
판교에 말발굽 소리 잇달아 나는구나.
아득하던 고향이 차츰 가까워져 기쁜데
긴 여행 끝에 여독이 몰려드네.
다시 큰 언덕을 내려가 벗들에게 말하려고
날이 밝으면 모름지기 먼저 떠나야겠소.

107. 曉行板橋村

水關西路聽鷄鳴 嶺月初沈曉霧平
人響間聞茅店語 馬蹄連上板橋聲
悠悠漸喜鄕山近 瑣瑣偏知旅態生
更下長陂說徒侶 天明順趁及先行

영남 좌병영으로 뵈러가는 임자순을 전송하며

영막(營幕)에 아버님 문안하러 아드님께서 돌아가니
바다 구름 다 걷히고 기러기 남으로 날아가네.
장군은 영을 내려 칼을 거두고
도위(都尉)는 순병하러 철옷을 입었겠지.
영남 길에 많은 산들 멀고 가까이 이어지니
가을풀 우거진 곳에서 말발굽 쉬어 가소.
갈림길에 자주 슬퍼짐을 이상타 생각 말게
유령에 매화[4] 피어도 역사가 드물다오.

4) 강서성 대유령(大庾嶺)에 피는 매화는 남북간의 기후 차이가 커서, 남쪽 매화가 질 무렵에 북쪽 매화가 핀다고 한다.

108. 送林子順覲嶺南左兵營
營幕寧親令子歸 海雲開盡雁南飛
將軍出令收雕劍 都尉巡兵掛鐵衣
關路亂山連遠近 馬蹄秋草歇芳菲
臨岐莫怪頻惆悵 庾嶺梅花驛使稀

나그네 보내려고 서교로 나왔다가 양근 사또에게 편지를 부치다

당시에 문을 닫고 경과를 끊었다가
서교에서 손님 보내며 먼 언덕에 올랐네.
방초 들판 다리에 봄물이 있고
첩첩 산 강마을에 석양빛 짙구나.
밭 가는 농부는 숲에서 이야기하며 밥 먹고
시냇가 여인은 밭에서 노래하며 뽕 따네.
사또께서 새 영을 내리셨다니
요즘엔 옹졸하게 세금만 재촉하시나.

109. 送客出西郊 簡寄楊根使君
當時閉戶斷經過 送客西郊上遠坡
芳草野橋春水在 亂山江郡夕陽多
耕夫就餉林中語 溪女條桑陌上歌
聞說使君新下令 近來官政拙催科

늦봄에 절을 찾다

봄 산에 가는 곳마다 시내 소리 들리는데

저녁 맑은 날씨 보고 옛 절 스님과 약속했네.
깊숙한 나무에 새들 울어 이따금 들려오고
숲속 가득 피어난 꽃은 이름을 알 수 없네.
몸을 스님께 내맡기니 세속 인연 다 끊어지고
손에 선경(仙經)을 잡으니 도기(道氣)가 나는구나.
높은 봉우리 절간에서 다시금 자려고 보니
달빛 속에 풍경 소리 상방에서 맑구나.

110. 暮春尋寺

春山處處聽溪行 古寺僧期趁晩晴
深樹鳥鳴時送響 滿林花發不知名
身依法侶塵緣盡 手把仙經道氣生
更宿中寮最高頂 月明鍾磬上方淸

허전한[5]에게 안부를 보내다

갑산 서북은 음산[6]과 닿았는데
험한 길에 구름 걸려 올라갈 수가 없네.
유배객 이 길에 어느 날에야 이를건가
집에 편지를 이따금 부쳐도 해 넘겨 돌아가네.
듣자니 도두성 성가퀴 속은
날다람쥐 담비만 나무 사이로 보인다지.
태평성대에 어찌 재자(才子)를 끝내 버리랴
서른에 귀밑머리를 세게 하지 마소.

5) 전한(典翰) 벼슬을 하다가 갑산으로 귀양간 허봉(許篈)을 가리킨다.
6) 중국 북방 흉노의 땅이다.

111. 寄問許典翰

甲山西北接陰山 鳥道懸雲不可攀
遷客此行何日到 家書時寄隔年還
長聞刀斗城塊裏 但見鼯貂樹木間
聖代豈終才子棄 莫敎三十鬢成斑

청천강을 건너며

안주성 밖 물빛은 하늘 같은데
모래밭에 말 세우고 건너갈 배를 부르네.
돛단배는 저녁 안개 띠고 풀 언덕에 대고
기러기는 해 지는 갈밭에 내리네.
먼 길에 나그네는 돌아갈 생각을 하니
힘줄과 뼈가 늙어갈수록 소년시절 그리워지네.
집에 있으면 가난도 또한 좋다고 비로소 믿으니
요즘 귀밑머리가 점점 더 성겨지네.

112. 渡淸川江

安州城外水如天 立馬沙頭喚渡舡
帆帶晩煙依草岸 雁迷殘日下蘆田
長途旅客思歸計 向老筋骸憶少年
始信在家貧亦好 近來雙鬢轉蕭然

구성 임명부께 올리다

팔월 변방에 서리 쳐 구월에[7] 가까우니

북풍이 잎새에 불고 기러기 남으로 나네.
그 누가 범숙의 이같은 가난을 불쌍타 하랴
소진은 곤궁해도 돌아가지 못해 스스로 웃네.
집은 바다 서쪽에 있어 소식조차 끊어지고
나그네로 관외에 오니 친구가 드물어,
등불 앞에서 잠시 고향 생각 꿈꾸니
가을 물 안개 속에 옛 낚시터 잠겼네.

113. 上龜城林明府[8]

八月邊霜近授衣 北風吹葉雁南飛
誰憐范叔寒如此 自笑蘇秦困不歸
家在海西音信斷 客來關外故人稀
燈前暫結思鄉夢 秋水煙沈舊釣磯

회포를 쓰다

인간세상 만 가지 일이 뜻 같지 않아
득실에 유유하며 새옹(塞翁)을 보네.
달 좋은 누대에서 도리어 병 들고
꽃 지는 시절에는 늘 바람도 많네.
뜻밖의 높은 벼슬은 허무해지고

---

7) 9월이 되면 겨울옷을 만들어 보내야 하기 때문에, 9월을 수의(授衣)라고도 했다.

8) 『국조시산』에는 불(不)자가 미(未)자로 되어 있으며, 제목도 「구성증임명부식(龜城贈林明府植)」으로 되어 있다. 임식에게 보낸 시라고 밝힌 것이다. '절가지작(絶佳之作)'이라는 비(批)가 덧붙어 있다. 구성에서 부사 임식(1539~1589)에게 보낸 시이다. 임식은 결성 출신으로 손곡과 동향이며, 『송파유고(松坡遺稿)』를 남겼다.

과거의 영웅들도 적막 가운데 있으니,
오십년 나이가 무슨 소용이랴
한 소리 길게 읊으며 먼 하늘 바라보네.

114. 書懷

人間萬事不如意 得失悠悠看塞翁
好月樓臺還有病 落花時節每多風
倘來軒冕虛無褁 過去英雄寂寞中
五十之年何所用 一聲長嘯望遙空

사암[9] 상공께 올리다

청산과 황각은 서로 떨어져 있어
도처에서 만나는 것도 또한 한때지요.
임학(林壑)을 이전부터 계획하셨는데
묘당 위에서 다시금 무엇을 하시렵니까.
연못에 비 지나도 용은 길이 잠 들고
솔 아래 구름이 와도 학은 모릅니다.
오륙년 사이에 기사(機事)를 다 버렸으니
모래밭 갈매기 가까이해도 의심치 않습니다.[10]

---

9) 사암은 삼당시인에게 당시(唐詩)를 가르친 박순(朴淳, 1523~1589)의 호이다. 화담 서경덕의 문인이며, 영의정을 지냈다.

10) 바닷가에 갈매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매일 아침 바닷가에나가서 갈매기들과 같이 놀았는데, 놀러 오는 갈매기가 백 마리도 넘었다. 어느날 그의 아버지가 말했다. "내가 들으니 갈매기가 모두 너와 더불어 논다는구나. 네가 한 마리만 잡아 오너라. 내 그걸 갖고 장난하고 싶으니." 그 다음날 바닷가에 나가 보니 갈매기들은 하늘에서 맴돌 뿐, 내려오지 않았다. -『열자(列子)』「황제」. 남을 해치려는 마음이 바로 기심(機心)이다.

115. 上思菴相公

青山黃閣兩支離 到處相逢亦一時
林壑以前曾有計 廟堂之上更何爲
潭心雨過龍長睡 松下雲來鶴不知
五六年間機事盡 近沙鷗鳥莫相疑

도중에 느낌이 있어

용천검이 칼집에서 슬피 우는데
시월 서풍에 귀밑머리 실이 되었네.
누른 잎 가득한 산에 가을 절은 황폐하고
흰 모래 이어진 물가 작은 다리 위태롭네.
외로운 돛단배 지나간 뒤에 천 봉우리 저물어 가고
필마로 떠날 때에 온갖 풀 시들었네.
쓸쓸한 옛집이 부질없이 꿈에 드니
엉킨 등덩굴 성긴 대나무 속에 띠집이 있었네.

116. 道中感懷

龍泉鳴吼匣中悲 十月西風兩鬢絲
黃葉滿山秋寺廢 白沙連渚小橋危
孤帆過後千峯夕 匹馬行時百草衰
牢落故居空入夢 亂藤疏竹有茅茨

구일에 중국으로 사신 가는 백종을 송별하며

노룡새[11]는 좌현왕[12]에 가까운데

관새 주변 사막의 느릅나무 잎새 모두 누렇구나.
요동 길 어렵지만 두려움 없으니
가생은 나이 어려도 문장이 새로웠지.
오만관 안에서 새해 책력을 보고
청해성 머리에서 고향을 바라보겠지.
나그네 되어 중양절 만나자 견딜 수 없어
향그런 국화 한 가지를 그대에게 드리네.

117. 九日 送伯宗朝天

盧龍塞近左賢王 關上沙榆葉盡黃
遼左路艱無戒懼 賈生年少更文章
烏蠻館裏看新曆 靑海城頭望故鄕
爲客不堪逢九日 寒花聊贈一枝香

청도 이씨 집 벽에 쓰다

남으로 온 지 몇 달 되도록 계획은 많이 어긋나고
계절은 물같이 흘러 벌써 구월일세.
여관에서 나뭇잎 지는 소리 견딜 수 없는데
저문 하늘 멀리 보니 흰 구름 날아가네.
모래 다리 차가운 물가에 기러기 내려앉고
마을 골목 참대 사립에 연기 피어나는데,
함께 온 시골 스님이 있어

11) 하북성 천안현 서북에 있는 지명인데, 노룡도(盧龍道)라고도 한다.
12) (흉노는) 그 대신(大臣) 가운데 귀한 자가 좌현왕이고, 그 다음이 좌곡리왕(左谷리王), 그 다음이 우현왕(右賢王), 그 다음이 우곡리왕(右谷리王)인데, 이들을 사각(四角)이라고 한다. -『후한서(後漢書)』「남흉노전(南匈奴傳)」.

병으로 신음하며 서쪽으로 돌아가겠다 말하네.

118. 題淸道李家壁

南來數月計多違 節序如流已授衣
旅舍不堪黃葉落 暮天遙望白雲飛
沙梁雁下寒江渚 門巷煙生苦竹扉
唯有同來野僧在 病吟相對說西歸

이화정에서 낙봉[13]의 시에 차운하다

나그네 길이라 봄놀이 가지 못함을 탄식하니
가득한 나무 짙은 그늘 푸른 빛으로 다락 에웠네.
꽃 피던 시절이 이미 지나 손에 넣을 수 없지만
즐기던 마음은 아직 남아 자주 고개를 돌리네.
높은 곳 오르면 늘 고향 생각 나고
멀리 보면 서울 떠난 시름이 다시금 더해지니,
번잡한 마음속 다 쏟아낼 계책도 있건만
시골술 사려고 해도 돈이 없어 부끄럽네.

119. 梨花亭 次駱峯韻

客行嗟未及春遊 滿樹濃陰翠擁樓
花事已空難入手 賞心猶左屢回頭
登高每結懷鄕念 望遠還添去國愁
瀉盡煩襟知有計 欲沽村酒愧無由

13) 낙봉은 신숙주의 손자인 신광한(申光漢, 1484~1555)의 호인데, 창경궁 옆 낙산(駱山)에 살았기 때문에 산 이름으로 호를 삼았다.

눈을 읊어 허주에게 드리다

어제는 구름이 얼어 그늘 어둡더니
새벽에 일어나 창을 여니 눈이 문을 막았습니다.
그 누가 파교[14]의 나귀 등에서 시흥을 일으키랴
산 주막에서 나그네 혼이 녹아질 듯합니다.
처음엔 말 가는대로 거친 들판 헤매다가
돌아가는 사람 따라오니 먼 마을이 어슴프레합니다.
다시금 생각해보니 관아에 일 없으시면
향그런 술 마주하게 불러주실 수 있으신지요.

110. 詠雪 奉呈虛舟
頑雲昨日凍陰昏 曉起開窓雪擁門
誰作灞橋驢背興 正銷山店客中魂
初隨去馬迷荒野 旅逐歸人暗遠村
更想郡齋無一事 可能呼酒對芳尊

홀로 앉아 봄날의 느낌을 허주에게 지어 드리다

무성한 녹음은 막막하고 해는 져서 어두운데
병든 나그네 봄을 타느라 홀로 문을 닫았습니다.
시름하며 앉았어도 활짝 피는 꽃 막을 수 없는데
늙어가며 날아갈 듯한 마음은 이제 없습니다.
노닐다보니 세상 일은 천 가지 변화가 많아

14) 장안을 흐르는 위수(渭水)의 지류가 파수(灞水)이고, 장안 동쪽 강 위에 있는 다리가 파교이다. 많은 시인들이 이 다리 위에서 나귀를 타고 헤어지며 시를 썼으므로, 뒷날에도 이별의 소재가 되었다.

외롭게 세월만 저버리고 할 말이 없습니다.
태수께선 정사에 맑아 아직도 흥이 있으시리니
기꺼이 저를 맞아 술잔을 채우실런지요.

111. 獨坐感春 呈虛舟

繁陰漠漠日沈昏 病客傷春獨閉門
愁坐不禁花爛熳 老來無復意飛飜
留連世事多千變 孤負年光欠一言
太守政淸還有興 肯將邀我酒盈尊

청원루에 오른 감회

산 고을 다락에 작은 연못을 눌러
저녁 바람이 연꽃 향기를 불어 보내네.
구름이 먼 숲에서 일어 산 기운 아름답고
강물이 평림을 둘러 물 기운 푸르구나.
천리 노닐던 것도 늙어가며 싫어지고
칠년 많은 어려움에 홀로 슬퍼 가슴 아팠지.
시 읊조리며 높은 난간에 오래 기대 섰노라니
나무에 가득 돌아오는 까마귀 석양이 가까워졌네.

112. 登淸遠樓感懷

山郡層樓壓小塘 晩風吹度芰荷香
雲生遠樹嵐光媚 江帶平林水氣蒼
千里倦遊成老大 七年多難獨悲傷
沈吟徙倚危闌久 滿樹歸鴉近夕陽

홍군서[15]와 작별하며

가림에서 헤어진 지 벌써 십년
해서에서 그대 모습 다시 만났네.
사귀던 사람 다 흩어져 많이 남지 않았으니
영락한 동학들의 안부를 물어보네.
지는 해, 내 낀 하늘에 떠나는 새까지 시름겨운데
옛 산 구름과 나무에 두견새는 원망스레 우네.
내일 아침 또다시 돌아갈 길 생각하니
두 곳에 그리워하는 마음, 서로 멍해 있을 테지.

113. 留別洪君瑞

一別嘉林已十年 重逢顔貌海西邊
交遊散盡無多在 同學飄零問幾全
落日煙空愁去鳥 故山雲木怨啼鵑
明朝又是懷歸路 兩地相思各惘然

서장관으로 떠나는 권원외를 송별하며

늘 직무에 충실한 원외(員外) 번신(藩臣)으로
요새(遼塞) 연산(燕山)에서 어려움 많으시겠지.
원외의 이 행차가 부지런히 산과 물 넘어
어느날 제경(帝京)에서 조서를 받드시랴.
오문의 청루(淸漏)는 청쇄문으로 이어지고
삼전(三殿)의 선향은 궁전을 둘렀으니,
일천 관원과 함께 축하하는 절을 하며

15) 1573년 생원시에 합격한 홍인상(洪麟祥, 1549~?)의 자가 군서(君瑞)임.

거룩하고 밝으신 천자의 만년 봄을 비소서.

114. 奉別權員外書狀之行

常脩職貢外藩臣 遼塞燕山多苦辛
員外此行勤跋涉 帝京何日奉絲綸
五門淸漏連淸瑣 三殿仙香繞紫宸
好與千官同拜賀 聖明天子萬年春

한호[16] 경홍과 헤어지며 지어 주다

서쪽 거리 귀퉁이에 윤씨네 별장이 있어
아무 때나 올 때마다 술잔을 잡았지.
한창이던 옛날은 꿈속 같으니
난리 만난 오늘은 더욱 처량하네.
몽당옷에 변방 바람과 서리 괴롭기만 하고
필마 탄 서울 길은 멀기만 한데,
지난 일 아득하여 물을 곳도 없으니
그대 보내며 어찌 눈물이 옷을 적시지 않겠소.

115. 贈別韓景洪濩

西街曲巷尹家庄 每到尋常把酒觴
全盛舊時如夢寐 亂離今日更凄涼
短衣關塞風霜苦 匹馬秦京道路長
往事悠悠問無處 送君安得不沾裳

16) 한호(韓濩, 1543~1605)는 조선시대 4대 명필 가운데 한 사람인데, 경홍은 자이고, 석봉(石峰)이라는 호로 널리 알려졌다. 그의 글씨가 널리 퍼져 사자관체(寫字官體)라고 했으며, 삼화군수를 지냈다.

강동에서 김기록을 만나 옛일을 이야기하다

원주 객관에서 옛날 오래 머물렀는데
손꼽아 헤어보니 지금 이십년일세.
근력이 쇠한 뒤부터 절로 슬퍼지고
명절이 되면 난리 전이 더욱 그리워지네.
타향 물색은 전쟁 중이고
고국 산하는 꿈속에 있는데,
이로부터 만나자 바로 이별이니
머리 돌리며 서글픈 마음 견딜 수 없네.

116. 江東 逢金基祿話舊
原州賓館昔留連 屈指于今二十年
筋力自嗟衰謝後 歲時長憶亂離前
他鄉物色干戈際 故國山河夢寐邊
從此相逢是相別 不堪回首意茫然

강동에서 군수 홍자경[17]에게 지어 주다

타다 남은 등불이 밝았다 다시 어두워지니
오늘 밤 시름겨운 사람은 잠도 편안치 않네.
오래 헤어지니 저절로 즐거운 뜻이 적고
멀리 노닐며 여정의 어려움을 두루 느끼네.
황량한 마을 달빛 어두운데 다듬이 소리 빨라지고
푸른 하늘에 서리가 깊어 기러기 그림자 차가운데,
요즘 병까지 많아져 몹시 여위었으니

17) 1585년 진사시에 합격한 홍여율(洪汝栗, 1563~?)의 자가 자경(子敬)이다.

옛 옷이 헐거워져 다시 입기 어렵네.

117. 江東 贈主倅洪子敬

缸花結燼明還翳 此夕愁人枕未安
久別自然歡意少 遠遊偏覺旅情難
荒村月黑砧聲急 碧落霜深雁影寒
多病近來消瘦甚 不堪重着故衣寬

백화산[18]에 오르다

서악(西嶽)이 하늘에 솟아 멀리 세속을 벗어나고
운대(雲臺)는 신선을 바라보며 멀리서 예를 차리네.
봉래 약수는 삼천리이고
서왕모의 반도(蟠桃)는 만년 봄일세.[19]
이제 가면 아득하여 정한 곳 없으니
지금까지 맑고 얕음을 누구에게 물어보랴.
어느 때에나 다시 맑은 기운을 타고
부상(扶桑)[20]과 약목(若木)[21] 나루를 두루 지나랴.

---

18) 경상북도 상주군 모동면에 있는 산인데, 932m이다. 정상에서 좌우 능선을 따라 20km 규모의 산성이 있다.

19) 7월 7일에 서왕모가 내려와서 선도복숭아 네 개를 무제(武帝)에게 주었다. 무제가 먹고나서 그 씨를 거둬 심으려 하자, 서왕모가 말했다. "이 복숭아는 삼천년에 한번 열매가 열립니다. 중하(中夏)는 땅이 척박해서 심어도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자 황제가 그만두게 하였다. -「무제내전(武帝內傳)」.

20) 동해에 있는 신목(神木)인데, 두 나무가 서로 부축하고 있어서 부상(扶桑)이라고 한다. 해 뜨는 곳을 가리킨다.

21) 남해 안 흑수(黑水)와 청수(靑水) 사이에 한 나무가 있는데, 약목이라고 한다. -『산해경』. 회야(灰野)의 산에 있는 나무인데, 잎은 파랗고 꽃은 붉다. 해가 들어가는 곳이다. 서쪽을 말한다. 원문의 수(水)는 잘못되

118. 登白華山

西嶽中天迥絶塵 雲臺遙禮望仙眞
蓬山弱水三千里 王母蟠桃一萬春
此去微茫無定所 向來淸淺問誰人
何當更御泠泠氣 遍歷扶桑若水津

정문부 영공의 시에 차운하다

떠나는 사람은 어디서나 이별의 시름 일고
강 나무는 바람 따라 잎을 다 흘리네.
요새는 멀고 먼데 산빛은 저물어
변방 구름이 기러기 소리를 높이 보내네.
세 해나 마경의 병을 안고 있으니
천리 밖에서 왕찬의 다락[22]에 다시 오르네.
서울 떠나 고향 생각 머리 돌려 바라보니
푸른 하늘 가없고 물만 유유히 흐르네.

119. 次鄭文孚令公韻

離人何處起離愁 江木隨風葉盡流
遼塞遙連山色晩 朔雲高送雁聲秋
三年尙抱馬卿病 千里還登王粲樓
去國懷鄕回首望 碧天無際水悠悠

었고, 목(木)이 맞다.

22) 왕찬은 중국 삼국시대 위나라 고평 사람인데, 박학다식한 데다 문장도 뛰어났다. 한나라 말기에 형주로 피난가서 유표(劉表)에게 몸을 의탁하고 지냈는데, 자기의 뜻을 펼 수 없으므로 다락에 올라가서 「등루부(登樓賦)」를 지었다. 원나라 때에는 「왕찬등루(王粲登樓)」라는 극까지 생겨났다.

선위사[23]로 가는 이아계[24]를 송별하며

문성[25]이 붉은 용의 머리[26]를 하직하니
궁궐의 갠 노을이 푸른 누각을 적시네요.
서리 내린 바닷가 밭 외로운 역은 동이 트는데
변방 나무에 잎새 흩날려 봉우리마다 가을입니다.
땅은 요동으로 이어지니 일찍 추워지고
강물은 평평히 흐르며 하늘에 떠 있네요.
나랏일 홀로 어질게 노력하시니
삭풍에 검은 갖옷이 다 떨어졌네요.

120. 奉送李鵝溪宣慰之行

文星辭下紫螭頭 鳳闕晴霞濕翠樓
霜落海田孤驛曉 葉飛關樹亂峯秋
地連遼左生寒早 江出夷中積氣浮
王事獨賢須努力 朔風吹弊黑貂裘

장률의 시에 차운하다

---

23) 외국에서 사신이 왔을 때에, 그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해 보내는 사신이다. 명나라 사신의 경우에는 의주·안주·평양·황주·개성의 다섯 군데에 선위사를 보냈는데, 중국 사신과 글을 주고받기 위해 문장 잘하는 2품 이상의 관원을 보냈다.

24) 시인 이산해(李山海, 1538~1609)의 호가 아계이다. 영의정을 지냈고, 시호는 문충(文忠)이다.

25) 문운(文運)을 좌우한다는 별 문창성(文昌星)인데, 이 시에서는 이산해를 가리킨다.

26) 비석의 머리나 궁전의 돌계단·종(鐘)·정(鼎) 따위에 뿔 없는 용의 머리 모양을 새긴 장식. 이수(螭首)라고도 한다.

돌벼랑 늙은 솔 바람 부는 연못에 기대 서니
솔바람 소리 서늘하여 멀리까지도 들리네.
골짜기 구름과 노을은 다시 검은 빛 되고
집마다 복사 살구꽃 아직도 붉게 취했네.
이따금 상자를 열면 책이 가득한데
홀로 숲속 스님과 짝해 자리에 함께 앉네.
이미 바위 정자를 마주해 시골 취미를 이루고는
해 비낀 칡넝쿨 길에서 나무꾼 이야기를 듣네.

121. 次長律韻

石崖松老倚風潭 陰籟泠泠響遠舍
一壑雲霞還黛色 萬家桃杏尙紅酣
時開道篋書長滿 獨伴林僧席共參
已向巖亭成野趣 日斜蘿逕聽樵談

풀려난 뒤에 하곡[27]에게 부치다

오색 난서(鸞書)를 붉은 구름에 내리셨으니
가을 되며 유배객도 기러기 무리 되었네.
살아 옛 마을에 돌아오니 전원은 황폐해져
새 무덤에 눈물로 절하며 나무와 풀을 베네.
외로운 달 새벽 산을 근심스레 바라보며
구천의 선루(仙漏)는 꿈속에서 듣네.
어느 때에야 삼청 길을 즐겁게 향해
다시 동황태일군[28]을 받들런지요.

27) 하곡은 허균의 형 허봉(許篈, 1551~1588)의 호인데, 병조판서 이이의 직무상 과실을 탄핵하여 갑산에 유배되었다가 1585년에 풀려났다.

122. 放赦後 寄荷谷

五色鸞書下紫雲 秋來遷客雁爲群
生還古里田園廢 泣拜新阡草樹分
孤月曉山愁裏對 九天仙漏夢中聞
何時好向三淸路 更奉東皇太一君

동지하례사로 가는 이백생[29]을 송별하며

팔월이라 변방 서리에 풀들이 누런데
사신의 수레 재촉하여 요양으로 떠나네.
모래 속 장성굴에서 말에게 물 먹이고
관새 밖 가을에 옛 싸움터를 지나시겠지.
만국 의관들이 함께 모이면
뭇 사람 언어가 나라마다 다르리라.
책력을 받아 동으로 돌아오는 날
문성이 바다를 비춰 길 가득 빛나리라.

123. 送李伯生賀至

八月邊霜塞草黃 使車催發上遼陽
沙中飮馬長城窟 關外經秋古戰場
萬國衣冠同此會 衆人言語各殊方
行頒寶曆東還日 照海文星滿路光

---

28) 도가(道家)의 신인데, 초나라 동쪽에 사당을 세우고 동제(東帝)로 모시므로 동황(東皇)이라고도 한다. 봄의 신이다.
29) 백생은 이순인(李純仁, 1533~1592)의 자인데, 호는 고담(孤潭)이다. 1587년에 동지사로 다녀왔으며, 도승지를 지냈다.

호숫가 절의 스님 시축에 쓰다

비 개인 아침에 비둘기들이 서로 따르며 불러
승방에서 일어나 보니 고즈넉하게 닫혀 있네.
깊은 절간 선객들은 정중(定中)에 앉아 있고
상방에 재가 끝나 불향(佛香)이 스러지네.
봄 산에 비 내리자 천궁과 순무 자라고
고향생각 삼경까지 꿈속에도 멀구나.
나의 스님과 다시 그윽한 약속 맺었지만
어느 때에야 광릉교를 다시 건너랴.

124. 題湖寺僧卷

晴鳩相逐喚終朝 睡起僧房掩寂寥
深院定中禪客坐 上方齋後佛香銷
春山一雨蘼蕪長 鄉國三更夢寐遙
更與吾師說幽約 幾時重渡廣陵橋

월정[30] 아상께

나그네 이불은 가을이라 밤 들며 더욱 차가워지는데
그윽한 집에 반딧불 몇 마리가 쓸쓸하게 넘나드네.
밝은 달빛은 뜨락 가득 서늘한 이슬에 젖고
푸른 하늘은 강물 같아 은하수 아득해라.
집 떠난 사람의 꿈은 끊어져 산 너머 산 겹겹이 막혔는데
궁궐 물시계 소리는 열두 다리에 남아 있구나.

30) 월정은 윤근수(尹根壽, 1537~1616)의 호인데, 좌찬성을 지냈다. 시호는 문정(文貞)이다.

가까운 곳에 계신 늙은 정승을 다시금 생각하지만
고귀한 집 앞의 행마는 구름과 하늘 저 너머 있네.

125. 上月汀[31]亞相

客衾秋氣夜迢迢 深屋流螢度寂寥
明月滿庭涼露濕 碧天如水絳河遙
離人夢斷千重嶺 禁漏聲殘十二橋
咫尺更懷東閣老 貴門行馬隔雲霄

중양절 황강에서

가을바람 잎새에 불어 나뭇잎 가지에서 떨어지는데
이 날 높은 곳에 오르니 세월이 느껴지네.
한 잔 들고 좋은 세월 마시고 싶어
억지로 병 많은 몸 일으켜 국화를 꺾네.
처사 도연명[32]은 돈이 없었고

31) 명나라 사람의 시 가운데 손곡은 하중묵(何仲默)을 으뜸으로 치고, 작은형님(허봉)은 이헌길(李獻吉)을 가장 위에 놓았다. 윤월정(尹月汀)은 이우린(李于麟)이 앞의 두 사람보다 뛰어나다고 하였으니, 그 낫고 못함을 정할 수가 없었다. 봉주(鳳洲)가 이렇게 말했다. "그 가락이 헌길은 높고 중묵은 시원하며 우린은 커서, 또한 누가 으뜸이고 누가 그 다음인지 말할 수가 없다." 손곡이 일찍이 율시 한 수를 꺼내어 월정에게 보여주며 말했다. "이것은 알려지지 않은 중묵의 시이다." 월정이 처음에는 참인지 거짓인지 깨닫지 못하다가, 곧 말했다. "이 시는 아주 맑으니, 그의 율시를 고르는 사람이 마땅히 빠뜨리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그의 시집에는 없으니) 이 시는 반드시 그대가 본떠서 지은 작품이다." 익지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속으로 웃고 있었다. 그 시는 이렇다. 글의 짜임새와 그 말투가 하대복(何大復)과 아주 비슷하다. 안목이 있는 사람이라도 또한 가려내기가 쉽지 않다. 이 시는 손곡이 윤월정에게 지어준 작품이다. - 허균『학산초담』28. 월정은 윤근수(尹根壽)의 호(號).

참군 맹가[33]는 바람에 모자 떨어졌지.
천년 풍류가 사라지지 않았건만
저문 하늘 머리 돌려 홀로 길이 탄식하네.

126. 九日黃岡

西風吹葉葉辭柯 此日登臨感歲華
欲把一杯酬令節 强扶多病折黃花
無錢處士陶彭澤 落帽參軍晉孟嘉
千載風流俱不泯 暮天回首獨長嗟

강선루[34]의 밤 희포

까마득한 붉은 난간이 푸른 성을 굽어보고
하늘 가득 북극성과 북두칠성에 밤 구름이 가볍네.
천리 밖에 이 몸은 얼마나 먼 지

32) 진나라 도연명이 9월 9일에 술이 없어 하릴없이 바라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사람이 오고 있었다. 다가온 뒤에 보니, 자사(刺史) 왕홍(王弘)이 보낸 술 심부름꾼이었다. 도연명은 즉시 따라 마시고 취했다.

33) 맹가의 자는 만년인데, 강하 사람이다. (줄임) 뒤에 환온(桓溫)의 참군이 되었는데, 그가 매우 소중이 여겼다. 9월 9일에 환온이 용산에서 잔치를 베풀어 막료들이 모두 모였는데, 이때 이들은 모두 융복(戎服)을 입고 있었다. 마침 바람이 불어서 맹가의 모자가 날려 떨어졌는데, 맹가는 그것도 모르고 있었다. 환온이 주위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하게 하고는, 그가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았다. 맹가가 한참 뒤에 측간에 가자, 환온이 주워 온 모자를 다시 가져다 놓게 하고는, 손성(孫盛)에게 맹가를 놀리는 글을 짓게 해서, 맹가가 앉았던 자리에 붙여 놓았다. 맹가가 돌아와서 읽어 보고 즉시 답장을 썼는데, 그 글이 매우 아름다워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놀랐다. -『진서』 권98「맹가」.

34) 성천에 있던 커다란 누각이다. 성천 객관인 동명관(東明館)은 규모가 377칸이나 될 정도로 컸는데, 31칸 규모의 강선루 외에도 통선관(通仙觀)·유선관(留仙觀) 등의 건물이 있었다.

십이봉 앞에 뜬 달이 너무 밝구나.
병이 많아 산골짜기에 살 꿈도 이루지 못하고
홀로 이곳에 와 강물 소리를 듣네.
신선 사는 다른 세상을 구할 필요 없으니
구산의 옥피리[35] 소리는 어디에 있나.

127. 降仙樓夜懷

迢遞朱闌俯碧城 滿天星斗夜雲輕
一千里外身何遠 十二峯前月正明
多病未能成峽夢 獨來猶自聽江聲
仙居不必求他界 何處緱山有玉笙

월정 대인께 부치다

하늘가에서 밥을 익히니 마침 청명절[36]인데
낯선 땅에 머물며 나그네 심정을 봅니다.
서울에서 두어 해 동안 소식이 끊어지고
이별하느라 한밤중 꿈속에서도 혼이 놀랍니다.

---

35) 왕자교(王子喬)는 주나라 영왕의 태자 진(晉)이다. 생황을 잘 불어 봉황의 울음소리를 내었다. 이수(伊水)와 낙수(洛水) 사이에서 노닐었는데, 도사 부구공이 그를 데리고 숭고산으로 올라갔다. 30여년 뒤에 (사람들이) 산 위에서 그를 찾았는데, (왕자교가) 백량 앞에 나타나 말하길, "7월 7일에 구씨산(緱氏山) 정상에서 나를 기다리라고 내 집에 알려 주게"라고 했다. 그날이 되자 (왕자교가) 과연 흰 학을 타고 산마루에 내려앉았다. (사람들은) 멀리서 그를 바라보았으며, 가까이 다가갈 수는 없었다. (왕자교는) 손을 들어 사람들과 이별하고 며칠 후에 떠났다. 나중에 구씨산 아래와 숭고산 정상에 (그를 위한) 사당을 세웠다. - 유향『열선전(列仙傳)』.

36) 청명 다음날이 한식이기에 '밥을 익혀 먹는다[熟食]'이라는 표현을 썼다.

높은 벼슬은 이미 훈신(勳臣)에게 돌아갔는데
조물주는 내게 훌륭한 이름까지도 꺼리시네요.
이제부터 봄바람 무한히 좋으리니
산 있으면 어디든 가서 밭 갈지 않겠습니까.

128. 奉寄月汀大人

天涯熟食適淸明 異地淹留見客情
京洛數年消息斷 別離中夜夢魂驚
高官已自歸勳業 造物終須忌盛名
從此春風無限好 有山何處不歸耕

평양 감회

일찍이 집 떠날 때 만들었던 옥가락지
취하여 붉은 치마 미인에게 맡겨졌네.
자리 같이한 벗들은 포사(鮑謝)를 능가하고
성에는 꽃과 버들 가득해 아름다운 강산일세.
그 당시 즐거운 일들 모두 봄날의 꿈이고
오늘은 영락해 괴로운 얼굴 뿐일세.
동으로 흐르는 물 향해 지난 일 묻고 싶지만
내 낀 나무로 새들 돌아오자 눈물만 흐르네.

129. 平壤感懷

離家曾製玉連環 醉倚紅粧間翠鬟
同席友朋凌鮑謝 滿城花柳好江山
當時行樂皆春夢 此日飄零但苦顔
欲向東流問往事 下江煙樹鳥飛還

입춘에 오체[37]로 짓다

강동 나그네 되어 입춘을 만나니
절물(節物)과 풍광이 사람을 시름겹게 하네.
소반에 생채를 먹을 수 없어
문 앞의 버들가지도 비웃는 듯하네.
아득한 서쪽 변방에 홀로 떨어진 몸
까마득한 남쪽 나라엔 병진(兵塵)이 많아,
종묘 사직을 중흥시킬 대신(大臣)이 있는지
서글피 바라보니 눈물이 옷을 적시네.

130. 立春 吳體

江東客裏逢立春 節物風光愁殺人
盤中生菜不可食 門前柳條還欲嚬
悠悠西塞獨身遠 杳杳南國多兵塵
中興宗社大臣在 悵望涕淚沾衣巾

나그네 시름

이 몸이 어찌 다시 동서를 따지랴
뿌리 뽑힌 쑥처럼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네.
한 집 살던 친지들 모두 다 흩어진 뒤에
타향에서 새해를 난리중에 맞이하네.
돌아가는 기러기는 천봉 눈 위로 그림자 지고
스러지는 호각 소리는 새벽바람을 타고 날리는데,

37) 시체(詩體)의 하나인데 시어가 통속적이고 비유가 가벼워, 오(吳)지방의 민요적 풍격이 있다.

성문 바깥길은 물길 구름속 서글퍼서
꽃다운 풀 볼수록 고향생각 끝없어라.

131. 客懷

此身那復計西東 到處悠悠逐轉蓬
同舍故人流落後 異鄕新歲亂離中
歸鴻影度千峯雪 殘角聲飛五夜風
惆悵水雲關外路 漸看芳草思無窮

근상인께 고마워하다

두메산골 새 집에 늙은 농부로 살며
논밭에서 공들인 것을 거두고 남기 원치 않네.
온갖 계책으로 살아보려 해도 상책이 없어
자주 시 지어 근심 없애려 글을 쓴다오.
맑은 가을 숲속에서 약 먹고 거닐며
비 온 뒤 시내 못가에서 고기 낚는 것을 보니,
오직 시골 스님만이 내 마음 아시고
요즘 어떻게 살아가는지 물으시네.

132. 謝勤上人

新家峽裏老農居 田圃收功不願餘
百計謀生無上策 數詩排悶有中書
秋晴林逕時行藥 雨後溪潭見釣魚
惟有野僧知我意 近來棲息問何如

평양 소윤 한중부[38]에게 지어 주다

관서지방엔 눈 들어도 사방에 친한 사람이 없어
그림자 돌아보니 내 한 몸 뿐일세.
왕찬은 돌아가지 못해 오래 나그네 되었고
마경은 병이 많아 본래 집이 가난했네.[39]
청운(靑雲) 가득한 길에 모두 새로운 귀족들인데
흰 머리로 다시 만나니 바로 옛 벗이라,
내년 이삼월까지 기다렸다가
옛 성에 내 낀 버들 패강의 봄을 가지려 하네.

133. 贈平壤少尹韓仲孚

西關擧目四無親 顧影依依只一身
王粲未歸爲客久 馬卿多病本家貧
靑雲滿路皆新貴 白首重逢是故人
待取明年二三月 古城煙柳浿江春

한식

아침 내내 비바람에 봄날 성이 어둑한데
제사 끝내고 돌아와 빗장 질러 문을 닫네.
한식 청명이라 삼월이 가까워지니
병든 시름 떠날 생각이 일시에 일어나네.

---

38) 중부(仲孚)는 한언침(韓彦忱, 1551~?)의 자인데, 1599년에 평양 서윤으로 부임하였다.

39) 문장가 사마상여(司馬相如)의 자가 장경(長卿)인데, 소갈증(消渴症)으로 고생했다. 요즘의 당뇨이다. 집이 가난해, 부잣집 딸인 과부 탁문군(卓文君)을 피리 소리로 유혹해 혼인하였다.

다리에 움트는 버들 새 빛을 더하고
동산 숲에 우는 새들 이미 소리 변하니,
흘러간 세월 물 같음을 비로소 깨닫고
저 흰 머리 천 가닥에 삶을 내맡기네.

134. 寒食

終朝風雨暗春城 祭罷歸來掩蔽扃
寒食淸明三月近 病愁離思一時生
官橋嫩柳新添色 園樹鳴禽已變聲
始覺流年同逝水 任他華髮白千莖

안주목사 김덕함[40]에게 부치다

작년 가지에서 올해도 꽃이 피네.
청명이 지나자 늙은 게 더욱 서글퍼라.
봄비 뒤라서 객사에는 새소리 더욱 맑고
저녁노을 아지랑이 산을 덮었네.
오솔길 찾아나서 새 풀섶 헤치다
누워서 앞산 보며 묵은 시를 고치네.
바다 같은 사또의 은덕 없었더라면
이 몸이 어찌 이런 즐거움 누리랴.

135. 寄安州牧使金德諴

今年花發去年枝 節過淸明老更悲
深院鳥聲春雨後 亂山嵐氣夕陽時

40) 김덕함(1562~1636)의 호는 성옹(醒翁)인데, 1610년에 안주목사로 있었다. 뒤에 대사헌까지 올랐다.

行尋小逕披新草 臥看前山改舊詩
不有使君恩似海 此身那得久於斯

새재를 넘다가 두견 울음을 듣고서

고개는 아득한데다 물소리까지 슬프기만 해서
나그네 남쪽으로 가려니 말 걸음도 느리기만 하네.
집 떠나 참으로 내 고향 그리웠으니
골짜기 들어와 두견 울음을 차마 들을 수 있으랴.
어느 산에서 구름 일어나는지 알 수 없는데다
달까지 질 무렵 두견 소리 더욱 괴로워라.
두보가 끝없이 가슴 아프던 시절
배주에 이르러 특별히 시를 지었었지.

136. 過鳥嶺 聞杜鵑有感
隴坂溫溫隴水悲 旅人南去馬行遲
辭家正欲懷吾土 入峽那堪聽子規
千嶂不分雲起處 數聲猶苦月沈時
杜陵無限傷心事 直到涪州別有詩

백마강에서 옛날을 생각하며

백제의 흥망은 세월 벌써 아득해
먼 구름과 지는 햇볕 속엔 고기잡이와 나무꾼 뿐일세.
산과 강의 그 패기는 모두 스러지고
시끌거리던 관청과 시장은 이미 적막해라.

궁전에서 임금님이 거나했을 저녁인데
아래 강엔 비바람 속에 조수만 밀려드네.
용이 백마[41]를 탐내어 천년 한이 되었건만
저 물가의 풀과 꽃들은 아무것도 모르겠지.

137. 白馬江懷古

百濟興亡歲月遙 斷雲殘照見漁樵
山河霸氣全消歇 朝市餘聲已寂寥
正殿君王驕醉夕 下江風雨滿歸潮
龍貪白馬千年恨 汀草汀花未解嘲

무제

아름다운 거문고 소리 합환상(合歡床)에 가늘게 들리고
소동방에는 홍전을 따뜻하게 깔았네.
진루에서 꿈 깨니 비취가 나뉘었고
상포에 해 져서 원앙이 끊겼네.
머리꽂이 보월은 명주로 엮었고
허리에는 상서로운 구름으로 금낭을 찼네.
기러기발 기둥에 열두 줄[42]이 비꼈는데

41) 호암(虎巖)에서 강물을 따라 남쪽으로 내려가다 부소산(扶蘇山) 아래에 이르면 한 괴석(怪石)이 강가에 걸터앉은 듯이 있는데, 바위 뒤에는 용(龍)이 발톱으로 할퀸 흔적이 있다. 전하는 말에 의하면 "소정방(蘇定方)이 백제를 칠 때에 강가에 이르러 물을 건너려고 하는데, 갑자기 비바람이 크게 일어났다. 백마(白馬)로 미끼를 만들어 용 한 마리를 낚자 곧바로 날이 개어, 드디어 군사가 강을 건너 공격하였다. 그래서 이 강을 백마강(白馬江)이라 부르고, 이 바위를 조룡대(釣龍臺)라 부른다"고 한다. -『신증동국여지승람』 제18권「부여현」조룡대.

42) 부현(傅玄)은 이렇게 말했다. "(쟁의) 위가 둥근 것은 하늘을 상징하

푸른 깁 안개같이 가을 향기를 가렸네.

138. 無題

瑤絃纖縷合懽床 暖壓紅錢小洞房
夢覺秦樓分翡翠 日沈湘浦斷鴛鴦
粧鈿寶月明珠綴 腰帶盤雲瑞錦囊
十二斜行金雁柱 碧紗如霧掩秋香

신계[43]에서 섣달 그믐밤을 보내며 운을 나누어 짓다

푸른 등 깜박이며 차가운 밤을 비추니
먼 곳 나그네 신세 흩날리는 낙엽 같구나.
고향 소식은 오는 날이 적어지고
타향의 산과 물은 갈 길이 멀기만 하네.
서릿바람 구슬프게 처마 끝에 울고
저녁 달 어슴프레 나무가지에 지네.
떠나는 사람만 쉽게 슬퍼할 뿐 아니라
사또께서도 오늘은 혼이 녹으시리.

139. 守歲新溪夜 分韻

靑燈明滅照寒宵 遠客身同落葉飄

고, 아래가 평평한 것은 땅을 상징한다. 가운데가 빈 것은 천지와 사방을 본받고, 줄과 기둥은 12달에 비겼으니, 이는 곧 인(仁)과 지(智)의 악기이다." -『삼국사기』 권32 「악(樂)」. 거문고의 줄은 12달을 뜻해 12줄인데, 거문고 판과 줄 사이에 기러기발을 끼워 움직이며 음을 조절하였다.

43) 황해도 중동부에 위치한 고을인데, 동쪽은 강원도 이천군, 서쪽은 황해도 서흥군, 남쪽은 평산군과 금천군, 북쪽은 수안군과 곡산군에 닿아 있다.

故國音書來日少 異鄕山水計程遙
霜風慽慽鳴簷角 昏月依依下樹梢
不啻離人易惆悵 使君於此亦魂銷

병들어 머물며 영성[44] 못가 나무에 쓰다

호남에서 머물다가 다시 호서로 오니
돌아갈 길 천 산이 꿈에 또한 아득하네.
요즘 모습은 시름 속에 병든 나그네
해 지난 소식 들으니 가난한 처에게 부끄럽네.
관하의 행색은 시초(詩草)나 보며
못가에서 맑은 가을에 약제(藥題)를 점검하니,
저녁이 다하도록 안부 묻는 사람도 없어
뜨락 나무에 맺힌 찬 이슬을 견디지 못하겠네.

140. 病滯 題寧城池樹
湖南留滯又湖西 歸路千山夢亦迷
近日形容愁病旅 經年消息愧貧妻
關河行色看詩草 池院秋晴檢藥題
盡夕無人來問我 不堪庭樹露凄凄

밤에 여강을 가는 감회

44) (천안은 고려) 충선왕 때 영주(寧州)로 이름을 고쳤다가, 공민왕 때 다시 천안부라고 하였다. 본조에 와서는 태종 13년(1413)에 영산군(寧山郡)으로 고쳤다가, 16년(1416)에 지금의 이름(천안)으로 고쳤다. -『신증동국여지승람』 제15권「천안군」.

서풍에 칼 짚고 서니 관로는 먼데
말 없이 홀로 가며 모래 다리를 지나네.
외로운 성의 피리 소리 강가 고을에 끊어지고
깊은 밤 찬 서리만 물가 마을에 가득하네.
술집에서 병든 사마는 예부터 피로해
약낭(藥囊)을 월인(越人)[45]의 처방으로 새로 지었네.
흐릿한 달 아래 다릿가 돌은
당시 제북에서 나던 자황(雌黃)[46]이 아닐런지.

141. 夜行驪江感懷

杖劍西風關路長 獨行無語過沙梁
孤城斷角鳴江郡 深夜寒霜滿水鄕
酒肆舊勞司馬疾 藥囊新撰越人方
依俙月下橋邊石 莫是當年濟北黃

무진년 청명절에 나와 노닐며

청명이라 마을에는 버들 실실이 늘어지고
나그네 한가한 행보를 말에 맡겨 지나가네.
방초 핀 들판 다리에 봄물이 흐르고
첩첩 산 강마을엔 석양빛 가득하네.
밭 갈던 농부는 숲에서 밥 먹으며 이야기하고
시냇가 여인은 밭에서 노래하며 뽕을 따네.
곳곳마다 전원에서 백성들은 일 즐기는데
요즘 정사가 옹졸해 세금만 재촉하네.

45) 전국시대 명의(名醫)인 편작(扁鵲)의 이름인데, 성은 진(秦)이다.
46) 약재의 하나인데, 화가들이 물감으로도 썼다.

142. 戊辰 晴明出遊

晴明門巷柳絲斜 客子閑行信馬過
芳草野橋春水在 亂山江郡夕陽多
耕夫就餉林間語 溪女條桑陌上歌
處處田原民樂業 近來官政拙催科

황정욱[47] 영공을 만나 헤어지며 지어 드리다

동릉에서 한번 헤어지며 눈이 얼마나 시리던지
중간 소식은 아득한 구름 끝이었지요.
오다가다 꿈속에서 자주 만났건만
술통 앞에서 만나고도 기쁨 다하지 못합니다.
아름다운 철이 한식을 지났다니 너무 놀라워
병든 몸에 나그네 어려움을 두루 느끼니,
내일 아침 관하에서 또 헤어지면
말 타고 가는 길에 방초만 우거졌겠지요.

143. 逢黃廷式令公贈別

一別東陵眼幾寒 中間消息杳雲端
尋常夢裏長相見 邂逅尊前不盡歡
佳節已驚寒食過 病身偏覺旅遊難
明朝又是關河別 芳草離離暎馬鞍

우연히 읊다

47) 황정욱(1532~1607)은 선조 때의 문신이자 시인이다. 호는 지천(芝川)이고, 시호는 문정(文貞)이다. 대제학과 병조판서를 역임했다.

나그네는 잠이 없어 추운 밤에 앉았는데
가난한 마을 사립들이 고즈넉하게 닫혔네.
계자(季子)는 멀리 노닐며 갖옷이 다 떨어졌고
사마장경은 병이 많아 귀밑머리 다시 쇠었지.
서리 친 바닷가 나무에 바람 소리 거세고
달빛 가득한 빈 창에 이슬 기운 많으니,
내일 증산으로 돌아가는 길에는
들판 다리 가을 풀들만 아득할 테지.

144. 偶吟

旅人無睡坐寒宵 窮巷柴扉閉寂寥
季子遠遊裘盡弊 馬卿多病鬢還凋
霜侵海樹風聲緊 月滿虛窓露氣饒
明日甑山歸去路 野橋秋草正迢迢

쌍부 상공의 광한루[48] 시에 차운하다

신선들이 바람 타고 푸른 다락에 내려오니
밤 향기 가볍게 옥비녀에 감도네.

48) 황공유(黃公有)가 1170년에 남원에 내려와 살기 시작한 자리에 후손들이 일재(逸齋)라는 서재를 지었는데, 양녕대군 폐출을 반대하다가 이곳에 유배되었던 후손 황희 정승이 그 자리에 광통루(廣通樓)라는 누각을 지었다. 1444년에 전라도관찰사 정인지가 중건하면서 그 아름다움을 월궁(月宮)에 비유하여 광한청허부(廣寒淸虛府)라고 부르면서 광한루라는 이름이 생겼다. 손곡이 본 광한루는 이 건물이다. 그뒤 정유재란에 불타버린 것을 여러 차례 다시 짓고 연못을 파서 오작교를 만들어 지금의 모양이 되었다. 광한루는 보물 281호이며, 그 앞에 영주각(瀛洲閣)을 비롯한 여러 건물을 포함하여 광한루원(廣寒樓苑)이라고 부른다.

법주 천 잔에 사람은 막 취하는데
예상곡[49] 한 무리는 끝나지 않네.
밝은 달이 하늘에 가득해 상계가 나눠지고
긴 바람 자리에 불어와 봄놀이를 다스리니,
삼청동부가 바로 여기인가
방사의 금단을 밖에서 구하지 않으리.

145. 次雙阜相公廣寒樓韻

仙侶飄然下翠樓 夜香輕泛玉搔頭
千杯法酒人初醉 一隊霓裳曲未收
明月滿天分上界 長風來席馭春遊
三淸洞府還疑此 方士金丹不外求

용성에서 옥봉의 시에 차운하다[50]

1.
여러 달 집을 떠나 소식 드문데
봄이 아쉬워 다시 송춘시(送春詩)를 짓네.

49) 예상(霓裳)은 당나라 때 월궁(月宮)의 음악을 본따서 만든 음악인 「예상우의곡」인데, 이 글에서는 달나라의 음악을 가리킨다. 『당일서(唐逸書)』에 이 음악을 지은 유래가 실려 있다. "나공원(羅公遠)이 비밀스런 기술을 많이 지녔는데, 한 번은 현종과 함께 월궁(月宮)에 이르렀다. 선녀 수백명이 모두 흰 비단으로 만든 예의 (霓衣, 무지개옷)를 입고 넓은 뜨락에서 춤을 추었는데, 그 곡의 이름을 물었더니 「예상우의곡」이라 하였다. 현종이 그 음조(音調)를 가만히 기억했다가 돌아와서, 이튿날 악공들을 불러다 그 음조에 따라 「예상우의곡」을 짓게 하였다."

50) 『백호일고』의 「용성수창(龍城酬唱」에 의하면 「차송암운(次松巖韻)」인데, 세 번째와 네 번째 시이다. 『옥봉집』에도 「차송암양사진(次松巖梁士眞)」이라고 했으니, 양대박이 먼저 지은 게 분명하다. '옥봉의 시에 차운했다'는 제목이 잘못되었다.

술잔 들고 남루가 좋아 오래 앉았노라니
은하수 더욱 깊어지고 북두는 옮겨갔네.
흩날리는 버들개지 지는 꽃은 정처 없으니
지겨운 여행 좋은 모임도 또한 동시일세.
서로 만났다 제각기 동서로 떠나가니
방초 우거져 생각 끝 없네.

146. 龍城[51] 次玉峯韻 1

數月離家音信稀 惜春還賦送春詩
杯尊坐久南樓好 河漢更深北斗移
飛絮落花無定處 倦遊良會亦同時
相逢各自東西去 芳草萋萋無限思

2.

맑은 시냇가엔 비가 온 뒤 작은 물결이 일어나고
수양버들 어둑어둑 강 언덕에 비껴 서 있네.
남으로 가는 길에서 한 동이 술로 취해 버렸는데
삼월의 동녘바람 벌써 많이 없어졌구나.
헤어지는 길목 곳곳마다 왕손의 봄풀은 푸르고
마을 거리 집집마다 탱자꽃이 가득 피었네.
하늘 끝까지 흘러와서 나그네 된 지 벌써 오래지만
한밤중의 고향 노래만은 차마 듣기 어려워라.

51) 1578년에 손곡이 옥봉 백광훈 및 백호 임제와 함께 남원 광한루에 올라가 놀았다. 술자리를 베풀고 임제가 먼저 율시 한 수를 지었다. (시 생략) 임제는 자기 마음대로 가(歌)자를 운으로 잡아 시를 짓고는, 다른 사람들을 당황케 하려고 한 것이다. 이달이 그 운을 그대로 받아서, 곧 한 수를 읊었다. (바로 위의 시(詩)이다. 이때 지은 시들은 홍만종이 지은 『소화시평』 권상에 실려 있다). 홍만종의 기록에 따른다면, 이 시의 제목을 「용성차백호운(龍城次白湖韻)」이라고 하는 것이 옳다. 그러나 백호의 원운이 아니라, 백호의 문집에 실렸을 뿐이다.

146. 龍城 次玉峯韻 2

淸溪雨後起微波 楊柳陰陰水岸斜
南陌一尊須盡醉 東風三月已無多
離程處處王孫草 門巷家家枳穀花
流落天涯爲客久 不堪中夜聽吳歌

권진사의 시에 차운하다

밤 기운 서늘하여 이슬 맺히고 내 끼는데
푸른 하늘 작은 누각 앞에 꽃 피고 달이 떴네.
처마와 기둥은 허무 속에 어슴푸레하고
생학(笙鶴)[52]이 아득한 곳에서 들리는 듯하네.
삼신산 신선이 하늘에서 내려오고
구천의 신선 술로 잔치에서 취했으니,
내일 아침 다시금 오늘밤 흥을 생각하면
뜬 세상 공명이 비로소 가엾어지리.

147. 次權進士韻

52) 왕자교(王子喬)는 주나라 영왕의 태자 진(晉)이다. 생황을 잘 불어 봉황의 울음소리를 내었다. 이수(伊水)와 낙수(洛水) 사이에서 노닐었는데, 도사 부구공이 그를 데리고 숭고산으로 올라갔다. 30여년 뒤에 (사람들이) 산 위에서 그를 찾았는데, (왕자교가) 백량 앞에 나타나 말하길, "7월 7일에 구씨산 정상에서 나를 기다리라고 내 집에 알려 주게"라고 했다. 그날이 되자 (왕자교가) 과연 흰 학을 타고 산마루에 내려앉았다. (사람들은) 멀리서 그를 바라보았으며, 가까이 다가갈 수는 없었다. (왕자교는) 손을 들어 사람들과 이별하고 며칠 후에 떠났다. 나중에 구씨산 아래와 숭고산 정상에 (그를 위한) 사당을 세웠다. - 유향『열선전(列仙傳)』. 생학(笙鶴)은 생황을 불어서 학의 울음소리를 내는 것을 가리킨다.

夜氣泠泠生露煙 碧空花月小樓前
簷楹怳若虛無裏 笙鶴如聞縹緲邊
三島眞人來上界 九天仙醴醉瓊筵
明朝却憶今宵興 浮世功名始可憐

성천에서 쓰다

봄 그늘 막막하고 눈이 추적추적 내리니
먼 곳 나그네 시름 많아 홀로 사립을 닫네.
해를 이은 전쟁에 정해진 계획 없고
한 몸 떠돌아다니니 다시 무엇을 의지하랴.
강 다리에 해 지니 다니는 사람 적고
들판 나무는 연기에 잠겨 떠나는 새 드무네.
멀리 고향 뒷산을 바라보니 애간장 끊어질 듯[53]
눈물이 옷 적신 것도 알지 못했네.

148. 成川題詠

春陰漠漠雪霏霏 遠客愁多獨掩扉
連歲甲兵無定計 一身漂泊更何依
江橋日落行人少 野樹煙沈鳥去稀
遙望故園腸欲斷 不知流淚已添衣

53) 환공(桓公)이 촉(蜀)에 들어가 삼협(三峽) 가운데 이르렀는데, 부하 가운데 어떤 사람이 원숭이 새끼를 잡았다. 그러자 그 어미 원숭이가 강 언덕을 따라 슬프게 울면서 쫓아오다가, 백여 리를 못 가서 드디어 배위로 뛰어내리다 그만 숨이 끊어졌다. 그 어미 원숭이의 배를 갈라서 그 속을 들여다보니, 창자가 마디마디 끊어져 있었다. 환공이 그 말을 듣고노하여, 그 사람을 내쫓으라고 명했다. -『세설신어(世說新語)』「출면(黜免)」.

기성에서 박생에게 지어 주다

낙양의 젊은이 가생같이
한번 웃고 서로 만나 소원함을 보이지 않았네.
협객과 노닐며 삼척검 들지 말고
선비를 좋아해 오거서를 읽게나.[54]
나그네로 관외에 떠돌아 다닌 지 오래인데
집은 서울에 있고 전쟁은 끝나지 않았네.
이 늙은이 어디에 머무는 지 찾으려거든
대동강 동쪽 밭두둑에서 나무꾼 고기잡이에게 물으시게나.

149. 箕城 贈朴生

洛陽年少賈生如 一笑相逢未見疏
遊俠莫提三尺劍 好儒須讀五車書
客來關外流離久 家在秦中喪亂餘
若訪老夫何處住 大江東畔問樵漁

54) 사내라면 모름지기 다섯 수레 책을 읽어야 한다. 男兒須讀五車書 - 두보.

손곡시집(蓀谷詩集) 권오(卷五)

오언절구(五言絶句)

이예장과 헤어지며

오동 꽃잎은 밤안개 속으로 떨어지고
바닷가 나무는 봄구름에 없어졌네.
풀밭에서 한 잔 술로 헤어지지만
세울 가는 길목에서 다시 만나겠지.

150. 別李禮長
桐花夜烟落 海樹春雲空
芳草一盃別 相逢京洛中

객사 다락에 올라

가을 하늘엔 한 조각 달
한밤중에 시름이 이네.
강남에 외로운 나그네 있으니
객사 다락엔 비치지 마소.

151. 登驛樓

一片秋天月 中宵生遠愁
江南有孤客 休照驛邊樓

매화 그림에다

늙은 등걸에 울퉁불퉁 혹이 달렸네.
차가운 향내로 매화인 줄 알겠구나.
간밤 눈서리 속에서도
오히려 한 가지에 꽃이 피었네.

152. 畵梅
擁腫古楂在 寒香知是梅
前宵霜雪裏 尙有一枝開

대나무 그림에다

커다란 대나무 반동강 났지만
앙상한 가지가 늙은 뿌리에서 나왔네.
지난번 가랑비에
몇 촉이나 새 가지를 키웠나.

153. 畵竹
脩竹半身折 疎枝生老根
從前烟雨裡 幾箇長兒孫

그림에 읊다

1.
산길에 가득 눈이 쌓이고
숲에는 우수수 낙엽이 흩날리네.
저 사람 집은 어디 있는지
날 저무는데 나뭇짐 지고 돌아가네.

154. 詠畵 六首
積雪滿山逕 蕭蕭林葉飛
渠家在何處 日暮擔樵歸

2.
비단 주머니를 차고[1]
동자가 산 노인을 따라 나서네.
수풀에선 서늘한 바람이 일어
온 산 풍경이 서늘하구나.

詠畵 六首 2
封着錦囊去 童子隨山翁
微凉起林葉 滿山風景中

3.
뱃머리에선 고기 잡는 그물 내리고
배 고물에선 노가 바위와 부딪치네.

---

1) 당나라 시인 이하(李賀)가 밖에 나갈 때마다 말을 타고서 종에게 낡은 비단 주머니를 들려서 따라오게 한 다음, 좋은 시 구절이 떠오를 때마다 써서 주머니에 넣었다.

어느새 해는 저물어
강 안개가 푸른 벼랑을 잠기게 하네.

詠畵 六首 3
船頭下魚罾 船尾櫓激石
不知日早晩 江煙沈翠壁

4.
강가 나무들 녹음이 우거졌는데
나귀를 타고 강길 따라 가네.
고깃배는 어디로 가는지
날 저문데다 물결까지 이네.

詠畵 六首 4
江樹濃陰合 騎驢江上行
漁舟向何處 日暮風浪生

5.
간밤에 첫 서리 두텁게 내려
나뭇잎 지는 강물 차갑기만 해라.
뱃사공은 가을빛 바라보며
노를 든 채 여울을 내려가누나.

詠畵 六首 5
新霜昨夜重 木落江水寒
舟人望秋色 持楫下危灘

6.

초가집 처마 대숲에 눈이 덮이니
인적 드문 마을길 희미하기만 해라.
아마도 이 집에 시인이 살고 있을 텐데
날이 추워 사립문도 열지 않았네.

詠畵 六首 6
雪壓茅簷竹 人稀村逕微
定是詩人住 天寒不啓扉

최국보[2]의 체를 본받아

1.
새벽빛은 산호자리에 감돌아들고
봄추위는 비취빛 구슬발에 스며드네.
온갖 꽃들 핀 속으로 돌아오다가
향그런 이슬에 옷자락이 흠뻑 젖었네.

155. 效崔國輔體四時 四首 1
曉色珊瑚薦 春寒翡翠簾
歸來百花裏 香露滿衣霑

2) 최국보는 당나라 때의 시인인데, 오군(吳郡) 사람이다. 시를 잘 지어 집현직학사(集賢直學士)와 예부원외시랑(禮部員外侍郞)에 올랐지만, 그의 시집은 지금 남아 있지 않다. 『당시품휘(唐詩品彙)』에 그의 시가 많이 실려 있는데, 은번은 평하기를 "국보의 시는 아름답고도 청초해서, 깊이 읊어볼 만하다. 악부(樂府) 몇 장은 옛사람들도 따라올 수가 없다"고 하였다. 화려하고도 환상적인 최국보의 시를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여, 오랫동안 많은 시인들이 이를 모방하여 지었다. 이 시에 쓰인 어휘들도 귀족적이고 여성적이다.

2.
장미덩굴 가지마다 이슬이 젖고
육두구 꽃잎마다 향내가 스몄네.
하얀 평상 위에 여름날이 길기만 해서
맑은 우물에 띄운 참외를 찾아오네.

露濕薔薇架 香凝荳蔻花
銀床夏日永 金井索浮瓜

3.
옥계단엔 서릿기운 차갑게 내리고
금누각엔 반딧불이 이따금 날아드네.
고요한 밤 한가로워 아무도 없고
오동잎에 맑은 이슬만 방울져 떨어지네.

玉階霜氣寒 金閣疏螢度
靜夜閑無人 梧桐滴淸露

4.
비단장막을 치고도 추위가 겁나
금병풍을 둘러쳐 앵무새를 감쌌네.
창 사이로 시녀 아이를 찾노라니
향로에선 향 연기가 피어오르네.

繡幕怯寒威 金屛護鸚鵡
窓間覓侍兒 寶篆生香縷

방림역[3]

시냇물 다리 위로 저녁 햇살 내리는데
낙엽은 가을길을 가득 채웠네.
쓸쓸한 나그넷길 외롭기만 한데
차가운 시냇물에 그림자 떨구며 말이 건너가네.

156. 芳林驛
西陽下溪橋 落葉滿秋逕
蕭蕭客行孤 馬渡寒溪影

학 그림

외로운 학 한 마리 먼 하늘을 바라보며
밤도 차가운데 한 발을 들고 섰네.
서녘 바람이 차갑게 대나무 숲에 불어와
몸에는 가을 이슬로 가득 적셨구나.

157. 畵鶴
獨鶴望遙空 夜寒擧一足
西風苦竹叢 滿身秋露滴

그대를 보내고서

오월이라 앵두가 익고

3) 방림역은 대관령 서쪽에 있다. 강릉에서 170리 되는 곳이다.

산마다 소쩍새가 우네.
그대를 보내고서 부질없이 눈물 흐르는데
꽃과 풀들은 저마다 무성키만 해라.

158. 送人
五月櫻桃熟 千山蜀魄啼
送君空有淚 芳草又萋萋

율곡 시에 차운하여 스님의 시축에 쓰다

자던 백로가 가을 모래밭에 내리고
저물녘 매미는 강가 나무에 우네.
배 돌아오니 흰 마름에 바람 불고
꿈에도 서편 못[4]에는 비가 내리네.

159. 次栗谷韻題僧軸
宿鷺下秋沙 晩蟬鳴江樹
歸舟白蘋風 夢落西潭雨

주인의 벽에 장난삼아 쓰다

가을 달이 동방을 비추고
가을 벌레는 벽 가까이서 우네.
무산 신녀가 양대에 내려오니
가던 구름 아득히 자취 없구나.[5]

4) 서편 못[서담(西潭)]은 한때 손곡이 살았던 서담이다.

160. 戲題主人壁

秋月照洞房 秋虫啼近壁
神女下陽臺 行雲杳無跡

김취면의 산수화 병풍에 쓰다

1.
구름 자욱해 산은 천 개의 점이고
안개에 잠겨 물은 하나의 흔적일세.
고깃배가 노 젓다가 길을 잃었으니
여기가 바로 무릉도원 아니던가.

161. 題金醉眠山水障子面 四首

雲暗山千點 煙沈水一痕
漁舟迷去棹 莫是武陵源

2.
먼 강언덕에는 저녁 아지랑이 오르고
차가운 강 위에는 흰 물결 일어나네.
배를 대고서 사람은 뵈지 않으니
술 사러 어부 집에라도 들어간게지.

---

5) 옛날 초나라 회왕(懷王)이 일찍이 고당(高唐)에 놀러 갔는데, 피곤해서 낮잠을 잤다. 꿈속에 한 부인이 나타나서 말하였다. "첩은 무산의 여신인데, 고당에 놀러 왔습니다. 임금께서도 고당에 놀러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기에, 잠자리를 모시고 싶습니다." 회왕이 그를 사랑하였는데, 선녀가 떠나가면서 말하였다. "첩은 무산(巫山)의 남쪽, 고구(高丘)의 험준한 곳에 있습니다. 아침에는 구름이 되었다가, 저녁에는 비가 됩니다." - 송옥(宋玉) 「고당부(高唐賦)」.

遠岸起暮靄 寒江生白波
泊舟人不見 買酒入漁家

3.
자주빛 안개옷을 입고 학을 타셨네.
바람에 나부끼는 옛 신선이여.
구름 속으로 들어가 아득한데
하늘 바람은 그치지 않고 불어오네.

鶴上紫煙衣 飄飄古仙子
去入雲冥冥 天風吹不已

4.
시냇물은 졸졸 흐르고
산 바람에 솔방울 떨어지네.
그 가운데 세상을 피해 숨은 사람 있어
이끼 낀 바위에 앉아 거문고를 타네.

古澗水冷冷 山風松子落
中有隱世人 援琴坐苔石

헤어지는 마음

한(恨)은 정향나무에 맺히고
티끌이 비취빛 치마에 이네.
바라건대 강가의 돌이 되어
날마다 님 오시기를 기다리리라.[6]

162. 別意

恨結丁香樹 塵生翡翠裙
願爲江上石 日日望夫君

배 위에서 니환과 헤어지며 차운하다

앞으로 산골짜기 길 바라보다가
머리 돌려 강가 다락을 보네.
겨우 지척 땅으로 나뉘었건만
벌써 꿈속에서 노닌 것 같네.

163. 舟上別泥丸次韻

前望峽中路 回看江上樓
纔分咫尺地 已似夢中遊

그림

뱃전 두드리며 어디로 가는 나그네인가.
산음으로 술 싣고 가는 배라네.
아무도 하지장 노인을 알아보지 못하네.
집이 경호[7] 가에 있는데도.

---

6) 중국 호북성 무창 북산에 망부석(望夫石)이 있다. 옛날 어느 열녀가 국난에 징병되어 간 남편을 북산에 올라가 날마다 바라보다가 그대로 돌이 되었다고 한다.

7) 사명광객(四明狂客)이라는 호로 널리 알려진 산음 출신의 당나라 시인 하지장은 술을 좋아해, 이백·장욱 등과 함께 음중팔선(飮中八仙)으로 불렸다. 86세에 태상박사 벼슬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가자, 현종이 감호

164. 晝

何處鳴榔客 山陰載酒船
無人識賀老 家在鏡湖邊

가림[8]에서 안생과 헤어지다

산이 가까워 저녁 그늘 짙게 깔렸는데
날이 저물자 가을 기운 더욱 서글퍼라.
내일 아침 백제땅 가는 길에 오르면
뒤돌아보며 그리워하겠지.

165. 嘉林 別安生

山近夕陰重 日西秋氣悲
明朝百濟路 回首是相思

금강에서 정자신과 헤어지다

한 그루 팥배나무 잎
바람에 불려 뜰에 가득 떨어졌네.
날이 밝으면 금강으로 떠나야겠기에
푸르른 저녁 산을 시름겹게 바라보네.

(鑑湖) 일부를 경호(鏡湖)라는 이름으로 고쳐서 그에게 하사하였다.

8) 가림은 본래 백제시대에 가림군(加林郡)이었는데, 고려시대에는 가림현(嘉林縣)이 되었다가, 조선시대에는 임천군(林川郡)의 한 부분이 되었다. 지금은 부여군의 한 면이다.

166. 錦江別鄭子愼

一樹棠梨葉 風吹落滿庭
明朝錦江水 愁對暮山靑

유서경[9]에게 바치다

먼 하늘 해가 서산에 내리니
넓은 들에 나무들 잠겨듭니다.
언제나 이별하는 사이에 있어
사람에게 불우함을 탄식케 합니다.

167. 上柳西坰

遙空日下山 曠野沈沈樹
每在別離間 令人嘆不遇

그림에 쓰다

1.
영감과 할멈 둘이 서로 신나서
봄이 오자 밭갈기를 일삼네.
높직한 수레 타고 다니는 사람들
농사집 즐거움을 그 누가 알랴.

168. 題畵 二首

9) 서경은 유근(柳根, 1549~1627)의 호인데, 벼슬은 대제학에 좌찬성을 역임하였다.

翁婦相欣欣 春來事耕作
高車駟馬人 誰識田家樂

2.
산 속 시냇가에서 나무를 하다
산자락 바위에 앉아 어깨를 쉬네.
아득히 고향 산을 바라보느라
산 너머로 해 지는 것도 알지 못하네.

采樵山澗中 息肩山邊石
遙遙望家山 不知山日夕

안주 시골집에서 자다

산길마다 눈이 쌓이고
바닷가 마을에는 외로운 연기 오르네.
길 가던 나그네 투숙하려 하자
남은 햇볕이 어느새 황혼일세.

169. 宿安州村舍
積雪千山路 孤煙一水村
行人欲投宿 殘日已黃昏

김이옥[10]과 만났다 헤어지며

10) 자나 이름이 이옥(爾玉)인 김씨는 확인되지 않는다. 초고에서 '새(璽)'자를 '이옥(爾玉)'으로 읽고 조판했을 가능성도 있다. 김새(金璽, 1610~?)

마을 골목길 구불구불 끝나는 곳에
옛 관아 옆에 사립문 있네.
서로 만나도 어찌 이리 바쁜지
이야기하다 헤어지니 벌써 해가 지네.

170. 逢金爾玉別
曲巷逶迤盡 柴門古縣傍
相逢何草草 話別已西陽

그림에 쓰다

1.
늙은 나무는 벌써 잎 다 떨어지고
산마을에는 가을 강물만 흘러가네.
배 대어놓고 사공이 홀로 잠들자
저녁노을 속에 물결만 이네.

171. 題畵 四首 1
古木葉已盡 山村秋水空
艤船人獨宿 風浪夕陽中

2.
늙은 나무에는 매화꽃이 피고
긴 대숲에선 바람이 우네.
산골 사람이 눈 밟고 와서
시 구절을 깊게 읊조리네.

는 광주 김씨인데, 1639년 진사시에 합격하였다.

老樹梅花發 風鳴脩竹林
山人踏雪至 詩句自長吟

3.
산골짜기에는 봄구름이 따뜻하고
산자락엔 봄날이 길기도 해라
대나무 아래에서 이따금 술잔을 기울이다가
함께 가서 꽃가지를 구경도 하네.

山洞春雲煖 山闌春日遲
時傾竹下酌 同去看花枝

4.
나귀 타고 다리를 건너 가니
낙엽 진 가을 산이 텅 비었네.
해가 이른지 늦은지 알 수 없으니
내와 아지랑이가 흩날리는 폭포 가운데 있네.

騎驢渡橋去 葉落秋山空
不知日早晩 煙嵐飛瀑中

차운하다

어려움 속에 지내면서도 늘 즐거운 것 같고
가난 속에 살면서도 언제나 편안하구나.
한식날 봄바람 맞으며 눈물 흘렸지만
옷자락 가득 적시는 것도 깨닫지 못했네.

172. 次韻

處困常歡若 居貧每晏如
東風寒食淚 不覺滿衣裾

그대와 헤어지며

1.
지친 나그네가 황강 길을 가느라고
이 좋은 명절 단오날까지 잊어버렸네.
서로 만났다가 바쁘게 헤어지니
우리 모두가 난리 속을 헤매이는 사람들일세.

173. 贈人 1

倦客黃岡路 端陽負令辰
相逢草草別 俱是亂離人

2.
새가 나는 하늘 끝엔 아지랑이 뿌옇고
멀리 뵈는 산봉우리는 구름 너머로 푸르네.
전쟁은 남쪽에서 아직도 한창인데
헤어지자고 말하려니 눈물부터 쏟아지네.

贈人 2

遠靄鳥邊白 遙岑雲外靑
干戈國南徼 欲語淚先零

김열경[11]의 사진첩에 쓰다

열경의 도(道) 높은 아래
남긴 모습이 선림에 있네.
한 조각 물속의 달빛이고
천추의 쇠북 소리일세.

174. 題金悅卿寫眞帖
悅卿道高下 留影在禪林
一片水中月 千秋鍾梵音

화첩에 쓰다

그늘진 벼랑에 옛 역이 있어
나그네들 밤이면 투숙하네.
개는 흰 구름 속에서 짖고
동자가 산골짜기 내려가네.

175. 題畫帖
陰崖古驛存 行人夜投宿
犬吠白雲中 童子下山谷

윤서중의 시에 차운하다

11) 열경(悅卿)은 생육신의 한 사람이자 『금오신화』의 저자인 김시습(金時習, 1435~1493)의 자이다. 호는 매월당(梅月堂), 또는 동봉(東峰)이다. 사진첩은 초상화인데, 김시습이 그린 자화상과 또 다른 초상화가 널리 전해졌다.

서울 와서 떠도는 나그네여.
구름 낀 산 어느 곳이 그대 집이던가.
가냘픈 연기가 대숲길에 피어오르고
보슬비에 등꽃 지는 그곳이라오.

176. 次尹恕中韻
京洛旅遊客 雲山何處家
疎煙生竹徑 細雨落藤花

김양송의 화첩에 쓰다

한 줄 두 줄 나는 기러기,
만 점 천 점의 산.
삼강 칠택[12]의 바깥,
동정호와 소상강 사이일세.

177. 題金養松畵帖
一行兩行雁 萬點千點山
三江七澤外 洞庭瀟湘間

불일암[13]에서 인운 스님에게 지어 주다

12) 삼강은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대부분 중국 남쪽에 있는 강들이다. 이백이나 육유의 시에 '삼강(三江) 칠택(七澤)'이 나오는데, 특별한 강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모든 강과 못을 두루 이르는 말로 쓰였다.
13) 지리산 쌍계사에서 동쪽 고개를 넘으면 불일암이란 암자가 있는데, 이곳인지는 확실치 않다.

산이 흰 구름 속에 있어
흰 구름을 중은 쓸지 않네.
나그네가 왔기에 비로소 문 열고 보니
골짜기마다 솔꽃 가루만 흩날리네.

178. 佛日庵 贈因雲釋
山在白雲中 白雲僧不掃
客來門始開 萬壑松花老

풍악의 맑은 구름[14]

창창한 골짜기 산
위에는 푸른 단풍나무가 있네.
때로는 맑은 구름이 일다가
갑자기 산머리에 비가 되네.

179. 楓岳晴雲
蒼蒼谷口山 上有青楓樹
有時起晴雲 忽作山頭雨

평탄한 모래밭의 새벽 달

산 달이 시냇가 모래를 비춰

14) 이 시부터 「날 저문 포구에 돌아오는 돛배 [모포귀범(暮浦歸帆)]」까지 9수는 「만취정십영(晩翠亭十詠)」이다. 고경명·임제·양대박 등이 같은 제목으로 지었는데, 1수가 빠졌다.

새벽빛 밝기가 비단 같구나.
다니는 사람 하나도 없고
홀로 외발 백로가 있네.

180. 平沙曉月
山月照溪沙 曙色明如素
不復有人行 獨有聯拳鷺

선연의 시골 등불

교목이 가시나무를 가리고
물 건너 마을엔 등불도 적네.
가을 베틀이 세금 독촉을 받아
산 달이 밝은 줄 알지 못했네.

181. 鐏淵村燈
喬木翳荊榛 隔水村燈小
秋機及催科 不知山月曉

주막집 가을 다듬이 소리

산밭에서 가을 벼를 베는데
구름 낀 봉우리에 주막이 앉혀 있네.
시아비와 시어미 밤중에 다듬이질
달 아래 그 소리가 멀리까지 들리네.

182. 新店秋砧
秋禾刈山田 草店依雲巘
翁姑事夜砧 月下聲近遠

연못에 내리는 밤비

밤비 가을 연못에 넘쳐
가을 연꽃 거의 다 죽었네.
쓸쓸히 연잎에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에
원앙새들 잠들었다가 놀라서 일어나네.

183. 蓮塘夜雨
夜雨漲秋池 秋荷太多死
蕭蕭葉上聲 驚起鴛鴦睡

무학산의 저녁 기운

아지랑이 같은데 아지랑이 아니고
연기 같은데 연기도 아닐세.
산에 해 지는 저녁에 볼 때마다
공중의 푸르름이 산 앞에 가득하네.

184. 舞鶴暮嵐
似靄還非靄 如煙不是煙
每看山日夕 空翠滿山前

남산의 동백

눈 속에서 구름 비단 헤치고
연기 속에 어여쁘게 단장했네.
어찌 소나무나 잣나무같이
얼음과 서리 속에 오만하게 홀로 섰나.

185. 南山冬柏
雪裏披雲錦 煙中傳艷粧
何如松柏樹 獨立傲氷霜

쌍정의 납량

두 그루 나무 짙은 그늘이 합쳐져
옷깃 펼치고 먼 바람을 받네.
그 누가 알랴! 새벽에 도착한 나그네[15]
갈림길에서 땀 씻을 줄이야.

186. 雙亭納涼
雙樹濃陰合 開襟納遠風
誰知當曙客 揮汗路岐中

날 저문 포구에 돌아오는 돛단배

15) 규장각본에는 '당서객(當暑客)'으로 되어 있다. '더위 맞은 나그네'라는 뜻이다.

포구에 돛단배 편안하게 들어오고
강에는 물결도 일지 않네.
아무쪼록 안전한 곳에 배를 대게나
산 밖에 밤바람이 많이 분다네.

187. 暮浦歸帆
浦口帆歸穩 江中水不波
須從安處泊 山外夜風多

육언절구(六言絶句)

무제

1.
푸른 버드나무 긴 가지 짧은 가지에서
꾀꼬리는 백 번 울고 천 번 우네.
아로새긴 창 수놓은 문은 깊이 닫혀 있어
원망 어린 뺨 시름 가득한 눈썹을 혼자만 아네.

188. 無題 二首 1
黃鳥百囀千囀 綠楊長枝短枝
彫窓綉戶深掩 淚臉愁眉獨知

2.
곳곳에서 말 발자국을 자주 부딪쳐
가는 곳마다 수레 먼지를 피하네.

서울 거리엔 꽃과 버들
반쯤은 고관과 귀인의 행렬일세.

188. 無題 二首 2
處處多逢馬跡 行行且避車塵
長安陌上花柳 半是高官貴人

유총융[16]에게 지어 바치다

호절(虎節)의 소식을 못 들은 지 오래니
변성의 소식이 드물게 왔소.
북의 기러기 봄이라 다 돌아가는데
어느 곳에 글 전할 지 알 수가 없네.

189. 奉呈柳摠戎
虎節音容別久 邊城消息來疏
北雁春歸欲盡 不知何處通書

한서장관과 헤어지다

노룡새[17] 길을 지나다가
밀성 강가 다락에서 서로 만났네.
늘어진 버들 꺾어주며 헤어지려니

16) 총융은 5군영의 하나인 총융청의 주장인 종2품 총융사를 가리킨다. 유총융은 손곡의 제자이자 후원자인 유형(1566~1615)이다.
17) 하북성 천안현 서북에 있는 지명인데, 노룡도(盧龍道)라고도 한다.

갈림길에 이별 시름 끊이지 않네.

190. 別韓書狀
路經盧龍塞上 相逢密城江樓
折手垂柳欲別 臨分脈脈離愁

기생에게 부치다

손가락 아래 가을 물소리 찰랑거리고
구름 사이로 가느단 노래 들려오네.
먼 하늘에 홀로 새가 날아가고
땅에 가득 떨어진 꽃잎 불려왔네.

191. 寄妓生
指下冷冷秋水 雲間裊裊纖歌
遙空獨去飛鳥 滿地吹來落花

황주에서 신자방[18]에게 부치다

가을[19]에 글을 보내 양식을 구걸하며
황주에서 나그네 되어 많은 날을 지냈소.
서로 만나 바쁘게 웃고 말하지만
또다시 아득하게 헤어져야 한다오.

---

18) 1582년 생원시에 합격한 신응구(申應榘, 1553~?)의 자가 자방이다.
19) 원문의 백제(白帝)는 가을을 맡은 신, 또는 서방의 신인데, 가을을 뜻하기도 한다.

192. 黃州 寄申子方

白帝飛書乞粟 黃州作客多時
相逢草草談笑 還是悠悠別離

무제

1.
지는 해 외로운 구름 홀로 나는 새
앞마을 고목에는 차가운 연기.
사는 사람 모두들 큰 길 떠나고
잠자는 나그네만 물가 밭을 찾아가네.

193. 無題 二首

落日孤雲獨鳥 前村古木寒烟
居人去盡官道 宿客行尋渚田

2.
먼 하늘 구름 밖으로 새는 날아가고
외나무 다리 가에 사람이 지나가네.
처마에는 잔설이 은은히 비치는데
마을 골목에 찬 연기 어렴풋하네.

去鳥遙空雲外 行人獨木橋邊
茅簷隱映殘雪 門巷依俙冷烟

손곡시집(蓀谷詩集) 권육(卷六)

칠언절구(七言絶句)

장신궁[1] 사계절 노래

1.
별당에 사람 없고 버들가지만 나란한데
아침에 관아 극문[2] 서쪽에서 흩어졌네.
단청한 대들보 동쪽에 쌍으로 나는 제비
예전같이 봄바람에 옛 둥지를 찾는구나.

194. 長信宮四時詞
別院無人楊柳齊 早衙初散戟門西
畫梁東角雙飛燕 依舊春風覓故棲

2.
용여가 건장궁[3]에 새로 행차하시니
십부의 생황 노래 소리가 후원에서 들려오네.

---

1) 한나라 때에 황태후가 있던 궁궐이다.
2) 창(槍, 戟)을 꽂아 만든 문인데, 원래 제왕이 외출하여 묵는 곳에 만든 문이다. 뒤에 신분이 귀한 집이나 높은 관청의 문에도 창을 꽂았다.
3) (한나라 무제 때에 백량대가 불타자) 건장궁을 지었다. 그 규모가 천문만호(千門萬戶)였고, 전전(前殿)이 미앙궁보다도 높았다. -『사기(史記)』 권12「효무본기(孝武本紀)」. 건장궁은 장안현 서쪽 20여리에 있었다.

깊은 집에 푸른 이끼 사람은 아니 뵈고
석류꽃만 굽은 난간 동쪽에 비치는구나.

龍輿新幸建章宮 十部笙歌後苑中
深院綠苔人不見 石榴花映曲闌東

3.
옥충[4]이 스러지자 등불이 어둡고
육곡 금병풍 오색 노을에 기대었네.
하룻밤 서궁에 비바람 급하자
새벽에 붉은 잎이 뜨락에 가득하네.

玉蟲銷盡暗缸花 六曲金屛倚彩霞
一夜西宮風雨急 滿庭紅葉曉來多

4.
후원 나무의 갈가마귀 얼어서 날지 못하고
옥로에 향 넣으니 구불구불 연기 오르네.
임금께선 일찍이 통명전에 납시려고
궁녀더러 어의(御衣)를 진상하라 재촉하시네.

苑樹寒鴉凍不飛 玉爐添炷篆煙霏
君王早御通明殿 宮女催呼進尙衣

평조 사계절 노래

---

4) 불꽃이다. 당나라 시인 한유가 「등화시(燈花詩)」에서 불꽃을 옥충(玉蟲)이라고 하였다.

봄

문 앞 골목이 청명해서 제비들 날아들고
안개같은 푸른 버들은 누대를 가리웠네.
함께 타던 친구와 그네에서 뛰어내려
꽃밭으로 와서 풀뜯기 내기를 하네.

195. 平調四時詞 1
門巷淸明燕子來 綠楊如霧掩樓臺
同隨如伴鞦韆下 更向花間鬪草廻

여름

오색실 수놓던 바늘은 수틀에다 그냥 두었네.
옥계단에는 석류꽃이 새로 피어나네.
하얀 평상 정갈한 자리에 아무런 일이 없어
하루 종일 남쪽 정원에는 나비들만 떼지어 나네.

195. 平調四時詞 2
五色絲針倦繡窠 玉階新發石榴花
銀牀氷簟無餘事 盡日南園蛺蝶多

가을

우물가 오동잎은 난간에 떨어지는데
비파 줄이 팽팽해져 탈 수 없구나.
거울 들고 새 눈썹 다듬으려다가
주렴을 걷어올리자 이른 추위가 선듯해라.

195. 平調四時詞 3

金井梧桐下玉欄 琵琶絃緊不堪彈
欲將寶鏡均新黛 捲上珠簾怯早寒

겨울

비단 장막 에워싼 향기 보수(寶獸)[5]는 높다란데
아침 화장에 거울 보니 연지 발라도 까칠하구나.
수놓은 조롱에 앵무는 추위를 싫어해
주렴 속을 바라보며 시녀를 찾네.

195. 平調四時詞 4

錦幕圍香寶獸危 曉粧臨鏡澁臙脂
繡籠鸚鵡嫌寒重 猶向簾間覓侍兒

유총융을 송별하다

1.
금하에 얼음 얼고 눈이 아득히 오는데
원수의 변방 순찰은 뜻밖의 일을 대비함일세.
어디에선가 호가 소리가 달빛 속에 우니
소선우[6] 피리 소리를 북풍이 불어 보낸 게지.

196. 送別柳摠戎

金河氷合雪糢糊 元帥巡邊備不虞

---

5) 진귀한 짐승을 아로새긴 향대(香臺)이다.
6) 흉노의 작은 추장이다.

何處胡笳鳴月裏 北風吹送小單于

2.
홍련 막사 안에 따라 노니는 나그네는
흰 머리 시름 속에 어느 곳이 집이던가.
칼 짚고 원문[7]으로 떠나보낸 뒤
홀로 눈 속에 돌아오니 새벽 추위 심하구나.

紅蓮幕裏從遊客 白髮愁中何處家
杖劍轅門相送後 獨歸山雪曉寒多

무덤에 제사지내고

흰둥이가 앞서고 누렁이는 따라가는데,
들밭머리 풀섶에는 무덤이 늘어 서 있네.
늙은이가 제사를 끝내고 밭 사이 길로 들어서자,
해 저물어 취해 돌아오는 길을 아이가 부축하네.

197. 祭塚[8]謠
白犬前行黃犬隨 野田草際塚纍纍
老翁祭罷田間道 日暮醉歸扶小兒

---

7) 원문(轅門)은 원래 제왕이 지방을 순수할 때에 임시로 설치했던 문인데, 뒤에는 군영이나 감영(監營)의 문을 가리켰다. 원(轅)은 전차(戰車)의 채인데, 예전에 이것을 좌우에 세워 군영의 문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8) 총(塚)은 흔히 큰 무덤, 또는 비석이 없는 무덤을 가리킨다. 늙은이가 먼저 죽은 아들의 무덤에 제사를 지내다가 술에 취해, 손자 아이가 부축하며 돌아오는 모습을 그린 시이다.

초승달에 절하다

깊은 규중 처녀애 나이 열다섯.
방 앞에서 달 보고 절해도 사람들은 모르네.
바람 불어 비단띠가 날려도 아무 말 없이
층계를 내려와 뜰에 핀 꽃가지를 손으로 꺾네.

198. 拜新月

深閨女兒年十五 拜月堂前人不知
風吹羅帶默無語 下階手折庭花枝

양양곡

큰 제방 너머 잔잔한 연못으로 해가 지니
꽃 아래 놀던 사람 술 취해 비틀거리네.
다시금 교방을 나서 남쪽길을 가노라니
집집마다 골목마다 「백동제」노래소릴세.

199. 襄陽[9]曲

9) 양양은 호북성에 있는 아름다운 고을이다. 예부터 선녀의 전설과 함께 명승지가 많았으며, 풍류에 얽힌 이야기도 많다. 「양양곡」은 육조(六朝) 때에 송나라 수왕탄(隨王誕)이 지은 「양양악」에서 시작하여, 당나라 때에 악부시로 많이 불려진 노래이다. 특히 이백(李白)이 지은 「양양곡」이 유명하다. 양양은 즐거운 곳이라서 「백동제」를 노래부르며 춤추네. 강성에는 맑은 물이 돌고 꽃과 달은 사람을 홀리게 하네 (첫째 수). 산공이 술에 취했을 때엔 고양 아래에서 비틀거리네. 머리에는 하얀 건을 거꾸로 쓰고 말에 올라타네 (둘째 수). 「백동제」는 육조 때에 양양에서 유행하던 노래인데, 양나라 무제(武帝)가 옹진(양양)의 지방관으로 있을 때에 거리에 널리 퍼졌던 동요이다. 그런데 이 노래대로 일이 이루어지자, 무

平湖日落大堤西 花下遊人醉欲迷
更出敎坊南畔路 家家門巷白銅鞮

요새를 나가면서

1.
노중(虜中)에 좌현왕[10]에게 연락 보내니
변방 말은 구름 같고 살기가 누렇구나.
거연성이 가까워 산 아래서 사냥하니
사막 서쪽 연화가 하늘을 환히 비추네.

200. 出塞曲
虜中傳出左賢王 塞馬如雲殺氣黃
已近居延山下獵 磧西煙火照天光

2.
도위가 군사 나눠 밤중에 군영을 치니
한나라 징과 북 소리가 변성을 움직이네.
아침에 항복한 오랑캐 말을 들어보니
서쪽 음산 아래 복병이 있다고 하네.

제가 즉위한 뒤에 「양양탑동제」 3곡을 지었다. 산공은 진나라 시인 산간(山簡)인데, 형주의 지방관으로 있으면서 양양에 오면 늘 고양의 연못에 가서 노닐며, 술에 취하면 흰 건을 거꾸로 쓰고 말에 올라탔다고 한다. 이백의 시에 나타난 이 두 가지 옛일이 이달의 시에도 쓰여 졌다.

10) (흉노는) 그 대신(大臣) 가운데 귀한 자가 좌현왕이고, 그 다음이 좌곡리왕(左谷蠡王), 그 다음이 우현왕(右賢王), 그 다음이 우곡리왕(右谷蠡王)인데, 이들을 사각(四角)이라고 한다. -『후한서(後漢書)』「남흉노전(南匈奴傳)」.

都尉分軍夜斫營 漢家金鼓動邊城
朝來更聽降胡說 西下陰山有伏兵

3.
추운 변방에선 해마다 봄을 볼 수가 없어
북방 강에는 눈 흩날려 누런 티끌 덮었네.
선우[11]의 새 도적들이 운중에서 수자리하며
밤에 성문을 파느라고 자주 불러 모으네.

寒塞年年不見春 朔河飛雪壓黃塵
單于新寇雲中戍 夜鑿城門召募頻

비단 치마띠 노래를 고죽 사또께 바치다[12]

중국 상인이 강남 시장에서 비단을 팔고 있는데
아침해가 떠오르며 비치니 자주빛 연기가 피어나네.
아름다운 여인이 그걸 가져다 치마띠를 만들고 싶어하지만
주머니 속을 아무리 뒤져도 값어치 나갈 돈냥이 없구려.

201. 錦帶曲 贈孤竹使君
商胡賣錦江南市 朝日照之生紫煙

11) 흉노의 임금이다. 왕망(王莽) 때에 흉노를 공노(恭奴), 선우를 선우(善于)라고 고쳐 불렀으나, 후한(後漢)에 이르러 다시 선우(單于)라고 하였다.
12) 이달이 벗 최경창을 따라서 영광에 놀러갔다. 이달이 사랑하던 기생에게 자주빛 비단을 사주고 싶었지만, 그 값을 구하지 못하였다. 이달이 이 시를 지어서 최경창에게 보내며 그 값을 빌었다. 최경창은 “손곡의 시는 한 글자에 천금씩이나 가니, 어찌 감히 비용을 아끼겠느냐?”라고 하면서, 글자 하나마다 석 필씩 값을 쳐서 구하던 돈을 대주었다. 그가 이달의 재주를 이처럼 사랑하였다. - 허균『학산초담』.

佳人正欲作裙帶 手探粧匳無直錢

비단옷 노래

원앙 베틀 위에 자주빛 꽃비단
금칼로 베어내어 춤옷을 만들었지.
다시 봄바람 맞으며 부채 밑에 노래하니
이 몸이 꽃구름 되어 날아갈까 시름겹네.

202. 錦衣曲

鴛鴦機上紫花錦 剪下金刀作舞衣
更向春風歌扇底 却愁身化彩雲飛

강남 노래

향기로운 거리 봄 진흙에 쇠굽 나막신
검은 머리 비단 버선발 서리처럼 희구나.
까닭없이 「강남곡」을 한번 부르자
수양버들 다락 앞에서 공연히 애 끊어지네.

203. 江南曲

香陌春泥金齒屐 鴉頭錦襪足如霜
無端一唱江南曲 楊柳樓前空斷腸

채련곡 - 대동강 누선의 시에 차운하다

연잎은 들쑥날쑥 연밥도 많은데
연꽃 속에 서로 섞여서 여인들이 노래 부르네.
돌아올 때에는 횡당 어귀에서 만나자 했기에
힘들여 배를 움직이며 물결 거슬러 올라오네.[13]

204. 采蓮曲 次大同樓船韻
蓮葉參差蓮子多 蓮花相間女郎歌
來時約伴橫塘口 辛苦移舟逆上波

보리 베는 노래[14]

시골집 젊은 아낙이 저녁거리가 없어서

---

13) 예전에 학사 서익이 대동찰방이 되고 학사 최경창은 평양서윤이 되자 이달을 부벽루에 머물게 하고, 기생 가운데 가장 이름난 자와 거문고와 노래를 잘하는 자 열댓 명을 뽑아서 그를 모시고 떨어지지 않게 하였다. 최서윤은 저녁마다 공무를 물리치고 서찰방과 함께 가마를 타고 부벽루에 가서 술 마시고 시를 짓다가 흥이 다한 뒤에야 돌아왔다. 최(경창)의 임기가 끝나 조정으로 돌아오게 되자, 이 놀이도 끝났다. 그가 귀천을 따지지 않고 시 짓는 재주를 몹시 사랑함이 이와 같았다. 부벽루 현판에 정지상의 절구 "우헐장제초색다(雨歇長提草色多)"라는 시가 있어 옛날부터 절창이라고 전해졌다. 하루는 최경창이 말하기를 "우리 세 사람이 매일 이 다락 위에서 시를 지어 산천과 물고기와 새를 거의 다 읊었는데 어찌 시제를 내어 한 수 절구를 지어보지 않겠는가?"라고 하였다. 서익(徐益)이 이르기를 "「채련곡(採蓮曲)」으로 명명하는 것이 좋겠소."라고 하였다. 최경창이 이르기를 "저 현판의 시로 운자를 삼는 것이 좋겠소."라고 하였다. 세 사람이 제각기 붓을 들고 끙끙거리며 이겨보려고 애를 썼다. 최경창과 서익이 먼저 쓰고 이달이 뒤를 이었는데, 마침내 이달의 작이 절창이라고 추창되었다. - 양경우 「제호시화」.

14) 손곡이 지은 「동산역시(洞山驛詩)」는 시골집에서 먹을 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모습을 마치 눈으로 보는 것처럼 그려내었다. - 허균 『학산초담』. 『학산초담』에는 이 시 제목이 「동산역시(洞山驛詩)」로 실려있는데, 동산현은 양양도호부에 속한 작은 고을이다.

빗속에 나가 보리를 베어 숲속으로 돌아오네.
생나무는 축축해서 불길도 일지 않는데
문에 들어서니 어린애들은 옷자락을 잡으며 우는구나.

205. 刈麥謠
田家少婦無夜食 雨中刈麥草間歸
生薪帶濕烟不起 入門兒女啼牽衣

떠돌이 집안의 원망[15]

늙은이는 솥을 지고 숲속으로 사라졌는데
할미는 어린애 끌고 따라가질 못하는구나.
사람들 만날 때마다 집 떠난 괴로움을 하소연하는데
여섯 해 동안 종군하느라고 애비 자식마저 헤어졌다네.

206. 移家怨
老翁負鼎林間去 老婦携兒不得隨
逢人却說移家苦 六載從軍父子離

횡당곡

15) 부역이 번거롭고도 무거워서 백성들이 제대로 살지 못하고 흩어져 해메이는 괴로운 모습을 이 한 편의 시에다 모두 실었다. 백성들을 다스리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 시를 보게 한다면, 근심하고 두려워하며 깜짝 놀라서 깨달을 것이다. 그들이 병들어 파리해진 백성들을 살릴 수 있도록 훌륭한 정치를 베푼다면, 백성들을 감화시키는 데에도 도움이 되리니, 어찌 이것이 작은 일이겠는가? 글을 지으면서도 세상의 가르침에서 벗어난다면, 이 또한 헛되게 글을 지었을 뿐이다. - 허균『학산초담』.

1.
우리 집이 횡당[16] 남쪽 강둑에 있어서
언제나 친구 따라 햇연밥을 땄었지.
님을 만나면 방긋 웃고 아름다운 약속 맺으면서
버들 속에 수놓은 창문이 우리 집이라 말해 주었지.

207. 橫塘曲
家住橫塘南埭邊 常隨女伴采新蓮
逢郎一笑成佳約 繡戶雕窓楊柳煙

2.
그대 집은 횡당 어귀에 있다고 했건만
물새만 언제나 날저문 모래밭에 내려오네.
일년 좋은 봄날을 이제 다 보내고서
주렴 사이로 근심스레 자동꽃만 바라보네.

儂家住在橫塘口 江鷺常時下晩沙
過盡一年春事好 隙簾愁對刺桐花

월아의 시첩에다 선계곡을 쓰다

거문고 가락 한 곡조에 가을의 한은 길고 길어
밤 깊도록 잠도 못 이루고 수침향만 다 태우네.

16) 횡당은 강소성 양주(지금의 남경) 교외에 있는 둑이다. 오나라 때에 양주에서 회음까지 회강(淮江) 어구에다 긴 둑을 쌓았다. 장간리(長干里)라는 환락가가 이곳에 있어서, 남녀간의 사랑노래들이 많이 읊어졌다. 이러한 노래에서 연밥을 따는 관습은 시집갈 나이의 처녀들이 짝을 찾는 암시로도 많이 쓰여졌다.

서편 다락에 비치는 저 달 더더욱 정겨워
계단에 내려서니 뜨락에 서리 가득해라.

208. 仙桂曲 題月娥帖
一曲瑤琴秋恨長 夜深燒盡水沈香
多情更有西樓月 步下金階滿地霜

청간정 시에 차운하여 강선곡을 쓰다

삼주의 벽도는 천년만에 열매 맺는데
반백의 푸른 난새가 한 쌍 날아드네.
하늘에서 선절(仙節)을 서왕모께서 내려보내니
영롱한 바다 기운이 구름 창에 이어졌네.

209. 降仙曲 次靑澗亭韻
三洲碧桃結千歲 半白靑鸞來一雙
中天仙節降王母 玲瓏海氣連雲窓

이삭을 줍는 노래[17]

밭 사이에서 이삭을 줍는 시골 아이들 말이
한나절 부지런했지만 한 바구니도 차지 못했다네.
올해엔 벼를 베는 사람들 또한 교묘해져
이삭 하나 남기지 않고 관청에 바친다더라.

17) 이 시는 흉년을 맞은 시골 사람들의 말을 직접 듣는 것처럼 나타냈다. - 허균『학산초담』.

210. 拾穗謠

田間拾穗村童語 盡日東西不滿筐
今歲刈禾人亦巧 盡收遺穗上官倉

대추 따는 노래

이웃집 어린아이가 찾아와 대추를 따자
늙은이가 문 열고 나와 어린아이를 내쫓았네.
어린아이가 도리어 늙은이 보고 말하길
내년 대추가 익을 때까진 사시지도 못할 텐데요.

211. 撲棗謠

隣家小兒來撲棗 老翁出門驅小兒
小兒還向老翁道 不及明年棗熟時

보허사[18]

1.
살쩍 위에 높다란 삼각 건을 쓰시고
흘러내린 머리가 가는 허릴 지났네.

---

18) 현행 현악기로 연주되는 「보허사(步虛詞)」, 관악기로 연주되는 「보허자(步虛子)」가 있는데, 이는 「낙양춘(洛陽春)」과 더불어 『고려사』 「악지(樂志)」에 전하는 송(宋)나라의 사악(詞樂)이다. '장춘불로지곡(長春不老之曲)'이라고도 하는데, 예전에는 왕세자의 거둥 때 출궁악(出宮樂)으로 쓰였고, 특히 궁중 무용 반주 음악으로 많이 사용되었다. - 장사훈, 『국악대사전』. 「보허사」는 당시에 유행하던 악부체의 하나인데, 신선에 관한 내용을 읊은 시이다.

서왕모[19]의 잔치자리에 방금 가려는지
푸른 하늘 향해서 난새 피리를 부네.

212. 步虛詞[20] 1

三角峨峨鬢上綃 散垂餘髮過纖腰
須臾宴赴西王母 一曲鸞簫向碧霄

2.

선동이 서왕모 시녀 완릉화와 짝을 맞추어
삼주 소옥[21]의 집을 한밤중에 찾아갔네.
자양궁 숨은 일들을 한가롭게 이야기하며
옥계단에서 벽도화를 남 모르게 꺾었네.

步虛詞 2

靑童結伴婉凌華 夜下三洲小玉家
閑說紫陽宮裏事 玉階偸折碧桃花

3.

서왕모의 구름 마차 오색 기린이 끌고

19) 서왕모가 책상에 기대어 있는데, 머리꾸미개를 꽂고 있다. 그 남쪽에 파랑새 세 마리가 있는데, 서왕모를 위해서 음식을 날라 주었다. 곤륜허(昆侖虛)의 북쪽에 있다. -『산해경(山海經)』「해내북경(海內北經)」. 청조(靑鳥)는 발이 셋 달린 새인데, 서왕모의 사자이다. 요지에 잔치가 열리면 파랑새가 다니면서 연락하였다. 그뒤부터는 사자(使者)를 청조(靑鳥)라고도 하였다.

20) 「보허사」는『악부(樂府)』잡곡의 가사 이름인데, 여러 신선들의 신비스러운 생활과 경묘한 자태를 찬미하는 노래이다. 도가(道家)의 노래이기도 한데, 많은 시인들이 상상력을 동원하여 이 노래를 지었다. 시인들이 신선세계에 있다고 생각했던 인물들과 건물들이 이 시 속에 등장한다.

21) 신화에 나오는 신선의 시녀 이름인데, 백거이의 「장한가(長恨歌)」나 원진의 「모추시(暮秋詩)」에서 시녀 이름으로 쓰였다.

흰 난새 앞서 인도하며 서쪽 향해 순수하네.
새벽에 천장을 허황전에 아뢰니,
팔만 년 만에 선계꽃이 피었다네.

步虛詞 3
王母雲車五色麟 白鸞前導向西巡
天章曉奏虛皇殿 仙界花開八萬春

4.
선도에서 향을 살라 옥허에 예 올리고
붉은 기린 오운거에 멍에를 재촉하네.
서궁의 시녀들은 교태로운 웃음 많아
삼천을 다 기록한 글을 볼 수가 없다 하네.

步虛詞 4
仙島焚香禮玉虛 紫麟催駕五雲車
西宮侍女多嬌笑 錄盡三天未見書

5.
옥간 금서에 도록을 다 통하니
자황께서 새로이 예주궁에 내리시네.
선관들이 모시며 용호(龍虎)를 배열하니
온화하고 조용하게 예를 다하는구나.

步虛詞 5
玉簡金書道籙通 紫皇新下蕊珠宮
仙官列侍排龍虎 盡禮無譁肅穆中

6.
서악의 진군께서 하늘 위로 오르시자
온갖 신령 분주하게 위의를 갖추었네.
하늘나라 비결이란 전해질 수 없는 거라서
옥황의 글을 몰래 베껴 한밤중에 돌아오네.

步虛詞 6
西嶽眞君上紫微 百靈奔走備威儀
三淸秘訣無傳授 偸寫天章半夜歸

7.
양성의 사자가 진부(眞符)를 가져와
가슴 앞에 드러나게 할낙도를 찼네.
곧바로 부상을 가리키며 목제[22]를 재촉하여
때맞춰 말 전하려고 청도로 올라가네.

步虛詞 7
羊城使者取眞符 露佩胸前豁落圖
直指扶桑催木帝 及時傳語上淸都

8.
삼단에서 한밤중 진경(眞經)을 강론하니
여러 신선들 많이 모여서 뜰 아래 벌려 섰네.
오직 노군께선 별전에서 도 닦으시며

22) 서왕모의 사자가 오자 동방삭(東方朔)이 죽었다. 상이 사자에게 묻자, 사자가 대답하였다. "동방삭은 목제(木帝)의 정(精)인데, 세성(歲星)이 되어 인간 세상에 내려와 노닐며 천하를 살피고 있으니, 폐하의 신하가 아닙니다." -『태평어람』「한무고사(漢武故事)」.

손수 운전(雲篆)을 써서 현명에게 보내네.

步虛詞 8
三壇中夜講眞經 大集群仙列下庭
唯有老君修別殿 手書雲篆送玄冥

강릉 이야기

삼월이라 강릉엔 가지마다 꽃 가득한데
꽃 꺾어들자 문득 지난해 슬픔이 생각나네.
상한 마음 흘러가는 강물에 묻지를 말자.
밤낮 유유히 흘러 쉼이 없구나.

213. 江陵書事
三月江陵花滿枝 折花還有去年悲
傷心莫問東流水 日夜悠悠無歇時

궁사[23]

1.

23) 왕궁의 일을 읊은 시가 「궁사」인데, 「궁사」는 많이 지어지지 않았다. 왕궁 속의 일은 비밀스러워서 보통 사람들이 잘 알 수도 없었거니와, 그처럼 비밀스러운 일을 공공연하게 시로 읊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퍼뜨리는 것은 지엄한 왕궁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이었다. 왕건(王建)이 「궁사」 100수를 지은 뒤에, 화예부인(花蘂夫人)과 왕규(王珪)가 또한 「궁사」 100수를 지었다. 이달의 제자인 허균도 역시 「궁사」 100수를 지었다. 이달이 지은 「궁사2」가 『역대여자시집』에는 허난설헌의 작품으로 실려 있다. 그만큼 이들 시의 분위기가 비슷했다.

아침 되어 해가 뜨고 궁궐문이 열리더니
봉황일산 두 줄 지어 인도하며 오르네.
예부상서가 전갈하는 폐하 분부를 들어보니
조회 뒤에는 곧바로 망춘대에 납신다네.

214. 宮詞 1
平明日出殿門開 鳳扇雙行引上來
遙聽太儀宣詔語 罷朝新幸望春臺

2.
궁궐 뜨락 여기저기 꽃잎들이 흩날리는데
궁녀는 향을 사르며 저녁 노을을 바라보네.
봄바람이 다 지나가도록 사람은 뵈지 않고
굳게 잠긴 대문 자물쇠에 푸른 녹만 슬었구나.

宮詞 2
宮墻處處落花飛 侍女燒香對夕暉
過盡春風人不見 院門金鎖綠生衣

3.
맑은 새벽에 내시가 나와 재인을 찾더니
피리와 노래 어우러져 전각에 봄이 가득해라.
이원에서 옥피리 불라고 특별 분부 내리신 뒤에
어원에서 새로이 기린포를 내리시네.

宮詞 3
中官淸曉覓才人 合奏笙歌滿殿春
別詔梨園吹玉篴 御袍新賜錦麒麟

허리대[24]에서 읊다

푸른 바다에 구름 그림자 지고
흰 갈매기 수없이 이끼 바위에 올랐네.
산꽃이 다 졌는데도 돌아가지 못하니
내 집은 강물 남쪽 석봉에 있다오.

215. 許李臺口呼

碧海波空雲影涵 白鷗無數上苔巖
山花落盡不歸去 家在石峯江水南

강릉 동헌

물 가득한 남쪽 못에 흰 연기 일고
대숲 가에는 복사꽃 적게 피었네.
병든 나그네 한가롭지 못해 스스로 가여우니
가슴아픈 봄 지나가는 게 지난 해 같네.

216. 江陵東軒

水滿南塘生白煙 少桃花發竹林邊
自憐病客無閑緖 一度傷春似去年

---

24) 허리대는 (강릉대도호부) 남쪽 25리에 있다. 바닷가에 평평하고 넓은 바위가 있는데, 100여명이 앉을 만하다. 허종(許琮)과 이육(李陸)이 함께 사명을 띠고 여기에 와서 놀았으므로, (허리대라고) 이름하였다. -『신증동국여지승람』 제44권「강릉대도호부」.

성불암

서봉의 암자가 중천에 가까워
구름 이는 바위문에 먼 샘물소리 나네.
한밤중까지 등불 걸고 나그네 잠 못 이루는데
늙은 중이 경쇠를 치며 부처님께 예배하네.

217. 成佛庵
西峯庵子近中天 雲竇泠泠落遠泉
半夜懸燈客不寐 老僧鳴磬禮金仙

관외 산행

물 가까이 성긴 울타리에 붉은 살구꽃
버들 늘어져 문을 가린 두어 집.
시냇가 다리에는 곳곳에 봄풀이 이어졌는데
산길에는 아무도 없고 해만 절로 기우네.

218. 山行關外作
近水踈籬紅杏花 掩門垂柳兩三家
溪橋處處連芳草 山路無人日自斜

용나루

가을 강물이 급하게 흘러 용나루[25]로 내려가는데

25) 서울 일대 한강에는 수십 군데 나루가 있었는데, 남대문에서 가장 가까

나루의 관리가 배를 세우고는 비웃다가 다시 꾸짖네.
서울에 드나들면서 무슨 일을 했길래
십년이 넘어가도록 벼슬 한 자리 얻지 못했나.

219. 龍津

秋江水急下龍津 津吏停舟笑更嗔
京洛旅遊成底事 十年來往布衣人

서강 만흥

강가 다리 술집 깃발이 저녁바람에 흔들리고
한 그루 붉은 살구꽃이 울타리에 비치네.
어젯밤 서쪽 못에 마름열매 익었다고
여인이 「낭도사(浪淘沙)」[26]를 부르는구나.

220. 西江漫興

江橋酒幔晩風斜 一樹映籬紅杏花
昨夜西潭菱子熟 女郎時唱浪淘沙

그림에 쓰다

운 나루는 용산진(龍山津)이다. 그러나 손곡이 지방에서 남한강을 배타고 올라오면서 광나루(광진교, 천호대교 자리), 한강진(한남대교 자리) 등을 지나서 용산진까지 올라오지는 않았을 것이다. 원주에서 올라오는 뱃길 가운데 서울 근교의 나루는 광주(廣州) 두물머리(兩水頭)에 있는 용진(龍津)이다.

26) 당나라 때에 교방곡(敎坊曲)의 이름인데, 뒤에 사패(詞牌)가 되었다. 유우석과 백거이가 시작했는데, 원래 소곡(小曲:俗謠)으로 단조(單調) 4구 28자, 3평운(平韻)이다.

1.
찬 숲에 안개 어둡고 백로가 날아가는데
강가 고기잡이 집은 대사립이 닫혔네.
비낀 해 끊어진 다리에 사람들은 다 가고
첩첩산 푸른 기운이 방울져 내리네.

221. 題畫 1
寒林煙暝鷺絲飛 江上漁家掩竹扉
斜日斷橋人去盡 亂山空翠滴霏微

2.
푸른 버들 문 닫힌 곳이 누구 집인가
반쯤 솟은 붉은 다락에 끊어진 노을 비치네.
믿지 못할 꾀꼬리가 하루 종일 울고
늦게 갠 마을에는 지는 꽃도 많구나.

題畫 2
綠楊閉戶是誰家 半出紅樓映斷霞
無賴流鶯啼盡日 晩晴門巷落花多

3.
서리 치는 남쪽 하늘에 기러기떼 울며 가고
갈꽃에 바람 일자 눈같이 어지럽네.
한 줄 기러기가 소상 언덕을 지나
반은 물가에 내리고 반은 구름 속으로 드네.

題畫 3
霜落天南雁叫群 荻花風起雪紛紛

一行飛過瀟湘岸 半落汀洲半入雲

4.
한 숲에 잎새 지자 깃든 새 보이고
한 시내 다리 건너자 또 한 시내일세.
산바람 소매 가득히 남은 눈 밟고
비낀 해 석봉 서편에 낚싯대 드리웠네.

題畫 4
寒林葉脫見禽棲 度一溪橋又一溪
滿袖山風踏殘雪 數竿斜日石峯西

죽두암[27]

경포호 물가에 사람은 다니지 않고
강문교 저 위로 달이 방금 떠오르네.
절방 창엔 밤이 차서 나그네 잠 못 이루는데
마름 끝 바람결에 기러기 소리만 들려오네.

222. 竹頭菴
鏡浦湖邊人不行 江門橋上月初生
僧窓夜冷客無睡 蘋末西風來雁聲

경포대에 놀면서 송덕구[28]에게 지어 주다

27) 강릉 동북쪽 15리에 경포가 있는데, 둘레가 20리이다. 서쪽 언덕에 경포대가 있으며, 동쪽 입구에 강문교가 있다. 다리 밖에 죽도(竹島)가 있다.

강문교 위에는 바다 구름 일어나고
해가 다리 서쪽에 있어 그림자 동으로 지네.
노니는 사람이 머리 돌려 초승달 바라보니
양편 언덕 솔숲이 호수 바람에 우네.

223. 遊鏡湖 贈宋德求
江門橋上海雲起 日在橋西橋影東
遊人回首望初月 兩岸松鳴湖上風

도인에게 지어 주다

단경(丹經) 강설이 끝나자 돌문을 열고
홀로 소나무 아래 내려와 솔가지에 기대네.
제단에 밤 깊어지자 달빛도 싸늘해
이슬이 산사람 옷 적시는 줄도 알지 못했네.

224. 贈道人
講罷丹經啓石扉 獨來松下倚松枝
瑤壇夜久月華冷 露濕山衣人不知

스님에게 지어 주다

---

28) 송상현(宋象賢, 1551~1592)의 자가 덕구(德求)이고, 호는 천곡(泉谷)이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동래부사로 항전하다가 순국하였다. 1586년에 은계도찰방(銀溪道察訪)으로 좌천되었는데, 은계도가 강원도 회양 은계역을 중심으로 동해안 일대까지 관할했기 때문에 경포대에 놀러왔을 때에 이 시를 지어준 듯하다.

바다 기운 이어진 산 저녁빛에 가라앉고
서쪽 암자 풍경 소리에 늙은 스님 돌아오네.
등불 걸고 하룻밤 스님과 함께 자면
맑은 새벽 구름 뚫고 푸른 기운 속을 내려가리라.

225. 贈僧

海氣連山沈夕暉 西庵鐘磬老僧歸
懸燈一夜同僧宿 淸曉穿雲下翠微

삼일포

평호에 닻줄 푸니 갑자기 중류라
한 줄기 물이 백로주를 감싸 도네.
삼십육봉 구십곡 가운데
어느 곳에서 사선[29]이 놀았는지 알 수가 없네.

226. 三日浦

平湖解纜忽中流 一水縈回白鷺洲
三十六峯九十曲 不知何處四仙遊

29) (강원도) 영동의 여섯 호수는 거의 인간 세상에 있는 것 같지가 않다. 그런데 삼일포(三日浦)에는 호수 한가운데 사선정(四仙亭)이 있다. 바로 신라 때 영랑(永郞)·술랑(述郞)·남석랑(南石郞)·안상랑(安詳郞)이 놀던 곳이다. 이 네 사람이 벗이 되어 벼슬하지 않고 산수에서 놀았는데, 세상에서는 그들이 도를 깨쳐 신선(神仙)이 되어 갔다고 한다. 호수 남쪽 석벽에 붉은 글씨가 있는데, 네 선인(仙人)이 이름을 쓴 것이다. - 이중환『택리지(擇里志)』「산수(山水)」.

영곡에서 봄을 찾다

동쪽 봉우리 구름에 파란 산허리가 잠겼기에
시냇길에 대지팡이 짚고 고운 봄구경 나섰더니,
깊은 숲 몇 군데 이른 꽃이 피었는지
산벌이 이따금 와서 옷깃을 스쳐 가네.

227. 靈谷尋春
東峯雲氣沈翠微 澗道竹杖尋芳菲
深林幾處早花發 時有山蜂來撲衣

님에게 지어 주다

금빛 봉황 비녀 밑에 구름같은 쪽머리
홀로 깊숙한 집 열고 뜨락에 진 꽃을 쓰네.
시름겨워도 「상춘곡」은 부르지 마소
「상춘곡」 부르다 보면 한이 더욱 많으리.

228. 贈人
金鳳釵低雲髻斜 獨開深屋掃庭花
愁來莫唱傷春曲 唱到傷春恨更多

개성[30]에서 옛날을 생각하며

30) 송경은 송악산 앞에 도읍했던 고려의 서울 개성이고, 계림은 신라의 서울 경주이다. 통일신라 말기에 자기의 조국인 신라가 쇠망해 가고 신흥 고려가 흥성해 가는 모습을 예견한 최치원이 "계림은 누렇게 시든 나뭇

고려 궁터와 전각에는 풀과 안개만 가득한데
해가 지자 저녁 그늘 따라 소와 양들이 내려오네.
경주 개성이 하릴없이 망한 나라 도읍이건만
계림에만 누런 잎 가득하다고 그 옛날에 비웃었다니.

229. 松京懷古
前朝臺殿草煙深 落日牛羊下夕陰
同是等閑亡國地 笑看黃葉滿鷄林

사모하는 도백에게 부치다

그대의 말 타고 그대 옷을 입었는데
만리 호수와 산에는 눈이 펄펄 날리네.
이번 길에는 송별 없어 서글프구나.
홍인문[31] 밖 나서면 친구도 드문데.

230. 寄謝慕伯
乘君之馬衣君衣 萬里湖山雪正飛
惆悵此行無送別 興仁門外故人稀

종성[32] 가는 길에

잎이고, 곡령은 푸른 소나무"라고 고려의 건국을 몰래 찬양하였다. 그렇지만 400년 뒤엔 결국 곡령도 누렇게 시든 나뭇잎이 되었다.

31) 한양의 동대문이니, 강원도나 함경도로 떠날 때에 이 문을 거쳐 나갔다.

32) 함경도 두만강 가에 있는 도호부이다. 청나라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요새이다.

옥문관[33] 밖에는 눈이 산에 덮이고
모래와 물 자갈 사이로 발이 비치네.
어느 곳 먼 수자리에서 슬픈 노래가 들리는데
밤 깊도록 말 타고 놀며 수리를 쏘고 돌아오네.

231. 鍾城道中

玉門關外雪漫山 月照沙河亂磧間
何處悲歌鳴遠戍 夜深遊騎射鵰還

마천령[34]에서 원집 벽에 쓰다

마흔살에 귀밑머리 실같이 희니
남들에게 남아(男兒)라고 말하기 부끄럽네.
언제라야 천산[35] 나무에 칼 걸어 놓고
오랑캐술 천 잔을 월지[36]에서 마시려나.

---

33) 만리장성에서 서역으로 나가는 길목의 이름난 관문인데, 감숙성 돈황현 서쪽, 양관의 서북쪽에 있다. 흔히 옥관(玉關)이라고도 하는데, 한나라 무제 때에 곽거병(郭去病)이 월지(月氏)를 치고 옥문관을 열어 서역과 통하게 했다. 장안으로부터 3,600리 떨어져 있다. 악부시에 많이 나오는 관문인데, 사신이나 군사들이 이곳을 한 번 나가면 살아서 돌아오기 힘든 곳으로 여겼다. 종성이 청나라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성채를 '옥문관'이라고 표현한 것이다.

34) 함경도 단천군과 길성현(길주목) 사이에 있는 고개인데, 하늘에 닿을듯 높다고 해서 마천령(磨天嶺)이라 하였다.

35) 지금 몽고에 있는 항애산맥(杭愛山脈)인데, 연연산(燕然山)이라고도 한다. 북위(北魏) 태연(太延) 4년(438)에 탁발도(拓跋燾)가 유연(柔然)을 공격하면서 준계산(浚稽山)을 따라 이곳으로 북진한 적이 있다. 당나라 때에는 이주(伊州)와 서주(西州) 북쪽 일대의 산들을 천산이라고 하였다.

36) 한나라 때 감숙성 서북에 나라를 세웠던 종족인데, 그 나라를 가리키기도 한다. 그 나라는 중앙아시아에 있었는데, 지금의 아프가니스탄 북쪽 우즈벡공화국 일대에 해당된다.

232. 磨天嶺 題院壁

四十之年鬢若絲 向人羞道是男兒
何時掛劍天山木 虜酒千鍾飮月支

신륵사에 쓰다

여강[37]에 삼월이 되자 외로운 배 타고 돌아왔네.
내 집은 서담(西潭)[38] 구름과 물 사이에 있네.
마름 물가에 안개가 일고 새는 나무에 깃드는데
꽃이 석대에 피자 스님은 문을 닫는구나.

233. 題甓寺

驪江三月孤舟還 家在西潭雲水間
煙生蘋渚鳥投樹 花發石臺僧掩關

동궁에서 자다

바람 소리 샘물 소리 텅 빈 가을 산에 들리고
석문에 종소리 들리자 달이 나오네.
도인이 「황정경」[39] 읽고 난 뒤에

37) 여주를 거쳐가는 남한강 상류를 여강이라고도 부른다. 이곳에 신륵사가 있는데, 벽돌탑이 있으므로 속칭 벽절이라고도 불렀다.
38) 이달이 이 지역 이름을 따서 서담(西潭)이란 호도 썼다. 그래서 유형이 그의 유고를 모아 『서담집』을 간행하려고, 이수광에게 발문을 부탁했다.
39) 「황제내정경(黃帝內庭經)」과 「황제외정경(黃帝外庭經)」으로 나뉘어져 있는 도가의 경전인데, 양생서(養生書)이다. 『당서』 「예문지(藝文志)」에 "노자(老子) 『황정경』 1권"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신선이 잘못 읽으면 인간 세상으로 귀양온다고 한다.

밤중에 천단을 쓸며 북두에게 절하네.

234. 宿洞宮

風泉響落秋山空 石門月出疏鍾後
道人讀罷黃庭經 夜掃天壇拜北斗

가야산을 찾아서[40]

하늘로부터 피리 소리와 학이 가을밤에 내려왔지만
천년 전의 고운(孤雲)[41]은 이미 적막하구나.
달 밝은 동문에는 물이 흘러가지만
어디가 무릉교[42]인지 알 수 없구나.

235. 尋伽倻山

中天笙鶴下秋霄 千載孤雲已寂寥
明月洞門流水在 不知何處武陵橋

---

40) 정승 노수신이 중의 두루마리를 보았더니, 고죽과 익지의 시가 실려 있었다. 거기에다 쓰기를 "당대에 으뜸가는 문장가로는 오직 이달과 최경창을 일컫는다"라고 하였다. 이것이 지나친 말은 아니다. 작은형님(허봉)도 또한 "신라 때부터 당시(唐詩)를 본받은 사람 가운데 이익지의 시보다 더 위로 올라간 사람은 없다"라고 하였다. 일찍이 그가 지은 시 가운데 (위의 시)라는 작품을 형님이 칭찬하면서, "나로서는 따라갈 수 없다"고 하였다. - 허균 「성수시화」.

41) 고운은 천년 전에 가야산에 들어와 신선이 되었다는 최치원(崔致遠)의 호다. 최치원은 가야산에서 마지막 시를 쓰고, 어느날 자취를 감추었다.

42) 무릉교는 신선세계인 무릉도원 어귀에 있는 다리이다. 흘러가는 물을 따라 들어가면 그 위에 무릉도원이 있겠지만, 그 입구를 찾지 못하는 것이다. 이 시에서는 최치원이 마지막으로 살던 홍류동 시냇물을 가리킨다.

청도에서 중양절을 맞다

지난 해 중구일은 한양성에세 맞았고
올해 중구일은 강남 길에서 맞았네.
해마다 옛 그대로 국화는 꺾었지만
지난 해 사람은 올해 들어 늙었네.[43]

236. 淸道九日
去年九日漢陽城 今年九日江南道
年年依舊折黃花 去年人到今年老

새벽에 고산촌을 떠나며

나그네 새벽에 고산 길을 떠났더니
해가 떠도 옷의 서리가 사라지지 않네.
썰렁한 주막에 사립문 열어 말에게 여물 먹이고
돌솥에 불 지피니 메조밥이 익네.

237. 曉發孤山村
行人曉發孤山路 日出未消衣上霜
荒店開扉秣征馬 石鐺敲火熟黃粱

43) 이 시를 몇 자 고친 「구월산」 시가 김삿갓의 이름으로 널리 전한다. 지난 해 구월에 구월산을 지났는데 올해 구월에도 구월산을 지나네. 해마다 구월에 구월산을 지나건만 구월산 풍경은 늘 구월일세. "昨年九月過九月 今年九月過九月 年年九月過九月 九月山光長九月."

김자패의 산집을 찾다

긴 수염에 술항아리 메고 으스름 달빛 띠었는데
산길 새벽 서리에 다니는 사람 없네.
늙은 소는 밤새도록 콩깍지가 차가웠는데
그대 집에 닿기도 전에 하늘이 이미 밝았네.

238. 尋金子佩山屋
長鬚擔酒帶殘月 山逕曉霜人不行
老牛終夜豈其冷 未到君家天已明

수헌의 벽에 쓰다

동쪽 고개 구름이 서쪽 고개와 이어져
잠시 바람 일더니 어지럽게 비 내리네.
도인이 홀로 산속에서 잠 드니
산속의 비바람 소리 들리지 않네.

239. 題睡軒壁
東嶺雲連西嶺雲 須臾風作雨紛紛
道人獨向山中睡 風雨山中睡不聞

격암 남사고[44]의 죽음을 슬퍼하다

44) 역학(易學)·풍수·천문·지리·복서(卜筮)·상법(相法)에 두루 통달한 조선 중기의 학자인데, 예언이 잘 들어맞았다고 한다. 비결과 『정감록』 등이 그의 이름으로 전해진다.

난새 수레가 표연히 약목진으로 떠나니
군평[45]의 주렴 아래 다시 누가 있으랴.
궤연 동쪽의 제자가 남긴 초고 거두니
옥동[46]에 복사꽃 피어 온 숲이 봄이라네.[47]

240. 挽南格菴師古

鸞馭飄然若木津 君平簾下更何人
床東弟子收遺草 玉洞桃花萬樹春

병중에 꽃을 꺾고 술을 마주하며 읊다

꽃 필 철이건만 병이 들어 문 깊이 닫고
억지로 꽃가지 꺾어 술 마주해 읊조리네.
서글프게도 흐르는 세월 꿈속에 지나가니
꽃 구경해도 이제는 소년시절 마음이 없네.

241. 病中 折花對酒吟

花時人病閉門深 强折花枝對酒吟

---

45) 한나라 촉(蜀) 땅에 살았던 이름난 점쟁이인데, 이름은 엄준(嚴遵)이다. 저서로는 『노자지귀(老子指歸)』가 있었다. 복채가 백전만 생기면 곧바로 술을 마셔 버렸다.

46) 구슬로 된 동굴인데, 신선이 사는 곳이다.

47) 손곡의 「만남격암사고(挽南格菴師古)」 시에 (줄임)라고 하였는데, 격암은 남사고(南師古)의 호다. 사고가 일찍이 이인(異人)을 좇아 참된 비결을 전수받아 비술에 능통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이다. 약목진은 석목진(析木津)이란 말을 잘못 인용한 것이다. - 하겸진 『동시화(東詩話)』. 석목(析沐)은 12성차(星次)의 하나인데, 미성(尾星)과 기성(箕星)의 자리에 해당한다. 석목 성차는 미(尾) 10도에서 두(斗) 11도 사이인데, 그 사이에 은하수가 있기 때문에 석목진(析沐津)이라 하였다.

惆悵流光夢中過 賞春無復少年心

아계[48] 상공께 문안드리며 부치다

헤어지던 강과 못에 나뭇잎 드물었는데
지금도 혼은 꿈속에 아련합니다.
외로운 배 한번 떠나 소식 없으니
가을 풀 차가운 시냇가에 홀로 사립 닫았습니다.

242. 寄問鵝溪相公
離別江潭木葉稀 至今魂夢更依依
孤舟一去無消息 秋草寒溪獨掩扉

양봉래의 죽음에 곡하다

인간으로 신선 되신[49] 줄 알았으니
부질없이 슬퍼하며 수건을 적실 필요 없네.
동쪽 바다 봉래[50]로 돌아가는 길에는
벽도화 천 그루가 활짝 핀 봄이겠지.

---

48) 이산해(李山海, 1539~1609)의 호이다. 어렸을 때 작은아버지 토정 이지함에게 글을 배웠는데, 일곱살때부터 시를 잘 지어 신동으로 이름났다. 대제학이 되어 한 시대 문단을 주도하였으며, 영의정을 지냈다.

49) 원문의 시해(尸解)는 도가의 술수(術數)인데, 몸만 남겨 놓고 혼백(魂魄)이 빠져나간 상태이다. 시신은 눈 앞에 있지만, 이제는 신선이 되었다는 뜻이다.

50) 봉래 양사언이 좋아했던 금강산의 다른 이름이고, 삼신산 가운데 하나이며, 봉래 자신의 호이기도 하다.

243. 哭楊蓬萊

知是人間尸解身 不須惆悵浪沾巾
蓬萊海上東歸路 疑有碧桃千樹春

호숫가 절의 스님 시권에 쓰다

옛 절에 차가운 종소리 푸른 기운 속에 들려오고
자규 울음 그쳤건만 한(恨)은 다하지 않네.
남쪽 호수 마름 열매는 벌써 가시 돋았는데
삼월에도 나그네는 돌아가지 못하네.

244. 題湖寺僧卷

古寺寒鐘鳴翠微 子規啼歇恨依依
南湖菱角已成刺 三月行人歸未歸

악사 허억봉에게 지어 주다

두 눈썹 눈을 덮고 귀밑머리 성긴데
일찍이 장악원[51]에서 옥피리 불었지.
층대로 옮겨와서 한 곡조 불더니
끝나자 눈물 흘리며 선조 이야기를 하네.

---

51) 원문의 이원(梨園)은 당나라 때에 음악을 맡았던 관청인데, 조선시대에도 장악원(掌樂院)을 흔히 '이원'이라고 불렀다. 남부 명례방(明禮坊), 지금의 을지로 1가에 있었는데, 아악(雅樂)은 좌방(左坊), 속악(俗樂)은 우방(右坊)에 속했다.

245. 贈樂師許億鳳

雙眉覆眼鬢蕭蕭 曾捻梨園紫玉簫
移向瑤臺彈一曲 曲終垂淚說先朝

평양

교방[52]의 남쪽 길을 홀로 더디게 가니
겹겹 누각들이 곳곳에 솟아 있네.
밝은 달빛 거리에 가득하고 사람은 없는데
깊은 밤 옥피리 소리 높고 낮게 들려오네.

246. 西京

敎坊南畔獨行遲 樓閣重重處處疑
明月滿街人寂寂 夜深吹送玉參差

가산 가는 길에

가릉 북쪽 바라보면 귀성[53]과 닿았는데
여러번 지나던 길을 다시 멀리 떠나네.
장림 쪽으로 나루터 바라보니

52) 교방은 궁중 음악을 관리하던 부서인데, 아악(雅樂) 이외의 음악과 무용·연희의 교습·연습·공연 등의 일을 맡았다. 당나라 무덕(武德) 연간 이후 궁궐에 내교방(內敎坊)을 두어 청나라 옹정(雍正) 연간에 폐지될때까지 여러 형태로 존속하였다. 우리나라에선 고려시대에 기녀들을 중심으로 한 가무(歌舞)를 교방에서 관장했으며, 조선 초기에는 관습도감에서 관장하였다. 기생집을 뜻하기도 한다.

53) 가산과 귀성은 모두 평안도 고을이다.

젖은 구름에 들판이 잠겨 분명치 않구나.

247. 嘉山道中
嘉陵北望接龜城 歷數來途更遠行
試向長林望津渡 濕雲沈野不分明

남당에 쓰다

내 집은 호수 서편 단풍나무 숲
당시에는 바다와 산에 새가 살고 있었지.
해마다 나그네 되어 서울에 오면
언제나 그대 집에 와 나그네 심정 이야기하네.

248. 題南塘
家住湖西楓樹林 當時棲宿海山禽
年年作客來京洛 每到君家說客心

군대에 가는 사람을 보내며

도호께서 새롭게 절제사[54]를 겸하시니
그대 휘하에서는 취모검[55]을 쓰리라.
층층이 얼어붙은 교하를 밤에 건너
곧바로 누란을 베면[56] 피가 옷을 적시리.

---

54) 도호부사는 종3품인데, 병마절제사. 병마수군절제사를 겸하기도 했다.
55) 칼날에 털을 불면 잘려나갈 정도로 예리한 명검이다.
56) 누란은 옛날 서역(西域)의 나라 이름인데, 한나라 원봉 3년(B.C.108)에

249. 送人從軍

都護新兼節制高 君歸麾下劍吹毛
交河夜渡層氷合 直斬樓蘭血滿袍

허공언[57]을 중국에 사신으로 보내며

1.
병조의 낭관이며 한림원의 신하가
멀리 천자를 뵈러가서 만년 장수를 비네.
요하의 아전들이 물어본다면
동쪽 나라 제일인이라고 말해 주시오.

250. 送許功彦朝天 1

騎省郎官翰苑臣 遠朝天子萬年春
遼河小吏如相問 報道東藩第一人

2.
요서 수십리 길 다 가고나면
모래벌판에 수없는 기러기들이 울며 날겠지.

중국으로 귀속되었다. 옛터는 지금의 신강위구르자치구 약강현(若羌縣) 나포박(羅布泊) 서쪽으로, 한나라 때 서역과 통하던 길가에 있었다. 한나라와 흉노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으며, 때로는 한나라 사신을 죽이고 길을 막기도 하였다. 원봉 4년에 한나라에 서 부개자(傅介子)를 보내어 왕 안귀(安歸)를 죽이고, 따로 왕을 세워 나라 이름을 선선(鄯善)이라고 고쳤다. 부개자가 그 공로로 제후에 봉해지자, '누란을 목 베었다'는 말은 '적을 죽여 공을 세웠다'는 뜻으로 쓰였다.

57) 허균의 맏형인 허성(許筬, 1548~1612)의 자인데, 호는 악록(岳麓)이다. 명나라와 일본에 사신으로 다녀왔으며, 이조판서를 지냈다. 이 시는 1594년 명나라에 진주사(陳奏使)로 갈 때에 지어 주었다.

회중[58]에서 해 지면 봉화를 전해
이따금 음산에 척후병도 보시겠네.

送許功彦朝天 2
行盡遼西數十程 磧沙無數雁飛鳴
回中日暮傳烽火 時見陰山斥候兵

3.
도성 거리엔 은빛 촛불 물시계 소리 아득하고
황제의 궁궐은 하늘 가까이 높고 낮네.
별조(別詔) 내려 안뜰에서 베푼 잔치 끝나면
천관이 조회하고 오문교[59]를 내려오겠지.

送許功彦朝天 3
天街銀燭漏聲遙 帝闕參差近紫霄
別詔內庭宣宴罷 千官朝下午門橋

의주로 가는 이관송[60]을 보내며

가을바람 소리가 관새를 움직이는데

58) 감숙성 고원현에 세웠던 진나라 궁전인데, 남쪽 견수(汧水)에서 북쪽소관(蕭關)까지 가는 길 이름도 '회중'이다. 회중을 통과하기 때문에 그렇게 불렀다. 이 시에서는 변방이라는 뜻으로 썼다.

59) 오문(午門)은 궁성의 정문인데, 신하들이 이곳에서 조회(朝會)나 교지를 기다린다.

60) 관송(觀松)은 허균의 선배 동료이자 대북파의 영수인 이이첨(李爾瞻, 1560~1623)의 호이다. 1594년 문과에 허균과 함께 급제하여, 광해군 시절에 정권을 함께 이끌었다. 예조판서에 대제학을 겸임했다가, 인조반정에 처형당했다.

그대 지금 부윤이 되어 의주로 향하네.[61]
패강 남쪽 언덕에 쉬며 돌이켜 보니
그대 문이 가까이 있어도 만 산이 막힌 듯하네.

251. 送李觀松之龍灣
猻猻金風動塞關 君今作尹向龍灣
浿江南畔休回首 咫尺君門隔萬山

말을 점고하러 서울로 가는 정사휘를 보내며

서리 친 가을 강가에 나뭇잎 날리는데
그대를 관로로 보내니 더욱 서운하네.
지금같이 늙어서 집도 없이 헤어지다니
구월이라 서풍 불어 겨울 옷 보낼 때 되었네.[62]

252. 送鄭士徽點馬之京
霜落秋江木葉飛 送君關路更依依
如今老去無家別 九月西風近授衣

신부 단장을 재촉하며 장난삼아 교산에게 지어 주다

1.

61) 허균의 동료 이이첨(李爾瞻)이 1609년 8월에 의주부윤으로 부임해가며 평양을 지났는데, 평양에 있던 손곡이 대동강 가에서 만나 이 시를 지어 주었다.
62) 9월이 되면 겨울옷을 만들어 보내야 하기 때문에, 9월을 수의(授衣)라고도 했다.

서궁의 작은딸 옥치랑[63]께서
운우(雲雨) 노래[64]를 훔쳐 베끼느라 동방을 닫았구나.
엿보지 못하도록 다른 사람 오는 걸 금하고
아름다운 화촉 밝혀 신선 낭군을 기다리네.

253. 催粧 戱贈蛟山 1

西宮季女玉卮娘 偸寫雲謠閉洞房
禁着外人窺不得 九華蓮燭待仙郎

2.

선가의 꽃촛불에 세 하늘[65]이 막혀
이슬에 젖은 은하수 오작교를 건너네.
옥병풍 펼쳐 놓고 붉은 부절 맞이하니
오색 난새 한밤중에 아름다운 피리를 부네.

催粧 戱贈蛟山 2

仙家花燭隔三霄 露濕銀河渡鵲橋
開着玉屛迎絳節 彩鸞中夜喚文簫

헤어지는 마음

오늘 아침 헤어지며 서관 땅을 나서려니

---

63) 어떤 서생이 신녀(神女)를 만나 호승(胡僧)을 보고 그를 가리키며 말했다. "저 여인이 서왕모(西王母)의 셋째 딸 옥치랑(玉卮娘)이다." -『성재잡기(誠齋雜記)』. 허균이 이때 결혼한 부인은 김대섭의 둘째 딸이다.
64) 운요(雲謠)는 운우지락(雲雨之樂)을 노래한 시이다.
65) 도가에서 말하는 청미천(淸微天)·우여천(禹餘天)·대적천(大赤天)을 가리키는데, 높은 하늘이라는 뜻으로도 썼다.

서쪽으로 언제 돌아오느냐고 내게 묻네.
낭군께서 돌아오시지 않고 부질없이 첩만 남는다면
첩의 몸이 마침내 망부산[66]에 오르겠지요.

254. 別意

今朝離別出西關 問我西歸幾日還
郎若不歸空有妾 妾身終上望夫山

호남에서 서중에게 부치다

호남의 나그네 되니 친구도 드문데
바다 기러기 봄을 만나 다시 북으로 나는구나.
편지 한 장 부쳐 안부 물으려 해도
서울로 날아갈 건지 알 수가 없네.

255. 湖南 簡恕仲

湖南爲客故人稀 海雁逢春更北飛
欲寄一書相問訊 不知飛向帝城歸

스님의 시축에 쓰다

집 떠난 지 여러 날 동안 산으로 다니다보니
꽃가지에 남은 봄이 많지 않구나.

---

66) 중국 호북성 무창 북산에 망부석(望夫石)이 있다. 옛날 어느 열녀가 국난에 징병되어 간 남편을 북산에 올라가 날마다 바라보다가 그대로 돌이 되었다고 한다.

오직 봄을 아끼는 한없는 마음이 있어
억지로 병든 몸 일으켜 남은 꽃을 꺾네.

256. 題僧軸
離家數日行山路 春在花枝亦不多
唯有惜春無限意 强扶衰病折殘花

한양에서 느낀 바 있어

1.
좋은 자리의 높은 벼슬아치들 곳곳에서 만나는데
수레는 물같이 흘러가고 말도 마치 용 같구나.
장안의 길 위에서 헛되어 머리를 돌리니
그대의 집이 곁에 있지만 아홉 겹이나 닫혀 있더라.

257. 洛中有感 1
好爵高官處處逢 車如流水馬如龍
長安陌上時回首 咫尺君門隔九重

2.
성채는 들쑥날쑥 큰 집들이 잇달았는데
권문세가의 풍류 소리가 구름과 연기를 흔드는구나.
파릉교[67] 위에서 나귀를 탄 나그네가
양양의 맹호연 혼자만은 아닐 것일세.

67) 장안 동쪽 파수(灞水) 위에 놓은 다리인데, 옛사람들이 이별할 때 이 다리에 이르러 버들가지를 꺾어주며 작별하였다.

洛中有感 2
城闕參差甲第連 五侯歌管沸雲煙
灞陵橋上騎驢客 不獨襄陽孟浩然

동쪽 교외로 허미숙[68]을 찾아가다

밭 사이로 말채찍하며 가노라니 길이 평탄치 않아
시내 건너 정자에서 봄갈이 농부에게 물었네.
만난 뒤에도 저마다 얼굴 변해서
이십년 전의 옛 이름을 대야 알았네.

258. 東郊 訪許美叔
策馬田間路不平 隔溪亭榭問春耕
相逢各自容顔改 二十年前舊姓名

고죽[69]의 시골집을 바라보다

멀리 시골집 바라보니 눈물이 수건에 가득해
다섯 해[70] 된 무덤은 가시나무로 덮였네.
서주 문 밖에선 양담(羊曇)[71]이 취했었고

68) 허균의 작은형인 허봉(許篈, 1551~1583)의 자가 미숙인데, 손곡 이달과 가깝게 지냈다. 허균에게 손곡을 스승으로 추천한 사람도 허봉이었다. 1585년 갑산에서 유배가 풀린 뒤에도 서울로 돌아오지 못했다.
69) 삼당시인의 한 사람이었던 친구 최경창(崔慶昌)의 호이다. 손곡보다 30년 먼저 세상을 떠났다.
70) 고죽은 1583년에 세상을 떠나 경기도 파주에 장사지냈으므로, 글자 그대로 5년 되었다면 1588년에 지은 시이다.
71) 진(晉)나라 태산(泰山) 사람으로, 사안(謝安)의 생질이다. 자기를 알아주

다시 산양(山陽)에 피리 듣는 사람이 있었지.[72]

259. 望孤竹村莊
遙望村莊淚滿巾 五年墳樹蔽荊榛
西州門外羊曇醉 更有山陽笛裏人

무산 가는 길에서 비를 만난 감회

높은 숲 푸른 봉우리에 석양이 둘렀는데
무산[73] 가는 길을 필마로 돌아드네.
신녀는 벌써 아시는가, 시인이 오시는 줄을
짐짓 비를 뿌려 나그네 옷을 젖게 하네.

260. 巫山道中 逢雨感懷
高林蒼巘帶斜暉 路繞巫山匹馬歸
神女已知詞客至 故敎行雨濕征衣

던 사안이 죽은 뒤에는 서주의 길로 다니지 않다가, 술에 몹시 취해자기도 모르게 서주의 길로 갔다. 사람들이 서주라고 말하자, 크게 슬퍼하며 자건(子建)의 시를 읊고 돌아갔다.

72) 진나라 향수(向秀)가 산양의 옛집을 지나다가 피리 소리를 듣고, 옛일을 그리워하며 「사구부(思舊賦)」를 지었다.

73) 예전에 선왕(先王, 초나라 회왕)이 한번은 고당(高唐)에 놀러갔다가 나른해져 낮잠을 자는데, 꿈에 한 부인이 나타나서 말하였다. “첩은 무산의 선녀인데 고당의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임금께서 고당에 놀러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으니 잠자리를 모시고 싶습니다.” 왕이 그래서 그를 사랑하자, 그 선녀가 떠나면서 말하였다. “첩은 무산의 남쪽, 고구의 험한 산에 있습니다. 아침에는 구름이 되고, 저녁에는 비가 되어, 아침 저녁마다 양대 아래에 있겠습니다.” - 송옥(宋玉) 「고당부(高唐賦)」. 평안도 성천도호부 흘골산에 열두 봉우리가 있어, 무산십이봉이라 불렀다. 이 시에서는 성천 흘골산을 지나간다는 뜻이다.

공강정[74]

헤어진 사람 홀로 앉아 마음 아득한데
차가운 강에 나뭇잎 지니 나루터는 가을일세.
관해에 요즘 들어 원망스런 이별이 많아
나그네길 가는 곳마다 다락에 오르기 싫구나.

261. 控江亭

離人獨坐意悠悠 木落寒江水驛秋
關海近來多怨別 客行隨處倦登樓

성천에서 서울 기생 환어사[75]에게 지어 주다

1.
연화대[76] 속에는 옛 이원[77]의 자취 있고
법부[78]에는 정재(呈才)[79]가 많아 임금님을 가까이 했네.
일찍이 태평시절 이야기지만

74) 평안도 정주목에 있던 정자인데, 사신들이 자주 올랐다.
75) 임해군의 기생첩이다. 임해군이 역모로 잡혀가자 달아났는데, 1614년에 잡혀 심문받다가 옥에서 죽었다.
76) 고려시대부터 조선 말기까지 연화대(蓮花臺)라는 춤이 전승되었는데, 이 춤을 추는 기녀들을 뜻하는 듯하다. 원무(元舞) 4명에 전대(前隊) 6명, 중대(中隊) 6명, 후대(後隊) 6명을 더하여 추었다.
77) 당나라 때에 현종이 설치하여, 나라에서 노래와 춤을 가르치던 곳이다. 그곳에서 배우던 사람들을 제자라고 불렀는데, 대개 광대나 궁녀들이었다. 조선시대에도 장악원(掌樂院)을 이원이라고 불렀는데, 영조가 '이원'이라는 말을 쓰지 못하게 하였다.
78) 당나라 때에 황궁(皇宮) 이원에서 법곡(法曲)을 연습하고 연주하던 부(部)인데, 나중에는 교방(敎坊)이나 법곡을 가리키기도 하였다.
79) 궁중에서 잔치 때에 공연하던 노래와 춤.

눈물 떨어져 낭군께 말하기 어렵네.

262. 成川 贈京妓喚御史 1
蓮花隊裏舊梨園 法部豐呈近至尊
曾是太平全盛事 不堪垂淚對郎言

2.
금니향 첩첩한 석류빛 치마
가야금에 원망 실어 손끝 아래 들려오네.
무협 골짜기 작은 집에 살며
몇 번이나 비가 되고 구름 되었던가.[80]

成川 贈京妓喚御史 2
金泥香疊石榴裙 怨入瑤琴指下聞
來住小莊巫峽裏 幾回爲雨更爲雲

3.
경성 네거리에서 나고 자라
문 앞에 작은 금패를 깊숙이 붙였지요.
지금은 난리중이라 가무 소리 그쳤으니
상자 속의 옥비녀[81]를 이따금 꺼내 보지요.

成川 贈京妓喚御史 3
生長京城十字街 門前深貼小金牌
如今離亂停歌舞 篋裏時看玉燕釵

80) 평안도 성천에 무산(巫山) 12봉이 있고 강선루(降仙樓)라는 누정까지 있었으므로, 무산 신녀의 운우지락(雲雨之樂)을 끌어왔다.
81) 원문의 옥연채(玉燕釵)는 옥으로 만든 제비 모양의 비녀이다.

스님의 시축에 차운하다

동자가 물병을 들고 정화수[82]를 길어 와서
돌산 샘물 맛을 사람들에게 자랑하네.
잠깐 사이 화로 속 불을 헤치더니
향등을 마주하고 앉아 외로이 차를 달이네.

263. 次僧軸韻

童子持甁汲井華 石山泉味向人誇
須臾手撥爐中火 坐對香燈獨者茶

이회원에게 지어 주다

난리 속에 서로 만나고 보니
눈에는 걱정만 가득 저자 거리는 텅 비었네.
계절과 사물은 사람의 변화를 따르지 않아
상림[83]의 꽃과 버들 또한 봄바람일세.

264. 贈李會源

---

82) 우물물을 새로 길으면 병을 낫게 하고 사람을 이롭게 한다. 새벽에 처음 긷는 물을 정화수라고 하는데, 그 효능이 아주 넓어서 다른 물들과 같지 않다. - 이시진『본초강목(本草綱目)』「정천수(井泉水)」집해(集解). 첫새벽에 남이 긷기 전에 처음 긷는 우물물인데, 제사를 지내거나 약을 달일 때에 쓴다.

83) 천자의 동산 이름인데, 진시황 때에는 섬서성 서안시 서쪽에 있었으며, 한나라 광무제 때에는 하남성 낙양시 동쪽, 남조(南朝) 송나라 때에는 강소성 남경시 현무호 북쪽에 있었다. 그 이후에는 제왕의 동산을 상림이라고 했는데, 우리나라 경우에는 창덕궁 요금문 밖에 있는 어원(御苑)을 상림원(上林苑)이라고 했다. 상림십경(上林十景)이 있다.

相逢自是亂離中 滿目傷心市井空
節物不隨人事變 上林花柳亦春風

상사일[84]

장안 궁궐에 오던 비 막 개이니
수양버들이 연기같이 비단 성을 스치네.
이월에 집을 떠나 한식을 지내고
지금은 나그네로 청명이 되었네.

265. 上巳
長安宮闕雨新晴 楊柳如煙拂綺城
二月離家過寒食 只今爲客到淸明

강가를 따라 가다

강가를 따라 십리길
지는 꽃 밟느라 말발굽 향기롭네.
부질없이 산천을 쏘다닌다 말하지 말게.
새로운 시 얻어 비단 주머니[85]에 가득하다네.

---

84) 음력 3월의 첫째 사일(巳日)인데, 이날 냇가에서 계(禊)를 하여 그 해의 액운을 물리쳤다. 위(魏)·진(晉) 이후에는 3월 3일로 정하여 행사를 치렀다. 삼짇날이다.

85) 당나라 시인 이하(李賀)가 밖에 나갈 때마다 말을 타고서 종에게 낡은 비단 주머니를 들려서 따라오게 한 다음, 좋은 시 구절이 떠오를 때마다 써서 주머니에 넣었다.

266. 江行

路繞江干十里長 落花穿破馬蹄香
湖山莫道空來往 贏得新詩滿錦囊

신판관에게 지어 주다

때는 바로 봄바람 부는 삼월이라
복사꽃 웃는 듯하고 버들은 자는 듯하네.
벼슬살이 그만두고 얼마간 마음 아픈 일을
모두 거문고에 부쳐 「백설곡」[86]을 타네.

267. 贈申判官

正是春風三月天 桃花如笑柳如眠
罷官多少傷心事 盡付瑤琴白雪絃

아내의 죽음을 슬퍼하다[87]

86) 사광(師曠)이 지은 구슬픈 상조(商調)의 곡(曲)이라고도 하고, 『당서(唐書)』「악지(樂志)」에는 '주(周)나라 곡'이라도 했다. 초나라 시인 송옥(宋玉)이 연주하고 「풍부(諷賦)」를 지으면서 유명해졌다.

87) 소동파가 이런 시를 지었다. 쓸쓸한 강가 모래밭엔 십리 가득 봄빛이 깔렸는데, 한번 꽃이 늙어지면 다시 한번 새로 핀다네. 작은 다락은 옛날 그대로 저무는 햇볕 속에 있건만 그때에 춤추던 사람 다시는 볼 수 없구나. 손곡이 지은 「도망시(悼亡詩)」도 또한 소동파의 시어를 본받았는데, 그 시는 이렇다. (위의 시에서 처음 네 글자가 다르게 인용되었다. '비단 장막엔 향내가 스러지고[羅幃香盡]' 다음부터는 같기에 생략한다.) 손곡의 시가 너무 아름답고 정을 끌기에, 옛사람의 말을 빌어다 쓴 것도 깨닫지 못하였다. - 허균 『학산초담』.

화장대엔 거미줄, 거울엔 먼지
문 닫힌 뜨락 복사꽃, 봄 더욱 쓸쓸해라.
작은 다락 옛 그대로 달빛 속에 있건만
주렴 걷는 이 누구인지 모르겠구나.

268. 悼亡

粧奩蟲網鏡生塵 門掩桃花寂寞春
依舊小樓明月在 不知誰是捲簾人

그 자리에서

여강 나루터에서 아전과 함께 배 타고
삼월 연기와 꽃 속에 급류를 내려가네.
한 평생 예전부터 서로 안 것 아니지만
인간 세상의 이별이 모두 시름이라오.

269. 卽事

驪江津吏具行舟 三月煙花下急流
不是平生舊相識 人間離別摠關愁

님에게 지어 주다

육년 동안 영호남은 아직 전쟁 중이라
피난하여 서쪽에 오니 나그네 살림 가난하네.
이르는 마을마다 시끄러운 일 많아서
문 나서면 모두 다 점호 취하는 군사들일세.

270. 贈人

六年湖嶺尙風塵 避地西來旅食貧
到處鄕閭多擾擾 出門俱是點兵人

그림

시냇가 다리 급한 물살에 저녁 구름 많은데
고목 푸른 연기에 갈가마귀 모여드네.
구름 밖에 작은 산은 푸른색을 칠한듯
저녁 햇살 밝은 곳에 사람 사는 집이 있네.

271. 畫

溪橋水急暮雲多 古木蒼煙集亂鴉
雲外小山靑一抹 夕陽明處有人家

한익지[88]와 헤어지며 지어 주다

양산 이월은 추위 엉겨 괴로우니
눈이 산천에 가득하고 봄빛은 보이지 않네.
내일은 서쪽으로 수양의 길을 떠나
가마로 편안하게 어머니를 모시리라.

---

88) 한준겸(韓浚謙, 1557~1627)의 자가 익지(益之)이고, 호는 유천(柳川)이다. 1589년에 금천현감으로 임명되었을 때에도 늙은 어머니가 있는 것을 알고, 선조가 사가독서(賜暇讀書)의 특전을 베풀었다. 판서와 관찰사를 역임했으며, 인조반정 뒤에 그의 딸이 인열왕후에 봉해져 영돈녕부사에 올랐다. 원주에 살았다.

272. 贈別韓益之
楊山二月寒凝苦 雪滿山川不見春
明日西行首陽路 肩輿穩侍大夫人

채경일이 그윽하게 사는 곳에 쓰다

중화 동쪽 마을에 채군이 살고 있어
풍년 든 뜨락에 노적가리 넉넉하네.
세금 실어 바친 것 말고 한 해가 다 가도록
문 닫고 일이 없어 시서(詩書)나 보네.

273. 題蔡景一幽居
中和東面蔡君居 農圃登場積有餘
終歲任輸關稅外 閉門無事看詩書

이인서의 집에서 신부 화장을 재촉하며

금박 입힌 고운 속옷에 부용꽃 수 놓고
열두 겹 선루에서 밤 잔치를 벌이네.
붉은 촛불 환히 밝히고 옥비녀 재촉해 올리니
비단 병풍 속에서 비단 버선 조용히 걷네.

274. 李仁瑞家催粧詩
金泥花襯繡芙蓉 夜宴仙樓十二重
催上玉釵紅燭爛 錦屛羅襪步從容

찰방[89] 권중명[90]에게 지어 주다

중화[91]에서 한번 웃음 옛날의 정이더니
만리 서울로부터 뗏목 타고 왔네.[92]
오늘은 대동강 위에서 정다운 이야기 나누지만

89) 찰방은 조선시대에 각 도의 역참(驛站)을 관리하던 종6품 벼슬이다. 조선 초기에는 역승(驛丞, 종9품)과 정역찰방(程驛察訪)이 함께 설치되었는데, 정역찰방은 역승의 잘잘못을 규찰하거나, 주군수령(州郡守令)의 탐학과 민간의 고통을 살펴 엄히 다스렸다. 1457년(세조 3)에 전국의 역승을 다 없애고 찰방으로 대치했는데, 서리 출신의 역승들이 사사롭게 이익을 도모하거나 백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역승의 관품이 높지 않아서 지나다니는 관리들이 폐를 끼쳤기 때문이다. 찰방이 너무 많은 역을 관리하기 힘들다고 해서 한때 역승을 다시 두기도 했지만, 1535년(중종 30)에 역승을 완전히 폐지하였다. 찰방은 역리(驛吏)를 포함한 역민의 관리, 역마의 보급, 사신의 접대 등을 총괄하는 역정(驛政)의 책임자일 뿐만 아니라, 북방지역에서는 유사시에 합배(合排 : 합경도·평안도 지방의 연안에 설치한 군사적 성격의 역마을)를 순행하면서 방어하는 임무도 수행하였다. 행정면에 있어서는 대간(臺諫)이나 정랑직(正郞職)에 있는 명망있는 문신을 차출하여 지방 주현에 파견하므로써, 수령의 탐학과 민간의 질병까지도 자세히 살펴서 민생안정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90) 이 시대에 중명(仲明)이라는 자(字)를 쓴 권씨는 권욱(權昱)만 알려졌는데, 1584년생인데다 1605년에 진사시에 합격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손곡 생존시에 찰방(종6품)까지 승진할 수 있었는지는 확실치 않다.

91) 황해도 고을인데, 황주와 평양 사이에 있다. 명나라 사신이 오가는 길목이다.

92) 옛날에 전해지는 말로는, 하늘의 은하수와 바다가 서로 통한다고 한다. 얼마 전에 한 사람이 바다 섬에 살고 있었는데, 해마다 8월이면 뗏목을 띄워 은하수와 바다 사이를 오가면서 그 기한을 어기지 않았다. - 장화『박물지』. 이 사람을 사객(槎客)이라고 했는데, 그 뒤에는 먼 길 떠나는 사신(使臣)을 가리키는 말로도 쓰였다. 원문의 '승사(乘槎)'는 '뗏목을 탄다'는 뜻이지만, '사신으로 간다'는 뜻으로도 쓰였으며, 사신으로 다녀온 기행문의 제목을 '승사록(乘槎錄)'이라 한 경우도 많다. 배를 타지 않아도 '승사(乘槎)'라고 하였다. 이 시에서는 왕명을 받고 의주까지 출장중이거나, 명나라 사신을 맞으러, 또는 명나라에 가는 사신의 일행으로 의주에 가기 때문에 '승사(乘槎)'라는 말을 썼다.

내일 아침 다시금 의주로 떠나야 하네.

275. 贈權察訪仲明
中和一笑昔年情 萬里乘槎自帝京
今日大同江上話 明朝還有義州行

서울로 올라가는 좌랑 윤휘[93]를 송별하며

1.
구월이라 요양 땅에 변새 풀이 시들고
삭풍에 서리 기운 나그네 옷에 가득하네.
길 가는 사람은 연산 가까이 투숙하려는데
들판에 어린 기러기는 새벽이라 날지 않네.

276. 送尹佐郎暉之上京
九月遼陽塞草腓 朔風霜氣滿征衣
行人欲近燕山宿 雁乳平蕪曉不飛

2.
진나라 때에도 옛 장성을 쌓았는데
말에게 물 먹이는 회중[94] 굴은 평정되지 않았네.[95]

93) 윤휘(尹暉, 1571~1644)의 자는 정춘(靜春), 호는 장주(長洲)인데, 영의정 윤근수의 아들이다. 이 시를 지은 1596년에 병조좌랑을 지냈으며 도승지를 거쳐 형조판서까지 지냈다.

94) 감숙성 고원현에 세웠던 진나라 궁전인데, 남쪽 견수(汧水)에서 북쪽 소관(蕭關)까지 가는 길 이름도 '회중'이다. 회중을 통과하기 때문에 그렇게 불렀다. 임진왜란을 마무리하며 바쁘게 다니는 병조좌랑 윤휘에게 지어준 시이기 때문에 이런 용어들을 썼다.

95) 장성은 진나라 때에 쌓았는데, 오랑캐에 대비한 것이다. 그 아래 샘이

만리 나그네가 관새에서 잠자려는데
지금은 오랑캐 병사가 엿보지 않는다네.

秦時猶築古長城 飮馬回中窟未平
萬里征人關裏宿 至今胡虜不窺兵

3.
봉래전 안에 일양(一陽)[96]이 살아나
수래로 실어온 만국의 책들이 서울에 모여드네.
동쪽 나라 사신이 직공을 갖추려고
봉천문 밖에서 닭 울기를 기다리네.

蓬萊殿裏一陽生 萬國車書會帝京
東土使臣脩職貢 奉天門外待鷄鳴

그림에 쓰다

1.
삼월이라 복사꽃 산 가득 피었는데
흐르는 물에 꽃을 띄워 인간 세상에 보내네.[97]

흐르는 굴이 있어, 말에게 물을 먹일 수 있다. 멀리 떠난 사람들이 이곳에 이르면 마음이 서글퍼진다. 천하에 정역(征役)과 전쟁이 그칠 날 없어, 부인이 남편을 생각하며 이 시를 지었다. -『문선(文選)』「음마장성굴행(飮馬長城窟行)」 오신주(五臣注). 원래 이 시는 부인이 전쟁터에 나간 남편을 그리워하며 지은 시인데, 손곡이 병조좌랑 윤휘에게 이 용어를 써서 시를 지어준 것이다.

96) 홀수는 양(陽)이고, 짝수는 음(陰)이다. 음력 10월에 한 해의 음(陰)이 다하고, 11월 동지에 1양(陽)이 생긴다고 하였다. 한겨울에 봄기운이 시작된다는 뜻이다. 이날이 바로 동짓날이다.

동구에서 은근한 마음으로 그대를 보내니
이번 가면 외로운 배가 언제 돌아오려나.

277. 題畵

三月桃花開滿山 泛花流水出人間
殷勤洞口好相送 此去孤舟何日還

2.
황학루 앞에 가을달이 밝은데
한 줄기 피리 소리가 강을 비껴 건너네.
잠시 있다 곡조 끝나 학들이 날아가자
다시 하늘바람 몰아 상청으로 돌아가네.

黃鶴樓前秋月明 一聲長笛過江橫
須臾曲盡鶴飛去 更馭風天歸上淸

서울로 가는 사람을 보내며

서관 땅은 아득히 서울에 닿았는데
먼 길에 봄을 만나 풀이 다시 돋아나네.
난리 뒤라 집과 나라 깨어지고 망했으니
눈물이 흘러 그대를 보낼 수가 없네.

---

97) 도연명의 「도화원기(桃花源記)」에 의하면, 무릉도원에서 복사꽃이 떠 내려와 사람들이 그곳을 알게 된다. 이백의 「산중문답(山中問答)」에도 "흐르는 물 위에 복사꽃 떠내려 오니, 사람들 살지 않는 또다른 세상이 있나 보네[桃花流水杳然去, 別有天地非人間]"라고 하였다. 이 시에서 '인간(人間)'은 '사람이 사는 세상'이다.

278. 送人入京

西關迨遞接秦京 遠路逢春草又生
家國破亡離亂後 不堪垂淚送君行

운을 부르다[98]

날이 맑아 굽은 난간에 오래 앉아 있었지만
겹문까지 닫아걸고 시도 짓지 않네.
담 구석의 작은 매화가 바람에 다 떨어지니
봄빛은 살구꽃 가지 위로 옮겨 가는구나.

279. 呼韻

曲闌晴日坐多時 閉却重門不賦詩
牆角小梅風落盡 春心移上杏花枝

절강 사람 계옥에게 지어 주다

새로 지은 아청빛 소매 좁은 두루마기

98) 손곡 이달은 젊었을 때 하곡(荷谷) 허봉(許篈)과 더불어 서로 가깝게 지냈다. 하루는 손곡이 하곡의 집으로 찾아갔는데, 마침 하곡의 동생인 교산 허균이 와 있었다. 교산은 익지를 곁눈길로 잠시 훑어보고는, 예의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시에 대하여 제멋대로 이야기했다. 그래서 그의 형인 하곡이 말하였다. "시인이 이 자리에 와 있는데, 자네는 일찍이 이 사람의 이름을 들어보지도 못했는가? 청컨대 자네를 위해 시 한편을 지어 보리라." 하곡이 즉시 운을 부르자, 익지가 곧 이에 응하여 절구 한 수를 지었다. (위의 시 낙구) 교산은 얼굴빛을 고치고, 깜짝 놀라 일어나서 머리를 굽혀 사죄하였다. 그리고는 시로써 벗을 맺었다. - 홍만종『소화시평』권상.

임조[99]에서 싸우는 날랜 장수 따라 멀리 왔네.
남아의 의기로 마음 서로 허락했는데
허리에는 천금 가는 보배로운 칼을 찼네.

280. 贈浙江人桂玉
新制鴉青窄袖袍 遠隨飛將戰臨洮
男兒意氣還相許 腰下千金有寶刀

가을밤 정우당[100]에서 율곡과 함께 이야기하다가 운을 부르다

섬돌 잔디에서 귀뚜라미 원망스레 울고
쓸쓸한 촛불 거의 타버려 밤 기운이 차갑네.
저마다 난간에 기대어 함께 잠 못 들며
연못 가을 연잎에 성긴 빗소리를 듣네.

281. 秋夜淨友堂同李栗谷話因呼韻
陰蟲切切怨階莎 孤燭燒殘夜氣多
各倚小闌同不寐 一池疏雨聽秋荷

그림에 쓰다

발 장막 쓸쓸하고 작은 집은 그윽한데

---

99) 중국의 현(縣) 이름인데, 진나라 때에 몽염(蒙恬)이 여기서 요동까지 장성(長城)을 쌓았다. 이 시에서는 국경 너머 먼 곳이라는 뜻으로 썼다. 계옥은 임진왜란에 종군한 중국 문인인 듯하다.

100) 정우당은 율곡 이이의 조카인 이경진(李景震, 1559~1594)의 정자이다. 이경진의 자는 성보(誠甫)이며, 우계 성혼의 제자이다.

한 뜨락 파초 잎새 가을 비 소리 들리네.
연못에 물이 차고 연잎은 꺾였는데
원앙새 한 쌍이 머리 나란히 서 있네.

282. 題畫

簾幕蕭蕭小院幽 一庭蕉葉雨聲秋
池塘水冷荷摧折 唯有鴛鴦立岦頭

고죽에게 부치다

동성에서 까마득히 서성을 바라보며
두 곳의 정을 몇 번이나 그리워했던가.
내일 서울을 떠나 강길을 거슬러 가면
자갈 모래에 붉은 잎새 가을 소리 다하리라.

283. 寄孤竹

東城迢遞望西城 幾度相思兩地情
明日離京泝江路 磧沙紅葉盡秋聲

삼청동에 놀다

신선세계 경쇠 소리만 고요하고 밤 전각은 텅 비었는데
뭇 별들이 흰 구름 속에서 멀리 절하네.
조금 있다 도사가 문 닫은 뒤에
천상의 바람결에 향기 한 점 흩날리네.

284. 遊三淸洞

仙磬寥寥夜殿空 衆星遙拜白雲中
須臾道士關門後 一點香飄上界風

불을 얻다

백마강 나룻가에 나루터 아전이 살아
이엉으로 지붕 엮고 강 모퉁이에 숨어 지내네.
길 가던 사람이 불 얻으려고 고기잡이 집을 두드려도
대 울타리에 눈 쌓인 채로 문도 열어보지 않네.

285. 乞火

白馬津邊津吏住 縛茅編屋隱江隈
行人乞火扣漁戶 雪壓竹籬門不開

서울에 가는 친구를 보내면서

홍농[101] 고을 밖에 해가 막 비끼는데
그대 보내는 서울에 꽃은 다시 지겠지.
길은 멀고멀어 한식이 되었으니
나그네로 멀리 집 떠남을 견딜 수 없네.

286. 送友人之京

弘農郭外日初斜 送子秦城更落花

101) 조선시대에 전라도 영광군에 속한 부곡(部曲)이었다가 면(面)으로 승격했으며, 현재는 영광군 홍농읍이 되었다.

關路迢迢寒食節 不堪爲客遠離家

병으로 영성 연각에 머물면서 주인[102]에게 지어 보이다

새벽 노을 나무를 감싸고 달은 막 기우는데
병든 나그네 가을 만나 갑절이나 집이 그립네.
서글피 난간에 기대어도 사람은 뵈지 않고
땅 가득 차가운 이슬에 연꽃도 젖었네.

287. 滯病寧城蓮閣示主人
曙霞籠樹月初斜 客病逢秋倍憶家
怊悵倚闌人不見 滿池凉露濕荷花

장사[103] 태수의 능양 유거 사시에 쓰다

봄

새로 띠집 엮어 석단을 덮고
대울타리 이끼 낀 길이 푸른 기운 속에 있네.
사립문에 하루 종일 찾아오는 사람 없고
곳곳마다 봄 구름이 먼 산에서 나네.

288. 題長沙倅綾陽幽居四時 1

---

102) 영성의 연각은 천안군 관아의 누각이니, 주인은 손여성이다.
103) 고려시대의 무송현과 장사현을 조선 태종 17년(1417)에 합하여 무장현이라 하였다.

新結茅茨覆石壇 竹籬苔逕翠微間
柴門盡日無人到 處處春雲生遠山

이월이라 강에는 봄물이 퍼졌는데
눈처럼 흰 모래밭에 갈대싹이 돋아나네.
물살 따라 복어가 올라온다고 아이들이 급히 알리자
배 꼬리에 그물 치고 강둑 따라 저어가네.

題長沙倅綾陽幽居四時 2
二月春江春水平 江沙如雪荻芽生
兒童急報河豚上 船尾持罾傍岸行

여름

사월이라 강가 밭에 보리가 누렇게 익고
집집마다 거리마다 채소꽃 향기롭네.
짙은 그늘 땅에 가득해 해는 한낮인데
대자리 명아주 상에 꿈만 길구나.

題長沙倅綾陽幽居四時 3
四月江田大麥黃 家家門巷菜花香
濃陰滿地日亭午 竹簟藜牀山夢長

마을 앞에도 뒤에도 오던 비 방금 개어
집 아래 참외밭을 내가 손수 매었네.
깊은 골목 긴 하루 동안 아무런 할 일이 없어
나무 그늘에 평상을 옮겨놓고 아이에게 글 읽히네.

題長沙倅綾陽幽居四時 4
村南村北雨晴初 舍下爪田手自鋤
深巷日長無箇事 樹陰移榻課兒書

가을

연주산 아래로 큰 강물이 흘러가고
강 위의 겹겹 산봉우리는 담쟁이로 단풍들었네.
모랫둑 안에서 벼를 베는 마을길은 멀기만 한데
숲 저편 고기 낚는 배에서 말소리가 들리네.

題長沙倅綾陽幽居四時 5
聯珠山下大江流 江上層巒薜蘿秋
沙岸刈禾村路遠 隔林人語釣魚舟

하늘가에 열두 봉우리 멀고도 멀어
봉머리에 아침 저녁 오색 구름 짙구나.
하룻밤 새 첫서리가 산속에 내려
첩첩 봉우리 이어진 산에 비단 수를 놓았네.

題長沙倅綾陽幽居四時 6
天際遙遙十二峯 峯頭朝暮綵雲濃
新霜一夜山中下 疊嶂連巒錦繡重

겨울

강마을에 눈 내린 뒤 사립문은 닫히고
차가운 연기 성긴 숲에 참새마저 드물구나.

늙은이는 화롯가에 앉아 이따금 손을 쬐며
옷솜 두는 아낙네를[104] 웃으며 바라보네.

題長沙倅綾陽幽居四時 7
江村雪後掩柴扉 煙冷疏林鳥雀稀
老子當爐時煖手 笑看中婦絮寒衣

벽에는 낡은 오사(烏紗) 갓이 먼지에 덮여
한번 웃고 돌아오면 세월을 느끼네.
창 밖에 작은아이가 기쁜 소식 알려 주니
갯마을 옅은 눈 속에 매화가 피었다네.

題長沙倅倅綾陽幽居四時 8
塵埋屋壁舊烏紗 一笑歸來感歲華
窓外小童來報喜 水村微雪有梅花

두산현[105]에서 비바람 부는 밤의 감회

어둡고 외로운 성에 한밤중 비바람 쳐
성의 나무 울부짖는 바람에 잎새마다 소리 지르네.
가지에 잠들었던 새, 둥우리 흔들리자
어지러이 떼 지어 날며 빗속에서 울어대네.

---

104) 『악부시집』「장안유협사행(長安有狹斜行)」에 대부(大婦)·중부(中婦)라는 표현을 썼는데, 중부는 둘째 며느리다. 그러나 이하(李賀)의 「뇌공시(惱公詩)」에 쓰인 '중부'에 대해선 섭총기(葉葱奇)의 주에서 "중부(中婦)는 그 아내를 가리킨다"고 하였다.

105) 전라도 만경현(萬頃縣)의 옛이름이 두산현이다. 백제 두내산현(豆內山縣)의 발음이 변한 것이다.

289. 杜山縣夜風雨感懷
三更風雨暗孤城 城樹風號葉葉聲
枝上宿禽棲不定 亂群飛起雨中鳴

만청포에서 토정의 옛집을 바라보면서 서글피 짓다

만청 포구에서 사공을 부르는데
어부 집에서 연기 오르고 해는 기우네.
일찍이 토정이 살던 곳을 멀리 바라보니
한 줄기 시든 눈물이 강 물결에 지네.

290. 蔓菁浦 望土亭舊業 悵然作
蔓菁浦口呼舟子 漁戶煙生日欲斜
遙望土亭曾住處 一行衰淚落江波

비 온 뒤의 배꽃

여러 날 봄 그늘에 정원 문을 닫아 걸었더니
밤 깊자 가는 빗소리 발 사이로 들리네.
아침 오자 일어나 창 열고 바라보니
나무 가득한 배꽃이 따뜻한 구름 젖은 듯하네.

291. 雨後梨花
連日春陰閉院門 夜深微雨隔簾聞
朝來自起開窓看 滿樹梨花濕暖雲

피려다가 미처 피지 못한 매화를 읊다

대숲 밖에 매화나무 두세 가지 뻗었는데
뜰 거닐며 마주 보니 아직 피지 않았네.
일찍 불어온 동풍을 잘못 받아
바로 말없음이 식국(息國) 부인[106] 같구나.

292. 詠梅欲開未開者

竹外梅花三兩枝 步庭相對未開時
只緣强被東風誤 正似無言息國姬

양백휴에게 부치다

봄시름 반쯤 거문고에 부치다보니
금박[107] 향도 꺼지고 밤만 깊었구나.
슬프게도 고향 산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꿈속에 꽃비를 따라 동쪽 숲에 진다오.

293. 寄梁伯休

---

106) 채(蔡)나라 애후(哀侯)가 신(莘)과의 싸움에 보복하려고, 식규(息嬀)의 아름다움을 과장해서 초자(楚子, 초나라 문왕)에게 말하였다. 그러자 초자가 식(息)으로 가서 식후(息侯)에게 향연을 베푸는 척하다가 쳐서 없애고, 식규를 데리고 돌아갔다. 식규는 (초자의 아들인) 도오(堵敖)와 성왕(成王)을 낳았으면서도 초자와는 말하지 않았다. 초자가 그 까닭을 묻자, "나는 한 부인으로 두 남편을 섬겼으니, 비록 죽지는 못할망정 어찌 말까지 하겠습니까?"라고 했다.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 장공(莊公) 14년조. 원문의 식희(息姬)는 중국 춘추시대 식국(息國) 제후의 부인인데, 성씨는 규(嬀)이다.

107) 쇠로 만든 박산(博山) 향로(香爐)이다.

春愁一半付瑤琴 金博銷香夜閣深
惆悵故山歸不得 夢隨花雨落東林

쌍부[108] 상공이 순창 동헌에 지은 시에 차운하다

목련꽃 다 진 뒤에 엄나무꽃 피었는데
깊은 집에 사람 없고 제비들만 날아오네.
발 밖에 푸른 그늘 봄 낮은 긴데
수놓은 난간 동쪽 가에서 꿈을 막 깼네.

294. 次雙阜相公淳昌東軒韻
辛夷落盡刺桐開 深院無人燕子來
簾外綠陰春晝永 繡闌東畔夢初回

길을 가다 손곡의 옛집을 생각하며 지어서 고죽에게 보이다

집 가까이 푸른 시내에는 외나무로 다리를 놓았지.
다리 끝의 버드나무는 여린 가지가 간들거렸지.
양지 쪽에는 햇볕 따뜻이 들어 남은 눈도 녹았겠네.
아마도 잔디 뜨락엔 약초 싹이 자라고 있겠지.

295. 路中憶蓀谷莊示孤竹
家近靑溪獨木橋 橋邊楊柳弄輕條
陽坡日暖消殘雪 料得莎階長藥苗

108) 쌍부는 수원도호부에 속한 현(縣)이며, 쌍부의 성씨는 서(徐)·송(宋)·박(朴)·심(沈)·신(愼)이다. 쌍부상공이 누구인지는 알 수 없다.

꽃을 바라보며 늙음을 탄식하다

봄바람도 또한 공평치 않아
온갖 나무 꽃 피워도 사람만은 혼자 늙게 하네.
억지로 꽃가지 꺾어 흰 머리에 꽂아 보았지만
흰 머리와 꽃은 서로 어울리지 않는구나.

296. 對花嘆老
東風亦是無公道 萬樹花開人獨老
强折花枝揷白頭 白頭不與花相好

새하곡을 지어 병마절도사 유형에게 주다[109]

1.
말 타고 숨어들어 오랑캐 장막 엿보니
한나라 병사 깊이 들어 기연 땅을 지나가네.
앞선 군사 밤사이에 음산 길을 잃어버려
큰 눈이 눈 깜짝할 사이에 말과 안장 묻어버리네.

297. 塞下曲贈柳摠戎 1
探騎潛窺虜帳邊 漢兵深入過祈連

109) 제목 원문의 유총융(柳摠戎)은 당시에 병마절도사를 지내던 유형(柳珩, 1566~1615)인데, 손곡의 친구인 최경창의 외오촌조카이다. 자는 사온(士溫)이고, 호는 석담(石潭)인데, 손곡에게 시를 배웠다. 충무공과 함께 싸우면서 많은 공을 세워, 삼도통제사를 거쳐 황해병사로 재임 중에 죽었다. 「새하곡」은 변방의 괴로움이나 서글픔을 그리는 『악부』의 노래이다. 당나라 때에 「출새곡(出塞曲)」·「입새곡(入塞曲)」 등의 변형으로도 많이 지어졌다. 이달은 「출새곡」 3수와 「새하곡」 2수를 지었다.

前軍夜失陰山道 大雪須臾沒馬韉

2.
하룻밤 된서리에 황야의 풀은 시들었는데
호강교위 싸우고 방금 돌아왔네.
금창[110]에 피 솟는데다 가을 기운을 만나니
고향 바라보며 슬피 울다 갑옷채로 누웠네.

塞下曲贈柳摠戎 2
一夜繁霜磧草腓 護羌校尉戰新歸
金瘡血逆逢秋氣 哭望南雲臥鐵衣

110) 칼이나 창 따위의 날에 다쳐 쇠독이 든 상처이다.

부록 1

문집에 없는 시

기생들 공동묘지를 찾아서[1)]

모란봉 밑에 있는 선연동에는
미인들 묻혀 있어 풀빛 언제나 봄 같구나.
신선의 환술을 빌릴 수만 있다면
그 옛날 가장 아름답던 이를 불러 일으킬 수 있으련만.

牧丹峯下嬋娟洞 洞裏埋香草自春
若爲借得仙翁術 喚起當年第一人

---

1) 선연동은 평양 북쪽에 있는데, 예부터 기생들의 무덤이 첩첩이 쌓여 있었다. 옛사람이 이르기를, "선연동 속의 혼이 되기를 바라나이다"라고 했다. 손곡 이달이 서경(평양)에서 놀러 다니다가 선연동을 지나게 되었다. 때마침 메꽃은 바람에 흔들리고, 물기 머금은 구름은 꿈같이 둘려 있어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슬픈 마음에서 시 한 절구를 지었다(위의 시). 시 읊기를 마치고 여관에 취하여 누웠는데, 빛나는 옷을 입고 단장한 여러 기생들이 부드럽게 걸어와서 상투를 안으며 말하였다. "첩들은 선연동 속의 사람입니다. 지난 밤에는 은혜를 베푸시어, 귀하신 분께서 찾아 주셨습니다. 숨어 살던 귀신들이 빛을 얻어, 진중하게 감사드립니다." 새벽 종소리가 침상에 들려오기에 이달이 놀라서 깨어보니, 한갓 꿈이었다. 이튿날 이달이 선연동에 들어가서 차와 술을 그들에게 바치고는, 시를 지어 그들을 모셨다. 추연의 풍류가 아니더라도 그윽한 골짜기의 봄을 돌이킬 수 있다오. 향기로운 혼이 아직도 옛 모습 비슷하니 그 옛날의 이부인을 오늘 다시 뵙는구려. - 이덕무 『청비록(淸脾錄)』.

기생 옥하선에게[2]

머리는 빗자루 같고 빛깔은 은처럼 희끗한 게
말 없이 가만히 앉아 있으니 마치 귀신 같구나.
비단옷을 온몸에 걸쳤어도 남의 옷 빌려 입은 것 같아
끝내 곽충륜에게나 시집가게 되리라.

頭如刷箒色如銀 默坐無言似鬼神
遍體綺羅疑借著 只宜終嫁郭忠輪

지는 꽃[3]

짙은 꽃잎 여린 꽃잎 시름에 잠겨 있다가
좁은 뜨락으로 한꺼번에 다 떨어지네.
푸른 이끼 위에 남아 있는 것만 같지 못하니

---

2) 당나라의 시인 장우(張祐)와 최애(崔涯)는 기생의 집에다 시를 써서 주었는데, 그 기생을 칭찬하면 그 집 앞은 수레들이 들끓었고, 그 기생을 비웃으면 손님이 끊어졌다. 신종호(申從濩) 선생이 기생 상림춘(上林春)에게 시를 지어 주었다. 다섯 번째 다리 옆에는 연기 낀 수양버들 비껴 섰는데 느지막이 불어오는 바람과 햇볕이 맑고 부드럽구나. 누런 발 속에 앉은 열두 사람 구슬같이 예쁜데 궁궐의 글 짓는 신하는 말 가는 대로 타고서 지나가네. 이로 인하여 기생의 값이 10배나 뛰어 올랐다. 이익지는 기생 옥하선(玉河仙)을 조롱하여 위의 시를 지었다. 충륜은 부자였지만, 장님이었다. 이 기생은 본래 이름이 있었지만, 익지가 이 시를 지은 뒤로는 문 앞에 사람들의 발길이 딱 끊어졌다. 똑같이 이름난 기생이었지만, 시 하나로 그 값을 올리기도 하고 내리기도 했다. 어찌 기생뿐이겠는가? 무릇 선비도 또한 이와 같다. - 허균『학산초담(鶴山樵談)』53.

3)『손곡집』에는 이 시가 실려 있지 않지만, 허균(許筠)이 지은『학산초담』89「감회(感懷)」「도룡진(渡龍津)」과 함께 이달의 시로 실려 있다.

바람이 불면 여기저기로 흩날릴걸세.

落花
惆悵深紅更淺紅 一時零落小庭中
不如留著靑苔上 猶勝風吹西復東

용성창수집

대방(帶方, 남원의 옛이름)은 오랜 고을이니 누관(樓觀)이 호남에서 으뜸이다. 내가 탐라에서 돌아오는 길에 들려 손명부(孫明府, 손여성 부사)를 관아로 찾아가 뵈었는데, 때마침 옥봉 백광훈 창경과 손곡 이달 익지가 나그네로 노닐며 그곳에 있었다. 인사를 나눈 뒤에 곧 자리를 광한루로 옮겼다. 송암 양대박 사진을 서촌에서 초청해 오니 사미이난(四美二難)[4]이 기약한 적도 없이 모이게 된 것이다. 시를 읊다가 술을 마시는 진솔한 모임이 되었다. 며칠을 머물며 놀다가 아쉽게 작별하였다. 온 누각의 맑은 취미는 모두 시편에 담겨 있다. 옥봉의 아들 진남(振南)은 그 부친의 기풍이 깊이 있었다. 지금 그가 지은 절구도 또한 기록 속에 들어 있는데, 아매(阿買)[5]에 견주어 훨씬 낫다고 생각한다.

벽산(碧山) 임자순(林子順)은 쓰다[6]

---

4) 왕발(王勃)이 지은 「등왕각서(滕王閣序)」에 "네 가지 아름다움이 갖춰진 데다 두 가지 어려움까지 함께 했다"는 구절이 나오는데, 여러가지 좋은 것들이 모두 갖춰졌다는 뜻. 사미(四美)는 양신(良辰)·미경(美景)·상심(賞心)·낙사(樂事), 이난(二難)은 현사(賢士)·가빈(佳賓)이다.

5) 당나라 문장가 한유(韓愈)의 아들의 어렸을 적 이름인데, "아매가 글자를 알지 못해도 팔분서를 제법 아네[阿買不識字 頗知書八分]"라는 구절에 나온다. 백진남이 글씨를 잘 썼기 때문에 아매에게 견준 듯 하다.

6) 임형택 교수가 소장한 임제의 문집 『백호일고(白湖逸稿)』에 「용성수창(龍城酬唱)」이 실렸는데, 기문 1편과 시 29수가 수록되었다. 이 글은 임

1.[7]
남국의 봄나들이 삼월이라 한창인데
산 꽃들은 비단 같고 버들가지 실 같구나.
우연히 만났어도 모두 십년지기인 듯
우습게도 병든 나만 좋은 시 못 짓겠네.

南國春遊三月時 山花如錦柳如絲
相逢盡是十年舊 自笑病夫無好詩

5.
층층 성곽에 해 지니 마름풀 섬이 어두워지고
수양버들에 바람 많아 물가 다락에 가까워지네.
서글프게도 내일 아침엔 역로 남쪽 길을 갈테니
방초에 이별 시름 가득한 것을 견디지 못하겠네.

層城日落暗蘋洲 楊柳風多近水樓
怊悵明朝驛南路 不堪芳草滿離愁

6.
임신년[8]부터 손꼽아보니

제가 지은 기문이다.

7) 임형택 교수가 『역주 백호전집』(창작과비평사, 1997)을 간행하면서 「용성수창(龍城酬唱)」을 소개했지만, 임제의 시만 소개했다. 「용성수창(龍城酬唱)」에 실린 시 29수의 원문은 김종서 선생의 논문 「광한루 시회」와 『용성창수집(龍城唱酬集)』(한문학보 6집, 2002)에 모두 실렸다. 임제 6수, 이달 6수, 백광훈 4수, 양대박 6수, 손여성 5수, 백진남 1수, 연구(聯句) 1수인데, 이 가운데 12수가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시이다. 시의 번호는 「용성수창(龍城酬唱)」에 실린 순서이다.

8) 임신년은 1572년인데, 양대박이 지은 「금강산기행록」에 의하면 손곡은 이때 호남에 노닐고 있었다고 한다. 아마도 이때 임제를 만난 듯하다.

어느새 무인년이 되었네.
칠월 후에 다시 노는 건
우리들 두세 사람일세.
서울에 친지가 있고
산천은 거리가 같으니,
그대가 먼저 말 채찍질하며 가게나
오늘 밤에는 꽃자리에서 취하리라.

屈指壬申歲 悠悠到戊寅
重遊七月後 吾輩兩三人
京國親知在 山川道里均
君先策馬去 今夜醉芳茵

7.[9]
신선 놀음 하다보니 화인성에 온 듯싶어 (송암)
열두 난간에 달만 절로 환하구나. (동리)
구천에서 학을 타고 피리 불며 오시는지 (벽산)
밤 깊은데 멀리서 보허사 소리 들리네. (촌노)

仙遊疑入化人城(松巖) 十二欄干月自明(東里)
應有九天笙鶴下(碧山) 夜深遙聽步虛聲(村老)

태헌의 시에 차운하다[10]

무인년은 광한루 시회가 모인 1578년이다.

9) 네 시인이 함께 지은 연구이다. 동리(東里)는 손곡의 또다른 호이다.

10) 손곡이 1582년 서산군수로 있던 태헌(苔軒) 고경명(高敬命, 1533~1592)을 찾아가 여러 달을 보내며 시를 주고받았다. 고경명은 이달과 몇 달 동안 교유하면서 당시(唐詩)의 체를 배웠다고 하였다. 이때 고경명이 이

넘실거리는 바다 서쪽가에 소금밭이 드러나고
신기루 연기 흙비가 아득하게 맞닿았네.
관창(官倉)에서는 공문을 보내 소금세를 거두고
수자리[11] 병사는 성가퀴에 올라 엄하게 야경을 도네.
상자 속에 남은 글은 좀벌레 먹이가 되고
갑 속에 커다란 칼 어장[12]이 빛나는데,
원금(寃禽)[13]은 떠나는 사람 마음을 알지 못해
청명 절기를 보내며 먼 고향을 그리워하네.

謹次苔軒韻
漲海西邊斥鹵荒 蜃烟蠻雨接微茫
官倉出帖收鹽稅 戍客嚴更上女墻
篋裡遺編資蠹蝕 匣中雄劒煥魚腸
寃禽不解離人意 節過淸明憶楚鄕

달과 주고받은 시가 『제봉집(霽峯集)』 권4에 실려 있는데, 『손곡집』에 없는 칠언율시 1수가 차운시로 덧붙어 있다. 고경명이 원래 지은 시 제목은 「파지도에서 유주(柳州)의 '영남강행(嶺南强行)'시에 차운하다[波知島次柳州嶺南江行韻]」이다. 파지도는 서산에 속한 수군만호(水軍萬戶)의 영(營)인데, 서산군 북쪽 35리에 있다.

11) 고파지도수(古波知島戍)는 서산군 북쪽 바다 가운데 있는데, 파지도 만호(萬戶)가 군사를 나누어서 이를 지키고 있다. - 『신증동국여지승람』 제19권 「서산군」. 파지도 군영에서 파견된 군사들이 섬을 지키는 수자리이다.

12) 풍호자(風湖子)가 아뢰었다. "신은 오왕(吳王)이 월왕이 바친 보검(寶劍) 세 개를 얻었다고 들었습니다. 하나는 어장(魚腸), 하나는 반영(磐郢), 하나는 담로(湛盧)입니다." - 『오월춘추(吳越春秋)』.

13) 옛날 염제(炎帝)의 딸이 동해 바다 가운데 빠져 죽어 정령(精靈 : 精衛)으로 화했는데 (줄임) 이름을 원금(寃禽)이라고도 했다. - 임방 『술이기(述異記)』. 글자 그대로 번역하면 '원통한 새', 또는 '원통하게 우는 새'라는 뜻이다.

옥대체[14]

금으로 만든 가위를 가져다가
서강에 흐르는 물을 끊어버리고 싶구나.
강 건너 돌아올 사람 있건만
강물이 흘러내려 그치지 않네.

玉臺體
願將金剪刀 截斷西江水
隔江有歸人 江水來不已

새하곡[15]

3.
장막을 새로 내려 군영을 다시 설치하고
한꺼번에 옛 둔병을 모두 풀어주네.
장군은 북을 쳐서 군악을 연주하고
전사가 징을 두드리니 웃음소리 들리네.

塞下曲 3
蕃帳新降更置營 一時齊放舊屯兵
將軍擊鼓成軍樂 戰士吹鐃有笑聲

---

14) 규정(閨情)을 읊은 시체(詩體)이다. 이 시는 『악부신성(樂府新聲)』에 실렸다. 『악부신성』은 차천로(車天路)가 교선(校選)하고 김현성(金玄成)이 비열(批閱)한 학당파(學唐派)의 악부 시선인데, 최경창・백광훈・임제・이달・이수광 등 다섯 사람의 악부시 175수가 실려 있다.

15) 이 시는 『악부신성(樂府新聲)』에 실렸는데, 제1과 제2는 『손곡집』에 실려 있다.

4.
삼성의 교활한 오랑캐 화친을 청하며
온 부족이 일제히 와 요새 많음을 의심하네.
원수께선 병사들이 듣고 믿기 어려움 알아
다시 새 병졸을 더해 교하를 지키네.

塞下曲 4
三城黠虜請求和 擧部齊來疑塞多
元帥諳兵難聽信 更添新卒戍交河

5.
음산 북쪽 길은 금미로 이어지는데
한나라 병졸 몇년 지나도 돌아오지 않네.
강한 오랑캐 지금도 나타나
기러기 남으로 날아갈 때 멀리 글을 부치네.

塞下曲 5
陰山北路接金微 漢卒經年久不歸
强虜至今猶出沒 遠書時寄雁南飛

동지 정사 정상국의 연행을 전송하면서16)

16) 우복(愚伏) 정경세(鄭經世, 1563~1633)가 3월에 동지사에 임명되고, 8월 7일에 조정을 떠났는데, 평양을 지날 무렵에 이달이 송별회에 참석하여 시를 지어 주었다. 원본이 장서각에 소장되어 있다. 마지막에 "세사기유중추하완(歲舍己酉中秋下浣) 서담이달(西潭李達) 재배고상(再拜稿上)"이라는 구절이 덧붙어 있어 1609년 8월 하순 평양에서 지었음을 알 수 있다. 이달이 지은 글 가운데 현존하는 유일한 친필이기도 하다.

팔월 변방에 서리 내려 풀들 누러니
학야 널찍해 갈 길이 멀겠네.
상공께서 수레 타고 상국으로 향하시니
옥색 구름 속으로 봉황이 날아가네.
순음[17]은 변해 회복되고
자정부터 일양(一陽)[18]을 낳으니,
옥형(玉衡)[19]은 칠정(七政)[20]과 가지런하고
백성들 사업이 변함 없어,
천왕은 황극전에서
넓은 우주[21]에 임해 손을 맞잡고만 있네.[22]
황색 곤룡포가 상서로운 연기 속에
부상(扶桑)에서 아침 해가 막 떠오르듯 빛나네.
멀고 가까이서 배 타고 산 넘어[23] 모두들 조공하며

---

17) 10월 기해일(己亥日)을 순음(純陰)이라고 하는데, 육효(六爻)가 모두 음(陰)이어서 양기가 다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양기가 다했기 때문에, 다시 하나씩 회복된다.

18) 홀수는 양(陽)이고, 짝수는 음(陰)이다. 음력 10월에 한 해의 음(陰)이다하고, 11월 동지에 1양(陽)이 생긴다고 하였다. 한겨울에 봄기운이 시작된다는 뜻이다. 이날이 바로 동짓날이다.

19) 천체의 운행과 그 위치를 측정하던 천문관측기인데, 고대 중국의 우주관인 혼천설(渾天說)에 기초를 두어 기원전 2세기에 처음 만들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장영실이 1433년에 처음 만들었다. 하늘은 공처럼 둥글다고 생각하고 그 표면에 해와 달, 별들의 운행을 설명할 수 있는 천구의(天球儀)를 가리키는 것이 기(璣)이며, 천구의를 통해 천체를 관측 할 수 있는 관(管)이 형(衡)이다.

20) 해[日]와 달[月], 금(金)·목(木)·수(水)·화(火)·토(土)의 오성(五星)을 가리킨다.

21) 원문의 '홍황(洪荒)'은 『천자문』의 둘째 구절 '집우(宇), 집주(宙), 넓을홍(洪), 거칠황(荒)' 가운데 두 글자인데, '넓고 아득한 우주'를 뜻한다.

22) 옷만 늘어뜨리고 손을 맞잡고만 있어도 천하가 잘 다스려졌다[垂拱而天下治] -『서경』「무성」. 천자가 하는 일이 없어도 천하가 잘 다스려진다는 뜻이다.

23) 진나라 소왕(昭王)이 공인(工人)을 보내, 사닥다리로 화산에 오르게 했

흰 꿩을 월상국에서 바치니,[24]
천자의 위엄 미치는 곳에 누가 감히 뒤지랴
이마에 문신 새기고[25] 머리 땋은 오랑캐들 사방에서 모여드네.
동쪽 번방은 대대로 신하의 직분을 받들어
덕업과 문장으로 사신을 가려 뽑았네.
흠천문 밖에서 날 새기를 기다리고
오문교 위에서 하늘 향기를 맡아,
달관을 따라 승상과 같이 들어가면
일천 관원들의 패검 소리가 낭랑하게 울렸네.
궁궐 뜨락에서 두 번 절하고 만세를 부르니
구름비단을 하사하시어 천 장이 넉넉하네.
오만관[26]에서 맹수들 사납게 으르렁거리고
강남에 매화 피자 고향을 생각하네.
고향생각은 천만리 아득한데
해 넘겨 돌아올 테니 시름이 창자를 얽었네.
노룡새[27] 주변에는 한식 철이고
계문에는 북방 풀들이[28] 향기로우니,

다. -『한비자』「외저설(外儲說)」. 높은 산에 사다리를 타고 오르며, 먼 바다에 배를 타고 건너는 것은 멀고 높은 산에 간다는 뜻인데, 흔히 외국에 사신으로 다녀오는 것을 가리켰다.

24) 원시(元始) 원년 정월에 월상씨(越裳氏)가 세 번이나 통역을 거치면서 흰 꿩 한 마리와 검은 꿩 두 마리를 바쳤다. -『한서(漢書)』「평제기(平帝紀)」. 월상국이 워낙 먼 나라라서 중국과 말이 통하지 않아, 세 사람이나 통역을 거쳐야 말이 통했다. 원시(元始)는 한나라 평제(平帝)의 연호인데, 원시 원년은 서력 1년이다.

25) 원문의 '조제(雕題)'는 이마에 문신을 새기는 것인데, 남만(南蠻)의 풍습이다.

26) 오만(烏蠻)은 중국 남서지방에 살던 소수민족이며, 그들의 사신이 묵던 객관이 오만관이다.

27) 연행(燕行) 노정(路程)에서 영평부에 속한 요새인데, 삼국시대 조조가 오환군(烏桓軍)을 치러갈 때에 길을 뚫었던 곳이다.

한양 대궐에 돌아와 복명하실 때
천조의 모든 일을 우리 왕께 고하소서.
기유년(1609) 8월 하순에 서담 이달이 두 번 절하며 지어 올리다

奉送冬至正使鄭相國之行
八月邊霜塞草黃 鶴野漫漫去路長
公乘使車向上國 玉色雲中翔鳳皇
純陰變爲復 子半生一陽
玉衡齊七政 正如民事常
天王皇極殿 端拱臨洪荒
黃袍龍袞瑞烟裏 晃若扶桑初日光
梯航遠邇盡入貢 白雉來越裳
天威所及孰敢後 雕題辮髮會四方
東藩世世供臣職 揀使德業攻文章
欽天門外待曙漏 五門橋上聞天香
同隨達官丞相入 千官劍佩鳴琅鏘
彤庭再拜呼萬歲 勅賜雲錦足千張
鴈杳烏蠻館 梅發江南思故鄕
鄕心迨遞千萬里 經歲乃歸縈愁腸
盧龍塞上寒食節 薊門燕草芳
歸來復命漢北闕 天朝事事達吾王
歲舍己酉中秋下浣 西潭李達 再拜稿上

28) 원문의 '연초(燕草)'는 '연(燕) 지방의 풀'이라는 뜻이지만, 이백의 시 「춘사시(春思詩)」에서 북방에 나는 풀을 두루 가리키는 말로 쓰였다.

부록 2

손곡산인전

허 균

손곡산인 이달의 자는 익지(益之)이니, 쌍매당(雙梅堂) 이첨(李詹)의 후손이다. 그의 어머니가 미천한 기생이었으므로 세상에 쓰이지 못했다. 원주 손곡에 살면서 그것으로 호를 삼았다.

이달은 젊었을 때에 벌써 읽지 못한 글이 없었고, 지은 글도 매우 많았다. 한때 한리학관(漢吏學官)이 되었으나, 뜻에 맞지 않는 일이 있어서 벼슬을 버리고 떠났다. 고죽 최경창·옥봉 백광훈과 함께 노닐며, 몹시 기뻐하여 시사(詩社)를 맺었다.

그 무렵 그는 소동파(蘇東坡)의 시를 본받아서 그 뼛속까지 터득했으므로 한번 붓을 들면 곧 몇백 편을 지었는데, 모두 아름답고 넉넉해서 읊을 만했다. 하루는 사암(思菴) 박순(朴淳) 상공이 이달에게 이르기를, "시의 도는 마땅히 당(唐)으로써 으뜸을 삼아야 한다네. 소동파가 비록 호방하기는 하지만, 벌써 이류로 떨어진 것일세."라고 충고하면서, 곧 책시렁 위에 꽂힌 이태백의 악부(樂府)·가(歌)·음(吟) 등과 왕유·맹호연의 근체시(近體詩)를 뽑아 보여 주었다. 이달은 깜짝 놀라 시의 바른 법도가 여기에 있음을 그제야 깨달았다. 그는 앞서 배웠던 것들을 모두 내버리고, 옛날에 은거했던 손곡의 집으로 돌아왔다.

『문선(文選)』[1]과 『이태백집』, 성당(盛唐) 십이가(十二家)[2]의 글, 유우

---

1) 양(梁)나라 소명태자 소통(蕭統)이 엮은 고시문선집(古詩文選集).

2) 훌륭한 시인들이 많이 나와서 문학이 가장 번성했던 당나라 개원(開元)부터 대력(大曆)시대까지를 성당(盛唐)이라고 한다. 그 가운데서도 왕유·맹호연·이백·두보·잠삼·고적 등 12명의 시인을 이른다.

석·위응물 및 양백겸[3]의 『당음(唐音)』 등을 가져다가 엎드려서 외웠다. 밤을 낮 삼아, 무릎이 자리에서 떠나지 않기를 5년 동안이나 계속했다. 그러던 어느날 갑자기 마음이 밝아져서, 마치 무엇을 깨달은 듯싶었다. 그래서 시를 지어 보았더니, 시어가 매우 맑고도 적절해서, 옛날의 모습을 깨끗하게 씻어 버렸다. 곧 여러 시인들의 체를 본받아서 장단편(長短篇)과 율시·절구 등을 지었다.

그는 시를 지을 때에 말 한마디까지도 갈았으며, 글자 하나까지도 닦았다. 또한 소리와 율까지도 알맞게 갈고 닦았다. 법도에 알맞지 않은 것이 있으면, 달이 가고 해가 가더라도 고치기를 계속했다. 이렇게 해서 열댓 편이 지어지면 그제야 여러 시인들 앞에다 내어놓고 읊어 보였다. 그들은 모두 기이하다고 감탄하였고, 최고죽과 백옥봉까지도 "그를 따를 수 없다"고 말했다. 제봉(霽峰, 고경명)과 하곡(荷谷, 허봉) 같이 시를 잘 짓는다고 일세에 이름이 난 대가들도 그를 성당(盛唐)이라고 치켜세웠다.

그의 시는 맑고도 새로웠으며, 아담하고도 고왔다. 그 가운데 높이 이른 시는 왕유·맹호연·고적(高適)·잠삼(岑參) 등의 경지에 드나들면서, 유우석·전기(錢起)의 풍운을 잃지 않았다. 신라·고려 때로부터 당나라의 시를 배운 이들이 모두 그를 따르지 못하였다. 이는 참으로 사암 상공이 고무시켜 준 힘 때문이었으니, 마치 진섭(陳涉)[4]이 한나라 고제(高帝)[5]의 길을 열어준 것과 같았다.

이달의 이름은 이로부터 우리나라를 흔들었다. 그러나 그의 시는 귀중하게 여겼지만, 그 사람은 버리고 쓰지 않았다. 끝까지 그를 칭찬한 이들은 오직 문단의 대가들 서넛 뿐이었고, 속인들 가운데 그를 미워하고 질투하는 자들이 숲처럼 늘어서 있었다. 여러 차례 그를 더럽히고 모욕하며 형망(刑網)에 얽어맸으나, 끝내 그를 죽여서 그 이름을 빼

3) 원나라 문인 양사굉(楊士宏)의 자가 백겸이다.
4) 진시황의 폭정을 반대하여 최초로 반기를 든 사람 가운데 하나이다.
5) 서한(西漢)의 제1대 황제인 유방(劉邦)의 시호가 고제이다.

앗지는 못하였다.

이달의 얼굴이 단아하지 못한데다 성격이 또한 호탕하여 절제하지 않았고, 게다가 세속의 예법을 익히지 않았으므로 당시 사람들에게 미움을 입었다. 그는 고금의 모든 일과 자연의 아름다운 경치를 이야기하기 즐겼으며, 술을 사랑하였다. 글씨는 진체(晉體)[6]에 능하였다.

그의 마음은 가운데가 텅 비어서 아무런 한계가 없었으며, 살림살이를 돌보지 않았다.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성품 때문에 그를 사랑하였다. 그는 평생토록 몸 붙일 곳도 없이 떠돌아다니며 사방에 비렁뱅이 노릇을 했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천하게 여겼다. 그리하여 가난과 곤액 속에서 늙었으니, 이는 참으로 그의 시 때문인 것 같다. 그러나 그의 몸은 곤궁했지만 그의 시는 썩지 않을 것이다. 어찌 한때의 부귀로써 그 이름을 바꿀 수 있으랴.

그가 지은 글들이 거의 다 없어져 버렸기에, 내가 모아서 네 권으로 엮어 뒷세상에 전하려 한다.[7] 외사씨(外史氏)는 이렇게 평했다. "태사 주지번(朱之蕃)이 앞서 이달의 시를 읽다가 「만랑무가(漫浪舞歌)」에 이르러서 무릎을 치며, '이 작품이야말로 이태백에게 견준다 하더라도 어찌 뒤떨어지겠는가?'라고 감탄하였다. 석주 권필은 그가 지은 「반죽원(斑竹怨)」을 보고, '이것을 『청련집(靑蓮集)』 가운데 넣는다면, 아무리 안목이 높은 자라도 쉽게 가려내지 못하리라' 하였다. 이 두 사람이 어찌 망령된 말을 하였겠는가. 아아! 이달의 시는 정말 기이하도다." - 허균 『성소부부고(惺所覆瓿藁)』 권8 「손곡산인전(蓀谷山人傳)」.

---

6) 진나라 명필 왕휘지의 서체.

7) 허균이 스승 손곡의 시집을 엮은 것은 두 차례이다. 『손곡집』에 덧붙인 그의 서문에 의하면, 처음 손곡이 죽은 뒤 그의 시가 남아 전하지 않게 된 것을 아까워하여, 평일에 외워 두었던 시를 모으니 200여편이 되었다고 한다. 이것이 여기서 말한 4권이다. 그 뒤 홍유경(洪有炯)과 이재영의 도움으로 130여편을 보태어, 다시 갈래를 나누어 6권의 시집을 이뤘다. 현재 전하는 『손곡집』은 1책 6권인데, 308편의 제목 아래 369수가 실려 있다. 허균이 『손곡집』에다 머리말을 지어 붙인 것은 1618년이었으니, 바로 허균 그가 죽음을 당하던 해였다.